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9
2012 September Vol.249



창단 50주년 기념
중국 순회연주회를 가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2012 4th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2012. 10. 6 Sat. pm 6:00 | 영화의전당 BIFF Theater 야외극장

부산국제영화제(BIFF) 야외무대를 장식할 꿈의 콘서트!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함께 할 500여명 출연진의 대 하모니!

세계적 스타 스테판 피 제키브,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마돈나 박은주
격조의 목소리 비뮤티, 사물놀이, 코러스가 어우러지는 인류화합의 대축제!!

감동의 세계를 향해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사물놀이 버숨새예술단



소프라노 박은주



클래시컬 팝보컬 비뮤티



합창 부산연합합창단

대학연합합창단(부산대, 고신대, 동의대 등)과
연합여성합창단, 연합남성합창단 등 400여명의 대규모 합창단

| 주최 |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1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12

KNN 문화재단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초대권(1인 2매)으로 음악회 이후 당일 BIFF 야외상영장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으며, 초대권은 KNN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 오충근

Artistic Director, Choong-Keun Oh



바이올린 스테판 피 재키브

Vn. Stefan Pi Jackiw



| 협찬 |  **취강림CSP**  **조광페인트**  **부산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
 | 문의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www.bwpo.co.kr  **NAVER**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DSME 대우조선해양**  **DIT 동의과학대학교**  **KNN 1577-7600** www.knn.co.kr



Carl Orff's CARMINA BURANA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2012. **9.13**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이동신



테너
곽성섭



바리톤
강경원



소프라노
김유진



입장료 2,000원 (균일)

유나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

주관 | United Korean Orchestra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KNN 부산인민방송 BS 팝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인터넷뉴스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 · 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관람 | 초등학생 이상 가능 / 문의 : 051)220-5805

※ 스태프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 본 공연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2012 평화통일콘서트

Peace & Unification Concert

남과 북의 연주자들이 만나 하모니를 이루는
웅장한 음악 드라마!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문화의 하나됨!!

세계평화와 한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피아니스트 김철웅

2012.9.19(수) pm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후원



부산광역시

문의 051.866.6363

문화로
가슴이
퍼집니다



오영실의 트로트 보다 쉬운 JAZZ

일시 2012 . 9 . 22(토) 6시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30,000원 / R석 20,000원 / 2층 10,000원

예매처 ●BS팝부산 티켓링크 ✦INTERPARK

문의 051-749-7651

출연



색소폰 이정식 / 드럼 이길중 / 피아노 이발차 / 베이스 최세열 / 기타 박훈우 / 보컬 하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Ruby's Palka

후원 : 문화나눔 복권위원회



해운대문화회관QR코드

- 08 커버스토리 | 중국 대륙을 감동시킨 부산시립교향악단
- 10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 문화대학 강사로 부산 찾는 발레리노 이원국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떠난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여운 '오르세 미술관' _ 이재걸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⑨ |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맥베스 2부>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로시니 ⑦ | 극음악을 은퇴하고 말년 종교음악으로 회귀 _ 김종천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⑩ | 청량한 물소리 들으며 시원하게 발 담그면 _ 변광석
- 26 그곳에 가면 | 국내 최대의 해양문화공간 국립해양박물관
- 28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아모르합창단
- 30 문화가화제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비엔날레
- 33 나의 애청음반 |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_ 조영석
- 34 리뷰 | 클래식의 첫경험 _ 신설령
말하는 다큐멘터리 _ 김희진
- 36 테마가 있는 여행 | 김천
- 39 CULTURE LIFE
- 61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9월호 통권 249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8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중국 대륙을 감동시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8월 2일 중국 3개 도시 순회 연주길에 오른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북경, 상해, 광주에서 가진 연주회에서 중국 현지 관객과 언론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이번 연주회는 중국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리 신차오와 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무대여서 현지 음악애호가들과 언론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8월 2일 북경에 도착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중국인 지휘자가 이끄는 한국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으로 입국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연주는 도착한 다음날인 3일,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열렸다. 북경에 소재한 국가대극원은 그 속에 거대한 생명체가 들어있는 듯 커다란 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위용을 자랑한다. 공연 시작 전, 대기실에서 지휘자 리 신차오와 협연자 김봄소리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현지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중국 공연의 레퍼토리는 1960년대에 출생한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중국의 대표곡인 루 치밍의 '홍기송(紅旗頌)'과 차이나국제콩쿠르 우승자 김봄소리가 협연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쇼스타코비치 제10번 교향곡. 순회연주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교향곡 제10번은 스탈린 체제 하에서 신랄한 투쟁의 의지를 담은 교향곡 9번을 발표하고 극심한 고초를 겪었던 쇼스타코비치가 스탈린 사후에 다소나마 정신적인 여유와 충만을 찾은 이후에 작곡한 곡으로 유명하다.

중국 순회 첫 공연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열정이 담긴 호연으로 갈채를 받았고 경화시보, 북경일보, 북경만보, 북경경보, 북경청년보, 봉황망 등 현지 언론의 리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경화시보는 '러시아 지휘자가 많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러시아 곡을 탁월하게 연주했다'고 평했고 인터넷 매체 봉황망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쇼스타코비치라는 큰 도전을 했고 팬들에게 쇼스타코비치를 깊이 각인시켰다'는 리뷰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탁월한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8월 5일 상해 동방예술중심 음악청에서 열린 상해 공연에서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열정적인 연주와 멋진 음악으로 박수를 받았다. 특히 상해 공연은 외국 오케스트라 공연으로는 드물게 전석 매진을 기록해 중국 음악계에도 화제가 되었다. 8월 8일 광주 대극원 가극

청에서 열린 광주 공연은 심 없는 여정으로 단원들이 많이 지친 상황이었지만 안정감 있는 연주로 더욱 빛을 발했다. 중국 내에서 1인당 GNP가 가장 높은 광주는 관객의 관람 수준 또한 높았고, 인형처럼 아름다운 협연자 김봄소리의 기품 넘치는 연주에 각별한 환호를 보냈다.

중국 최고의 클래식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을 드높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역사적인 중국 3개 도시 순회 연주회에 이어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무대가 계속 이어진다.

9월 11일에는 장-베르나르 포미에가 지휘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야블론스키가 협연하는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10월 18일에는 전 수석지휘자 마크 고렌 슈타인이 지휘하고, 2004년 칼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을 석권한 권혁주가 협연하는 제483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에는 창단 50주년을 기념, 중국 칭다오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중국중앙음악원 교수 석해빈 등을 축하 사절단으로 초청,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지휘로 창단 50주년 기념 축하연주회를 연다. 이날 연주회는 특히 2012년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참가해 11살의 나이로 주니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이 새로운 50년을 함께 여는 희망의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I ‘카르멘’ *Highlight*



카르멘 성미진

마카엘라 김유진

돈 호세 김화정

에스카밀로 박대용

●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I ‘카르멘’ 하이라이트가 9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에 이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비제가 남긴 4막의 오페라 ‘카르멘(Carmen)’을 이동신의 지휘와 해설, 명신대학교 유철우 교수의 연출로 선보인다.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펼쳐지는 오페라 ‘카르멘’은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아름답고 매혹적인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돈 호세 하사와의 사랑을 그린 비극이다. 1875년 3월 3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는데, 첫 공연은 비평가들이 부도덕하고, 표면적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극중 각 막마다 나오는 전주곡과 제1막에서 나오는 〈하바네라〉, 제2막의 〈집시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제3막의 〈미카엘라의 아리아〉, 제4막의 〈카르멘과 호세의 2중창〉 등이 특히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메조소프라노 성미진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으로, 소프라노 김

유진이 시골 처녀 미카엘라로, 테너 김화정이 순진하고 고지식한 돈 호세로, 바리톤 박대용이 투우사 에스카밀로로 열연, 오페라 카르멘의 감동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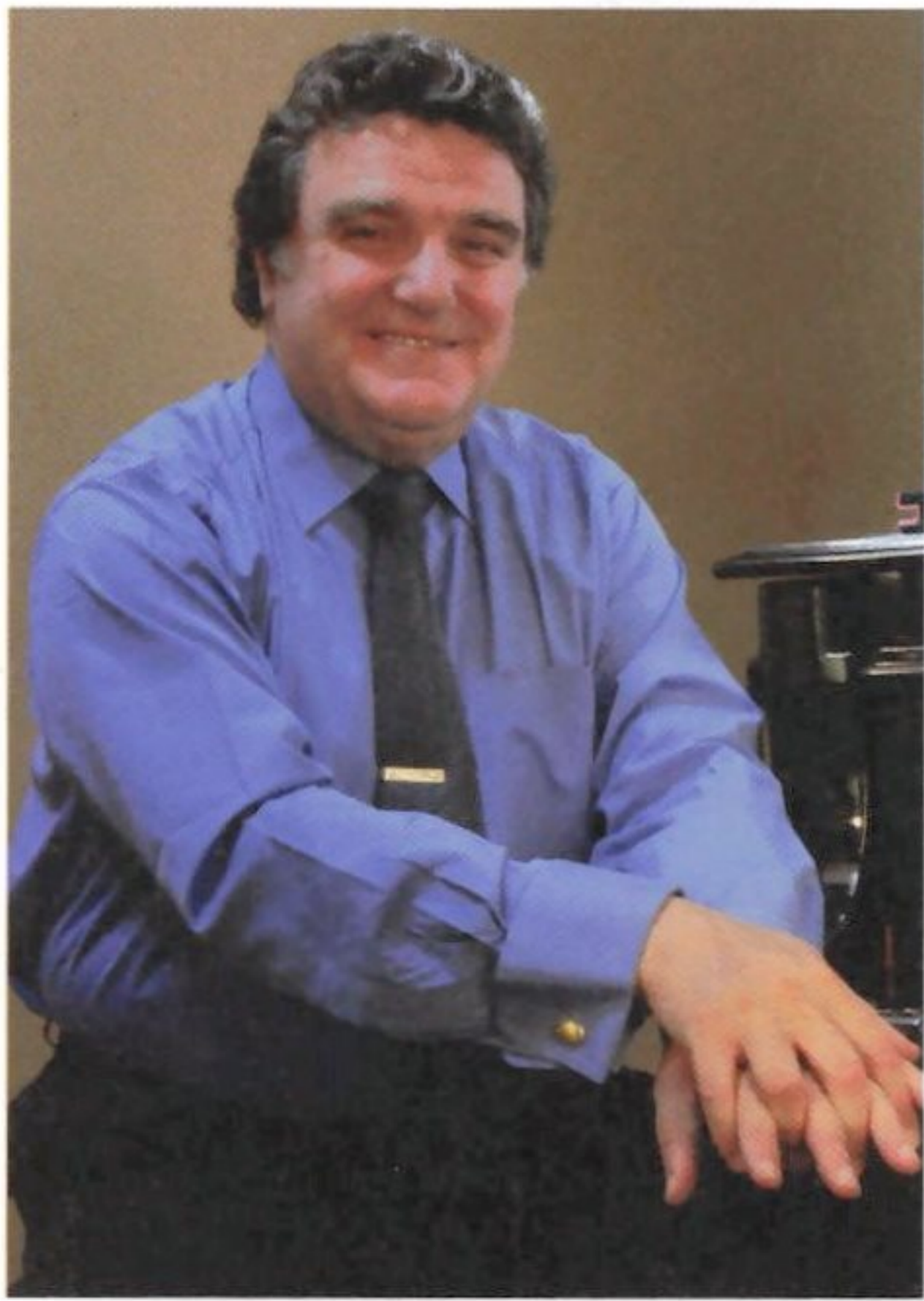
이탈리아 Sarzana, Umberto Sacchetti, Roero In Musica, Mario Grioni 등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메조 소프라노 성미진은 오페라 ‘나비부인’ ‘리골레토’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라트라비아타’ ‘모세’ ‘버섯피자’ 등 오페라 무대와 국내외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 등 다수음악회에서 활동해왔다. 소프라노 김유진은 고태국 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 ‘Anselmo Colzani’ ‘Schio’ ‘G.Martinelli - A.Pertille’ ‘23회 Maria Caniglia’ ‘Mario del Monaco’ 특별상을 수상하고 오페라 ‘춘향전’ ‘돈조바니’ ‘라보엠’ ‘나비부인’ ‘플랑크-글로리아’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테너 김화정은 이탈리아 Racconigi 국제 콩쿠르 1위 입상, Schubert 국제 콩쿠르 3위 입상하고 오페라 ‘토스카’ ‘라보엠’ ‘나비부인’ ‘잔니 스키키’ ‘가면무도회’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춘향전’ ‘봄봄’ ‘대장경’ 등에 주역으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이어왔다.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 이탈리아 엔나 국제성악콩쿠르 3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바리톤 박대용은 오페라 ‘리골레토’ ‘토스카’ ‘라트라비아타’ ‘라보엠’ ‘가면무도회’ ‘피가로의 결혼’ 등에서 활동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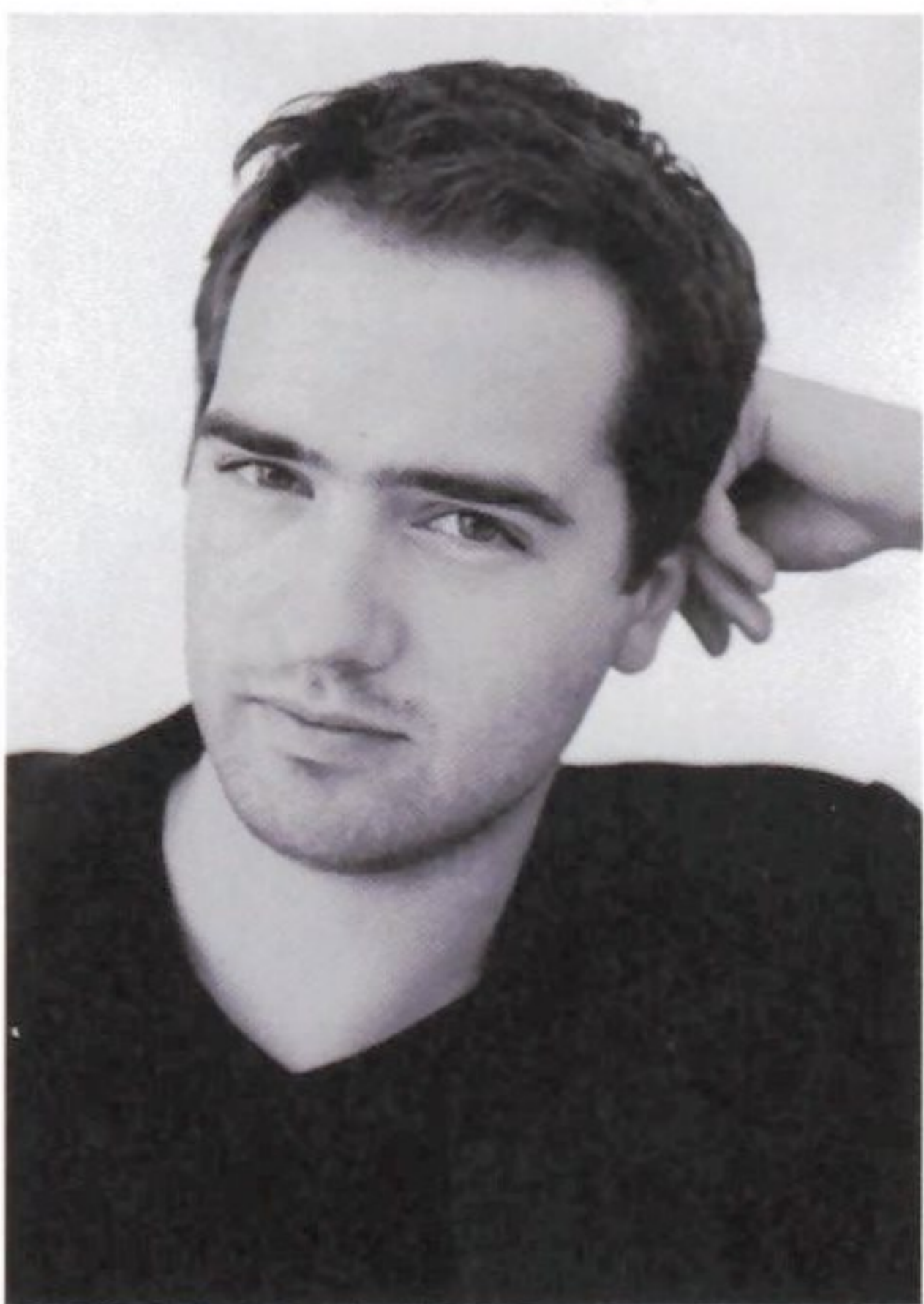
일시 9월 7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2012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지휘 장-베르나르 포미에



피터 아블론스키

● 부산을 대표하는 최정상의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 2010년 첫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세 번째 축제 '유럽, 그 찬란한 유산'이 9월 11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화려하게 막이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67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 겸 피아니스트로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장-베르나르 포미에가 지휘하고, 재능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비평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아블론스키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노르딕 멜로디(Nordic Melody)'라는 주제로 화려한 개막 무대를 연다.

지휘자 장-베르나르 포미에는 4세부터 피아노를 시작하여 7세에 데뷔, 파리 음악원에서 이브 나트와 피에르 상강에게 피아노를, 유진 비고에게 지휘를 사사했으며, 이후 뉴욕에서 유진 이스토민을 사사하였다. 베를린 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에 이어 17세 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준우승으로 일찍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장-베르나르 포미에는 노던시포니아 예술감독, 망통페스티벌 예술감독, 토리노필하모닉 수석지휘자를 지내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과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현재는 영국 더럼의 뮤직에카데미 감독과 세인트차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8세에 데카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지휘로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하면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선 피터 아블론스키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아티스트이다.

피터 아블론스키는 그동안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BBC 심포니, 필하모니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샤를 뒤투아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아쉬케나지가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과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슬로 필하모닉, 신일본 교향악단, 아쉬케나지가 지휘하는 NHK 심포니 등과 협연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1996년 스웨덴을 빛낸 점을 인정받아 Arts Svensk i Varlden 상을 수상한 피터 아블론스키는 1998년에는 바르샤바의 가을페스티벌에서 킬라의 피아노협주곡을 세계 초연하여 오르페우스상을, 2005년 6월에는 피아니스트로서의 탁월한 성과를 스웨덴 국왕에게 인정받아 공로훈장 메달을 받기도 했다.

피터 아블론스키가 들려줄 곡은 '페르귄트' 모음곡과 함께 그리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명작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이 곡은 그리그가 사랑하는 여인 나나와 결혼하여 덴마크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시절 작곡한 곡이다. 그리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만큼 화려한 피아노 기교를 도입시켜 자유분방한 표현을 느낄 수 있으며, 노르웨이 민요풍의 청순한 선율과 신선한 화성 등 그리그 특유의 매력과 갖가지 창의를 담은 서정적인 악상이 돋보인다.

일시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순회연주회

가을, 한가위와 한국가곡



부산시립합창단



오세종

전상철

●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區문화회관 순회연주회를 갖는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가을, 한가위와 한국가곡'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區문화회관 순회연주회는 9월 18일 을숙도문화회관을 시작으로 20일 영도문화예술회관, 25일 동래문화회관, 27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합창단 오세종 수석지휘자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 수석지휘자가 나누어 지휘봉을 잡는다. 9월 18일 을숙도문화회관, 20일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세종 수석지휘자가, 25일 동래문화회관, 27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는 전상철 수석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첫 무대는 가곡 '남촌' '보리밭'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등 한국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4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첫 무대

에 이어 두 번째 무대에서는 수석단원과 부수석단원의 솔로 무대가 마련된다.

18일과 27일에는 소프라노 김나영, 알토 손미숙, 테너 강종철, 베이스 안재형이, 20일과 25일에는 소프라노 남순천, 알토 정은영, 테너 김진영, 바리톤 김태우가 출연, 청산에 살리라, 산촌, 수선화, 꽃구름속에, 비가, 비목, 가고파, 떠나가는 배 등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민요합창. '신고산타령' '한오백년' '춤추는 춘향이' '강강수월래' 등 풍성한 한가위에 어울리는 흥겨운 우리민요로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든다. 특히 9월 25일 동래문화회관과 27일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에서는 한가위의 풍성함을 만끽하기 위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이 특별출연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및 장소

- 9월 18일(화)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9월 20일(목)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9월 25일(화)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9월 27일(목) 북구문화빙상센터 대강당
- 입장료 무료(선착순 입장권 배부)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8일, 20일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25일, 27일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특별출연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가을에 듣는 국악 실내악 - 바다로 간 연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대규모의 악기편성에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와 지휘자의 손끝으로 표현되는 탄탄한 앙상블로 관현악의 매력을 선보여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악기의 고유 음색을 즐길 수 있는 실내악의 밤 '가을에 듣는 국악 실내악 - 바다로 간 연어'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전해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은 각 연주자들의 음악적 감성과 개성이 섬세하게 표현되고 악기 하나하나의 음색과 선율의 특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이다.

감상에 있어서도 기존 관현악 무대는 지휘자의 음악적 운영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악단 전체의 군집(群集)을 주시하였다면 이번 '실내악의 밤'에서는 연주자의 연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현악 앙상블에서는 미처 감상할 수 없었던 연주자의 몸짓, 얼굴 표정 등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만나볼 수 있다.

첫 무대는 가야금, 대금 중주곡인 김영재 곡 '황토길'로 연다. 한국의 아름다운 황토길에서 악상을 얻어 전체 5부분으로 작곡된 황토길은 원곡은 17현

가야금과 해금이 아기자기한 선율을 주고 받는 응답형식의 곡이었으나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17현 가야금과 대금의 구성진 선율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부산초연곡인 김선제 곡 국악실내악곡 '해오름'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방병원이 직접 작곡한 해금 4중주 '두 줄의 노래'를 들려준다. '해오름'은 고요한 이른 아침녘에 동해 앞바다의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의 생활도 역동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진취적으로 거침없이 밀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가야금과 대금, 해금 연주에 이어 이경섭 곡 '연'과 '바다로 간 연어'가 부산초연무대로 마련된다. '연'은 어릴 적 바람 부는 겨울날, 하늘 높게 떠다니는 연들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으로 연처럼 자유롭고 싶었던 작곡가의 마음을 국악실내악으로 담아냈다. '바다로 간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가는 연어처럼, 우리음악 작곡을 처음 시작할 때의 작곡자의 마음과 자세를 표현한 곡으로 리듬의 가벼움과 선율의 무거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실내악의 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문고 중주곡 '아리랑 메들리'로 거문고 파트 전 단원이 참가해 아리랑의 새로운 매력을 전한다.

마지막 무대는 강상구 곡 국악실내악 '젊음에 부치는 풍경'으로 장식한다. 이 곡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재즈와 우리음악의 한(恨)의 정서에서 느끼는 감정을 담아냈다. '순수시대', '도전시대', '갈등과 환희의 시대' 등 3악장으로 음악을 구성, 우리 시대 음악으로의 국악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일시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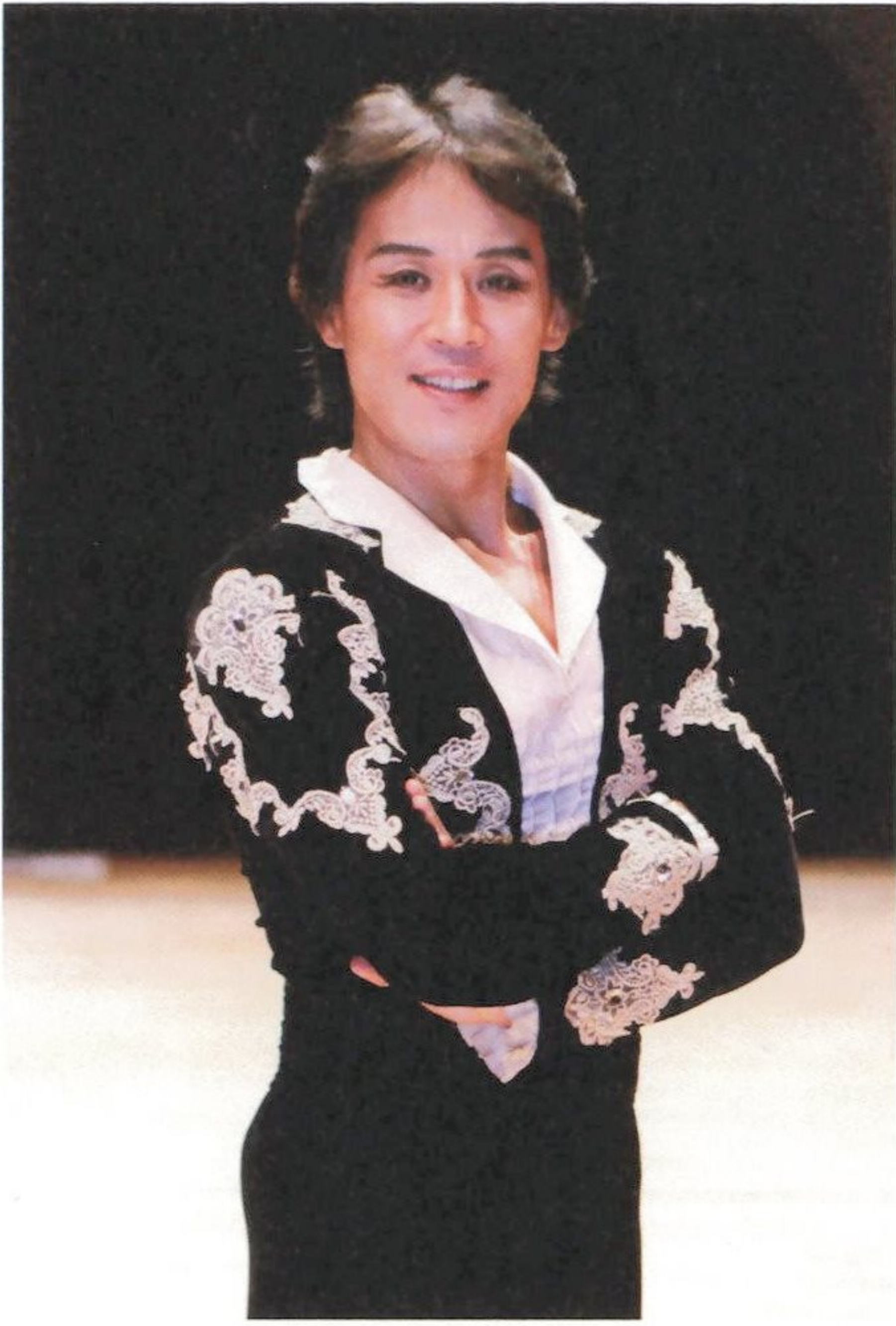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영원한 왕자' '한국 남성 발레의 교과서' '한국 발레의 신화' 등 수많은 별칭의 주인공 이원국이 9월 개강하는 부산문화회관 제6기 문화대학 강사로 고향 부산을 찾는다. 한국 발레계에서 '남성 무용수의 시대'를 열었던 발레리노 이원국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발레단 수석 단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05년 이원국발레단을 설립하고 발레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이원국은 국내 최초로 대학로 소극장에서 상설 발레무대 '이원국의 월요일발레이야기'를 진행하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를 벗고 그만의 익살스러움, 능숙한 말솜씨로 발레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9월 12일 강연에 앞서 지면으로 이원국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이원국

부산이 낳은
최고의 발레리노





언제나 부산이 그리운 부산사람 이원국

5개월만의 부산방문입니다. 10월 10일에는 부산KBS가 주관하는 무용콩쿠르 특별공연이 있어 또 내려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불혹을 넘긴 발레리노로 산다는 것

하하 ~. 물론 발레리노로서의 전성기가 지난 나이지만,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관객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작작품을 위해 근래에는 새로운 안무작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발레의 교과서' 라는 닉네임에 대한 생각

언론에서 과찬을 해 주신 거죠. 그런 만큼 그런 부담감 때문이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민간발레단 운영

국립발레단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언젠가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간발레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록한 일은 아니었지만 발레가 활성화되고 많은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열정이 8년의 세월을 이어온 원동력이 아니었나 합니다.

매진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이원국의 월요발레이야기'

발레를 매주, 그것도 공연을 보기가 가장 부담되는 월요일에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저희 단원들조차 걱정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공연을 매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공연을 쉬는 월요일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4월 '사랑의 세레나데'로 시작해 지금까지 벌써 4년 넘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6주 이상 매진사례를 기록한 적도 있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에도 입추의 여지 없이 관객이 꽉 들어찬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소극장에서 4년 이상 매주 발레를 공연하고 있는 예는 저희 이원국발레단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매주 성실하게 공연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발레이야기로 얻은 것

월요발레이야기는 다른 발레 공연장들과 다르게 소극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의 숨소리, 손짓, 몸짓 등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관객들의 반응도 다양하고 또 다른 소극장 발레공연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출발, 20세에 발레 시작

어머니의 권유로 20살 때 처음으로 발레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나'가 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연습도 혹독하게 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 하나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빨리 인지하고 빠른 결정을 통해 살려나가야 하는가가 문제겠죠. 주변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격려해 준다면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본인만의 출발점을 잡아나가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힘내세요! 10년간 포기 없이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원국이 준비하는 특별한 가을 무대

10월 말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김성중 작가 원작인 '여명의 눈동자'를 창작 드라마발레로 제작해 국내 초연할 예정입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20여년 전에 TV로 방영되어 국민드라마로 큰 인기를 누린 작품입니다. 워낙 대작이라 발레로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대학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고향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항상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고향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조만간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 기차역의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떠난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여운
오르세 미술관

이재걸_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예술사 박사 과정

축제와 같던 열정의 계절이 지나고 파리는 가을의 멜랑콜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요즘이다. 어느 해 여름 처럼 파리를 찾았던 많은 사람은 제각기 추억을 만드느라 부지런히 걷고 사진을 찍으며 이 아름다운 도시가 선사한 특별한 여름날의 꿈을 고이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짧아진 해 만큼이나 눈에 띄게 수가 줄은 관광객들이지만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는 파리는 조금은 왁자지껄했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한다. 그 시간을 채워주는 것은, 늘 그래 왔지만, 급작스레 변하는 계절의 변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예술의 향기이다.

파리 한복판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뿔리리 정원을 거쳐 주드폼 미술관과 오랑주리 미술관을 지나치며 걷는, 조금은 사치(?)스러운 산책길에는 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센스강이 흐른다. 이 아름다운 물줄기를 아래로 두며 다리를 건너면 그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자동차 네비게이션 상의 파리 0km 기준이 노트르담 성당이라면 우로는 루브르 박물관, 좌로는 오르세 미술관이 있는 바로 이 지점이 파리 예술의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에 너무 많은 관람객으로 들어가기 망설여지던 오르세 미술관에 들어가 보기로 한다. 이 조금은 특별한 산책길에서 만날 아름다운 미술작품들은 매번 나를 처음인양 설레게 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나의 짧은 어휘력은 너무나 초라할 뿐이다. 말 그대로, 말 못할 무언가가 나의 시선과 발걸음을 유혹하며 나를 오르세 미술관의 웅장한 건물로 이끈다고 밖엔...

루브르 박물관 쪽에서 바라본 오르세 미술관 •





‘풀밭 위의 식사, 1863년’이 있는 마네의 전시실 풍경 ●

오르세 궁(PALAIS D'ORSAY)이라 불리며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그 역할을 달리 해오다가 1871년 파리 코뮌 시대에 입은 화재로 인해 방치되었던 이 건물은, 에펠탑으로 상징되는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이은 1900년 박람회에 맞춰 기차역으로 개조되었다. 약 40년 가까이 파리와 프랑스 남서부를 이어주던 이 기차역은 그러나 더욱 덩치가 커진 현대식 열차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몽파르나스역에 그 역할을 넘기게 된다. 프랑스 미술의 황금기였던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공식적으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1848년부터 1914년까지의 작품들) 예술품들을 모아 둘 대규모 미술관의 건립 필요성에 따라 1970년대 당시 공화국 수장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공식결정에 따라 오르세는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용도를 탈바꿈하게 된다. 1986년 탄생한 오르세 미술관은 이후로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자체보다 더 화려한 소장품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된다.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가득했을 20세기 전후의 시대상에 맞물려 온갖 창의적 실험이 주를 이룬 이때의 미술작품들은 근현대 예술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상주의를 포함한 자연주의, 사실주의, 야수주의 등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예술사조들 안에서 우리는 신이 내린 재능에 개인으로서의 예술가의 진정성을 더하며 주류와 타협하지 않았던 수많은 작가의 고뇌가 담긴 흔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답답한 아뜰리에를 벗어나 시시각각 다른 색채를 품어내는 야외로 나가서 그 찰나의 순간을 담았던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등의 인상파 화가들, 강렬한 표현과 색으로 이지적인 사고를 벗어나 감정의 격동과 생명력을 노래했던 마티스와 드랭 등이 중심이 된 야수파 화가들, 또는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이나 자연과 친

화하는 농부나 목자를 그렸던 코로 혹은 밀레와 같은 자연주의 화가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양식화된 미적 표현을 지양하고 작가가 바라보는 대상을 더욱 차별화시켜 삶의 다양성과 미묘한 운명의 변화들을 담아낸 격정의 시기를 살았던 위대한 예술가들의 증언들이 살아숨쉬는 듯 하다. 더욱더 난해해질 현대미술의 서막을 알리며 예술에서 개인의 창의력을 더욱 존중할 이때의 작품들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흔히 상상하는 진지한 예술가의 모습의 틀을 짜게 해주었다. 그만큼 익숙한 이름들이 이곳 오르세 미술관에는 가득하다.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주관적 심미안으로 영원히 반짝이는 고희와 단순하지만 사물의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감흥을 잡아내려 했던 거장 세잔을 포함해, 원근법 논리까지 무시해가며 장식성이 가득한 화면으로 타히티 섬 민중들과 같은 인물과 자연의 순수한 삶의 방식을 그려냈던 고갱까지..., 오르세 미술관은 가히 ‘스타예술가’들의 집합장이자 경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름다운 오르세 미술관의 전시공간과 그곳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미술작품들은 굳이 현란한 미사여구 없이도 훌륭하다. 비교적 최근에 개관된 오르세 미술관은 이미 프랑스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수많은 중요 예술가를 배출한 프랑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채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준 상류층의 작품 구매에 이은 국가로의 헌납, 또한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사회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게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인식 등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화대국 프랑스는 어제의 흔적만을 쫓는 게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들이 주는 위대함과 설렘보다 예술의 힘을 믿고 그 가치를 소중히 보전해가는 이 나라의 정성 어린 노력이 더 감동으로 다가온다.

더운 여름, 비싼 물가와 콧대 센 파리지앵들 사이에서 고생하며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던 많은 사람은 현실과 급작스레 조우한 예술의 향기를 한껏 머금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추억의 아련함 속에 담아두기엔 너무도 생생한 역사의 흔적 앞에서 사람들은 예술을 만났다.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릴 수밖에 없는 거친 현실의 피곤함 안에서도 사람들은 또 한번 기억할 것이다. 예술의 향기는 ‘삶이란 한여름밤 느닷없이 찾아오는 행복한 꿈’이라고 우리에게 늘 속삭인다는 것을.... 가을에 홀로 남은 파리에게 지난 여름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미 꿈이 되었듯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여운을 품고 파리는 가을로 향한다.



- 반 고흐의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에, 1888년'
- 세잔의 정물화와 풍경화
- 윈슬로 호머의 '여름밤, 1890년'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맥베스 2부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는 베르디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인기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연되는 횟수도 적다. 하지만 다른 명작들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며 베르디의 초기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성이 뚜렷하고 극적인 표현이 뛰어난 훌륭한 오페라이다. 베르디는 주로 실러, 뒤마, 위고 등 문호들의 소설이나 희곡을 차용하여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셰익스피어에 심취해 있었으며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셰익스피어전집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애독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그는 만년에 <오텔로>와 <팔스타프>를 오페라로 만들었다. <맥베스>는 이들과는 달리 거장의 젊은 날의 정열과 에너지가 녹아서 탄생한 드문 오페라이다. 이들 세 작품 외에 <리어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페라로 만들지는 못했다.

1846년에 아홉 번째 오페라 <아틸라>의 초연이 큰 성공을 거두자 피렌체의 페르골라 극장은 베르디에게 다음 시즌에 상연할 새 작품을 의뢰

한다. 베르디는 친구이자 시인인 마페이가 실러의 희곡을 바탕으로 미리 완성시켜놓은 <군도>를 작곡하려 하였으나 주역 테너가수 일정상 이유로 이 오페라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전부터 테너가 조역되도록 작곡하겠다고 생각해왔던 <맥베스>를 오페라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베르디 자신이 내용을 산문으로 정리하고 막의 설정부터 곡의 구분까지 직접 구성한 다음 그와 여러 차례 작업한 바 있는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에게 대본을 의뢰한다. 대본이 완성된 후 약 넉 달간 작곡에 몰두한 끝에 1847년 그의 나이 서른네 살에 완성하고 그해 3월 10일 피렌체의 페르골라 극장에서 초연을 하여 대성공을 거둔다. 18년 후에는 파리에 상연하기 위해 대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프랑스 오페라의 전통에 따라 발레를 추가하였다. 현재는 이 개정판을 다시 이탈리아어로 옮겨서 출판된 악보로 연주하는 것이 관례이다.

베르디는 이 오페라를 구상할 때부터 당시로서는 드물게 바리톤을 주역으로 하고 테너를 조역으로 설정했다. 바리톤이 부르는 맥베스 역은 대단히 성공하였고 여기에 힘입어 그 후에도 베르디는 성격적인 주역을 바리톤에 부여하였다. <리골레토>나 <시몬 보카네그라> 등이 그 예다. 맥베스 역을 맡은 바리톤이 당연히 주역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이 맥베스 부인 역이다. 사실 맥베스는 왕위찬탈의 음모를 진행하면서도 시종 불안에 떠는 조금은 유약하고 용기가 부족한 인물이다. 반면, 그를 총동질하고 그의 야망을 리드해가는 그의 아내 맥베스 부인이 이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소프라노가 맡는 이 역은 성격묘사가 치밀해야 하고 악역을 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4막에는 당시 주역 소프라노에게서 유행하던 '광란의 장면'도 있어 어려운 배역이다. 그래서 때로는 고음이 가능한 메조소프라노가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도 한데, 베르디는 이 역을 위해 '이 역은 절대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가수가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하여 이 역이 지닌 드라마틱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맥베스〉를 공연할 때 부딪히는 또다른 어려움은 장면전환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 오페라는 공연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열 번이 넘는 장면전환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만큼 많은 무대를 제작해야 한다. 가수들의 잦은 등장과 퇴장, 빈번한 무대전환이 관객들의 감상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은 복잡한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득이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무대전환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스〉와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등장인물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극은 20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오페라는 그 수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 주로 비슷한 부류에 해당하는 인물이 축소되었는데, 덩컨왕의 두 아들 중 비중이 작은 도널베인이 빠지고 스코틀랜드의 귀족들 여섯 명 중에는 마지막에 맥베스를 죽이는 중요한 역인 맥더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되었다. 주요인물 중에는 덩컨왕에 노래하지 않고 연기만 하는 배역을 줌으로써 비중을 크게 줄였다. 벵코의 아들 플리언스 역시 연기자로 대체되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차이가 없다. 단지 오페라는 연극의 여러 장면들을 보다 큰 장면으로 묶으면서 줄거리의 핵심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했다. 연극의 1막과 2막을 묶어 오페라의 1막으로 만들고 나머지 연극의 3막부터 5막까지는 오페라의 2막부터 4막까지로 정리하였다. 장면이 생략된 곳은 있지만 그 순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극에서 자객은 모두 세 명이지만 베르디는 이를 합창으로 늘려 놓았다. 오페라에서 합창이 지나는 다양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하나의 움직임으로 통일되어 있는 무리의 인격화이다. 즉 여러 명이 노래하지만 각각의 인격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무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된다. 이는 마녀들도 마찬가지다. 연극에서 마녀는 세 명이지만 오페라 시작부분에서는 마녀들이 무리를 이루어 합창을 한다.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1인칭인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곡가는 모든 가능한 음악적 자원을 오페라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아리아도 있어야 하고 중창과 합창도 있어야 하는 것이 오페라 특유의 관습이다.

베르디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다. 그러나 오페라와 연극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베르디의 말년에 와서야 이 간격들이 좁혀지기 시작하였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을 깨고 베르디가 재기한 작품은 〈오텔로〉였다. 또 그 뒤를 이어 작곡한 최후의 작품 역시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을 원작으로 한 〈팔스타프〉였다. 특히 〈오텔로〉는 놀라울 정도로 원작과의 차이가 없는 작품이다. 그 어떤 문호들보다 베르디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인물은 바로 셰익스피어였던 것이다.

● 셰익스피어에 심취해 있었던 베르디가 젊은날의 열정과 에너지로 탄생시킨 오페라 '맥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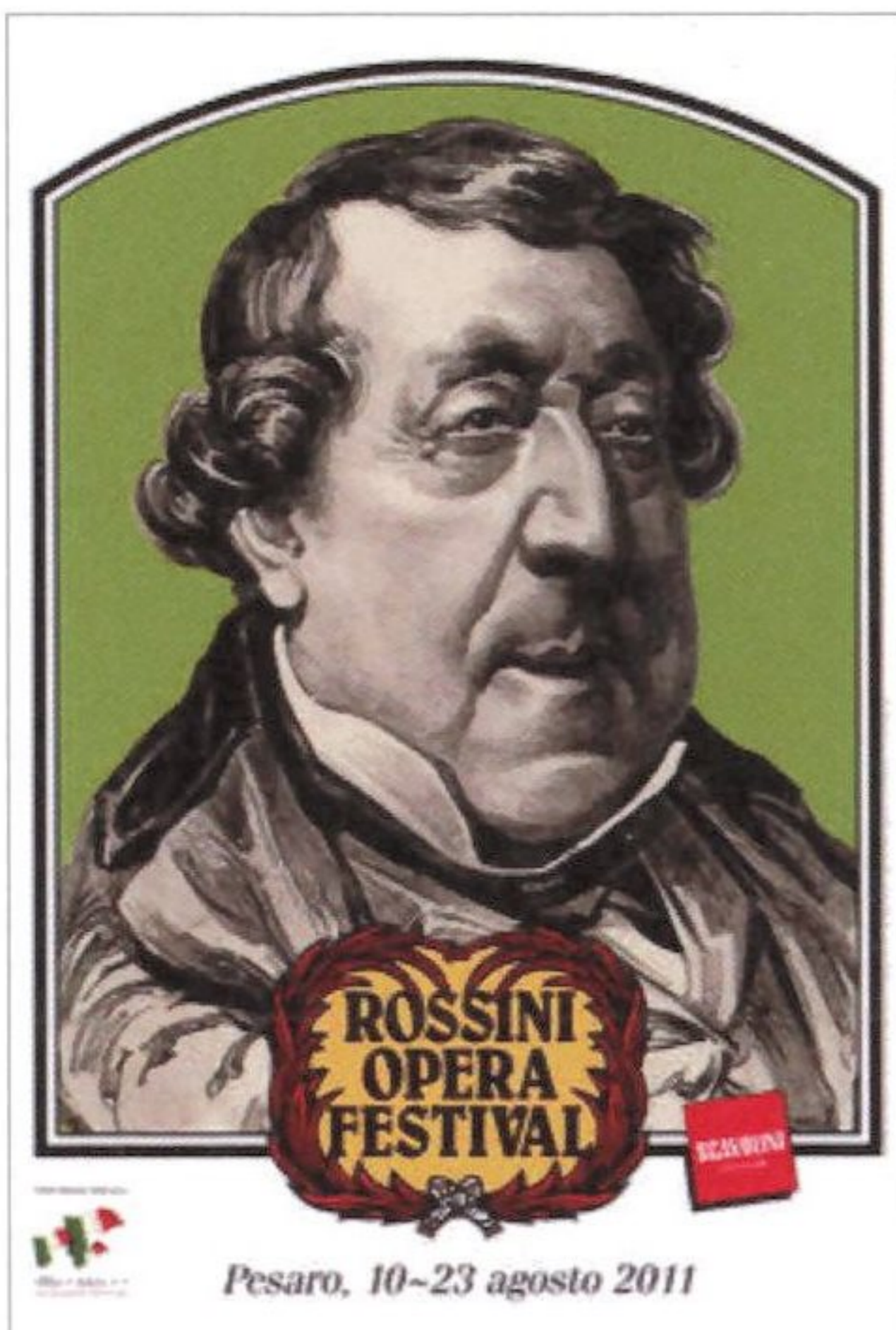


● 셰익스피어의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을 원작으로 한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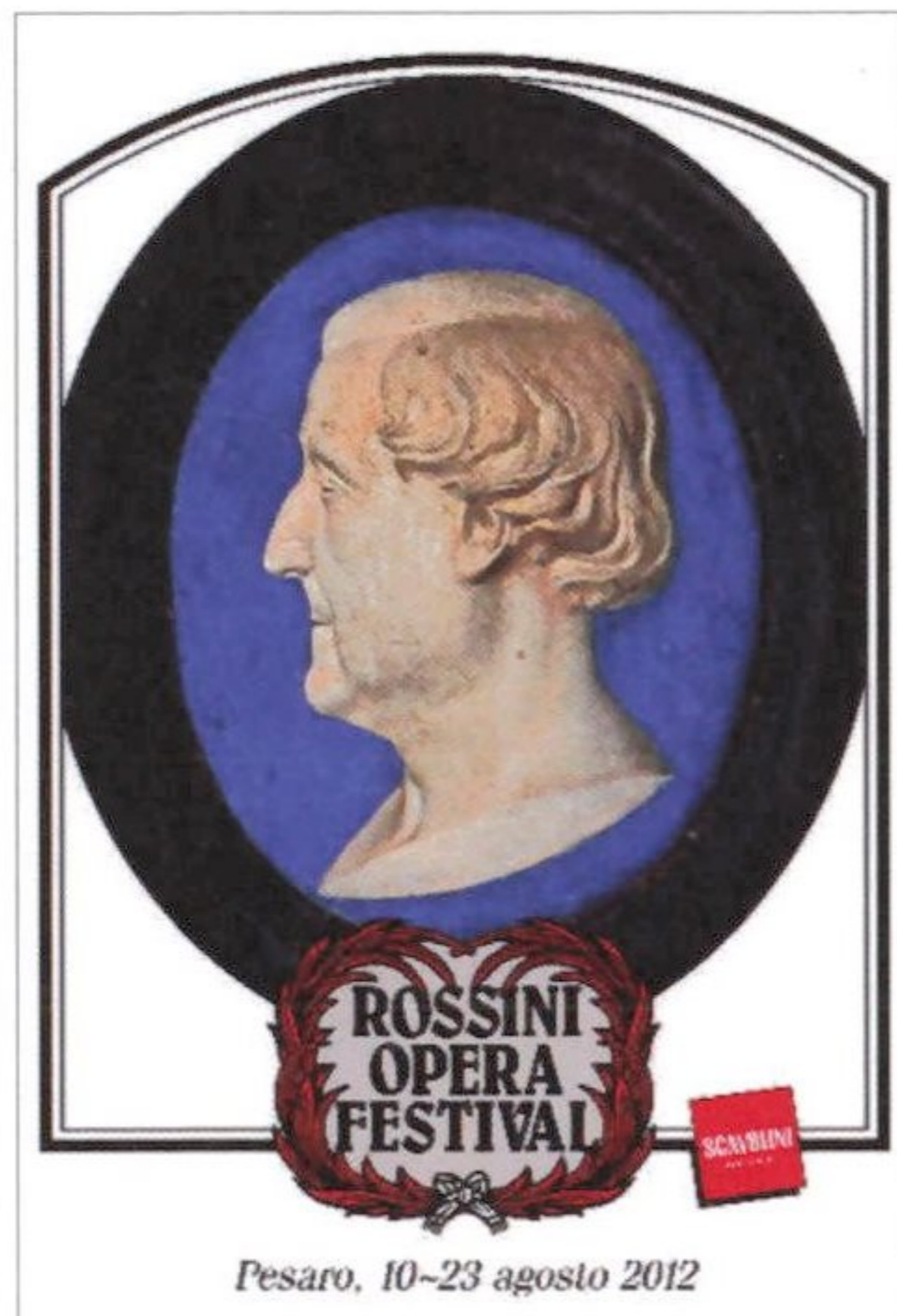


극 음악에 은퇴하고 만년 종교음악으로 회귀

김종천_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 2011년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포스터



• 2012년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포스터

로시니가 갑자기 음악활동을 그만두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추측만 무성할 뿐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게으른 성품이 원인이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대한 파리인들의 적대적 태도와 이에 대한 로시니의 서운함이 원인이라 보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1836년 파리에서 당시 그의 호적수로서 나타난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위그노 교도'가 대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오페라가 파리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대한 로시니의 질투심이 원인이라 보기도 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오페라 작곡은 하지 않겠다는 로시니의 결심에서도 비롯됐다고 하기도 한다.

1829년 '윌리엄 텔'을 완성한 후 극 음악에서 은퇴한 그는 초년에 열정을 쏟았던 종교음악에 심취하게 되고 1841년에는 9년 전에 작곡하기 시작했던 '스타바트 마테르'를 개정 완성하고 그 이듬해에 파리에서, 그리고 이어서 볼로냐에서 발표했다. 스페인의 고위 성직자 바렐라가 로시니에게 의뢰한 작품 '스타바트 마테르'는 처음에는 성당의 촉박한 연주일정 때문에 로시니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다른 작곡가가 뒷부분 일부를 맡아서 작곡했다. 1833년의 공연 이후 로시니는 다른 작곡가가 맡은 부분까지 완전하게 자신의 작곡으로만 채워서 1842년 파리에서 초연을 가졌다. 새로운 초연은 대성공이었으나, 희극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명성 때문에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최고의 정통 교회음악'으로 칭송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페라와 교회음악의 잡종' '세속화된 교회음악' '분위기가 너무 밝은 수난음악'이라며 폄하했던 것이다.

'스타바트 마테르' '작은 장엄미사' 외에 로시니는 이 시기 몇 곡의 노래와 피아노 소품을 작곡했다. 이 작품들은 세련된 감각으로 그의 명성을 굳히는 데 기여했지만, 로시니는 이 곡들의 출판을 거부했다. 이탈리아에서 몇 년을 지낸 뒤 1855년 다시 파리로 돌아온 그는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



● 만년의 로시니



● 로시니 국립음악원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아내에게도 전만큼 매력을 못 느낀 그는 은퇴한 상태에서도 생계를 꾸릴 정도로 충분히 부자였으므로 사교장에서 몇 마디 재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등 인생의 안락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의 재담은 신랄한 위트와 짙은 농담으로 당시 사교계에서도 아주 유명했다. 파리의 개인 저택과 나중에 파리의 별장에서 19세기 중반 당대의 수많은 음악가, 문인들을 초대하여 대규모 만찬을 베풀곤 했다. 1860년대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바그너가 그를 방문하여 나눈 대화는 바그너의 수필 '로시니 회고'에 기록되어 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로 오페라계에서 은퇴한 로시니는 1837년 이사벨라와 이혼하고 1839년에는 모교인 볼로냐 시립 음악원의 명예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1843년에는 병상이 악화하여 파리에서 수술을 받는다. 1845년 이사벨라가 사망하고, 그 이듬해에는 일찍이 알고 지냈던 오랑프 페리셰와 결혼한다. 그 후 피렌체로 이주했으나 1855년 병상이 악화하여 다시 파리로 돌아간다. 당시 파리 근교 파시에 있는 그의 별장에는 그의 명성을 흠모하여 유명한 화가와 문필가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병이 악화되어 1868년 11월 13일 오랑프의 간병 속에 로시니는 그 생애를 마친다. 그때 파리는 그의 76번째 생일을 엄숙하게 축하하려 했었다. 그의 장례식은 웅장하고 엄숙하였으며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무수히 많은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장례식 이후 처음에는 벨리니와 쇼팽 곁에 묻혔으나 10년 후 아내 곁에 묻히게 된다. 1887년 로시니의 유물들은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로 옮겨지고 그가 유언한 몇 가지 유물은 그의 고향인 페사로에 있는 한 국립음악학교의 창설에 기증되었다.

오랫동안 로시니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가끔 연주되는 '굴리엘모 텔'로 기억될 뿐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점점 많은 그의 오페라들이 다시 공연되었고, 특히 음악 축제 등에서 청중과 비평가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 '불멸의 거장, 로시니'는 7회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불멸의 거장, 로시니'를 집필해주신 한국오페라부파협회 김종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호부터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 편이 이어집니다.

평양에서 벌어진 화려한 풍류현장, 연광정연회도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예부터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 속엔 평양감사 자리가 옛날에 꽤 평평거리는 높은 자리임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평양고을은 관서지방의 최고 도회지로서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중국으로 왕래하는 길목이어서 많은 고위 관리들이 머물렀고 이에 수반되어 늘 재물이 넘쳐나던 곳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외직 가운데 최고로 치던 것이 감사하면 평양감사, 부사하면 의주부사, 현감하면 과천현감이라 했다. 앞의 두 고을은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고, 과천은 삼남의 물산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지라 모두 사람과 물산이 무진장 흘러나오는 곳이니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였다.

강조차도 못 물줄기가 모였으니 강이름이 大同이었다. 평양의 대동강, 선화당, 연광정, 부벽루, 을밀대 등의 공간에서 주야로 벌어지는 연회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특히 밤에 대동강에서 벌어지는 관등(觀燈)놀이와 뱃놀이(船遊)는 최고의 볼거리였으니 여러 문사들이 남의 시운을 따서 짓거나(次韻) 또는 즉흥적으로 읊기도(口占) 했다. 조선후기 화원들 중에 일부는 평양성에서 벌어진 연회장면을 더러 그렸으며, 그것이 왕실이나 사대부가에 소비되기도 했다. 김홍도도 평양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사후 19세기에는 그림들이 목판으로 제작-인쇄되어 대량으로 보급되기도 했다. 이것들은 대개 그림이 도식화된 상품으로 유통되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그림으로 알려진 <연광정연회도(練光亭宴會圖)>, 종이담채, 71.2×196.9cm,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이는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와 함께 널리 알려진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의 일부분이다. 이 그림은 평양 대동강변의 연광정에서 벌어진 잔치판을 그린 기념화인데, 그 행사의 내막이나 사연을 설명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평양감사가 새로 부임하자 이를 환영하기 위해 베푼 연회장면을 그린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과거급제자처럼 평양에 들어오는 어떤 귀빈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감사가 백성들과 함께 공식적인 연회를 열어 이를 축하하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귀향하는 자를 그 고을의 수령이 고을 입구까지 나와서 친히 맞이하고, 급제자의 부모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영친의(榮親儀)의 모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다. 이 견해는 개연성은 있지만 수령이 맞이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 새로운 급제자가 환향하면 그 고을의 아전(鄉吏)이 관대(冠帶)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하는 법이었다. 급제자는 향교에 가서 문묘에 참배하고, 다음에 수령청(守令廳)에 나아가서 돈수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집으로 가면, 수령이 그 집까지 따라가고, 급제자의 부모와 함께 객사(客舍)에 돌아와 향교의 생도들로 하여금 경하하게 하고, 이내 영친연(榮親宴)을 베풀었다. <세종실록, 세종 11년 4월 15일(경인)> 이 작품은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연광정에서 벌어지는 연회의 장면과 그 옆에 있는 읍호루(挹灑樓)와 대동문(大同門)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행렬을 정리하는 군졸의 모습을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 식으로 담아 내었다. 행사가 벌어지는 공간 전체를 위에서 조감하듯이 구도를 설정하여 각 장면을 상세하고 리얼하게 묘사한 게 특징이다. 전체 화면의 좌우 끝으로 매우 잘 정돈된 가옥들이 바둑판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아마 이 일대의 양반과 중서층 가옥이라 생각된다. 멀리 강 건너편에는 한적한 산과 들이 펼쳐져 있다. 이제 생생한 연희장면을 가까이 들여다 보자.

먼저 연광정 안에서 산수화 병풍을 뒤로 한 채 청색 도포에다가 고급 영락갓끈을 두르고 붉은 허리띠를 두른 평양감사가 춤추는 두 기녀와 사자놀음을 감상하고 있다. 무희는 청색과 홍색의 조화를 이루는 치마를 입고 춤에 열중이다. 감사 앞쪽에는 삼현육각의 악공이 연주에 몰입했는데, 북·장고·피리·대금·해금·박 등이 동원되고 있다. 옆에는 초청받은 양반들이 함께 구경하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십여명의 기녀가 대기상태로 무릎꿇고 앉아있다. 감사어른 옆에는 시중드는 다모여인이 둘 서있고, 옆에 회색·청색 두루마기를 입은 세 명의 하급 관속인 듯한 사람이 읊(揖)하는 자세로 서있다. 병풍 뒤로는 동자들이 여럿이 즐거운 표정으로 종알거리고 있다.

연광정 앞마당에는 감사를 위한 연희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평양 일원에 사는 많은 구경꾼들이 줄지어 모여있다.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 아전 둘이서 채찍을 휘두르자 구경꾼 두 명이 물러서는 모습이 사실적이다. 연희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는 병거지를 쓴 군졸 한 명이 지키고 섰고 아전들도 여럿이 지키고 서있다. 마침 음식을 나르느다 다모가 부지런히 움직인다. 구경꾼들 뒷쪽에는 커다란 방형 연못이 있고 그 둘레로 사람들이 모여 서 있다. 연광정 입구 앞에는 객주가로 보이는 가옥과 술집 및 여러 가게가 있고, 옆으로는 대장간, 오른쪽으로는 담배를 썰어파는 연초전 등이 보인다. 대동문 앞 큰 거리에는 두루마기에 갓을 쓴 사람들이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물지게꾼과 물동이인 아낙, 소짐물이꾼, 행상 등이 왕래하고 있다. 연광정 정문 안팎으로 군졸들이 줄지어 경비하고 있는데, 이 때 대로 앞의 군졸 한 명이 장대를

쥐고 소를 밀치자 소가 짐짓 놀라는 모습이다. 감사를 위한 연희에 동원된 기녀와 악공 및 군교와 군졸, 수많은 민인들, 그리고 여러 점포와 오고가는 사람들이 붐비는 대동문 앞의 거리는 모두 평양 도회의 변화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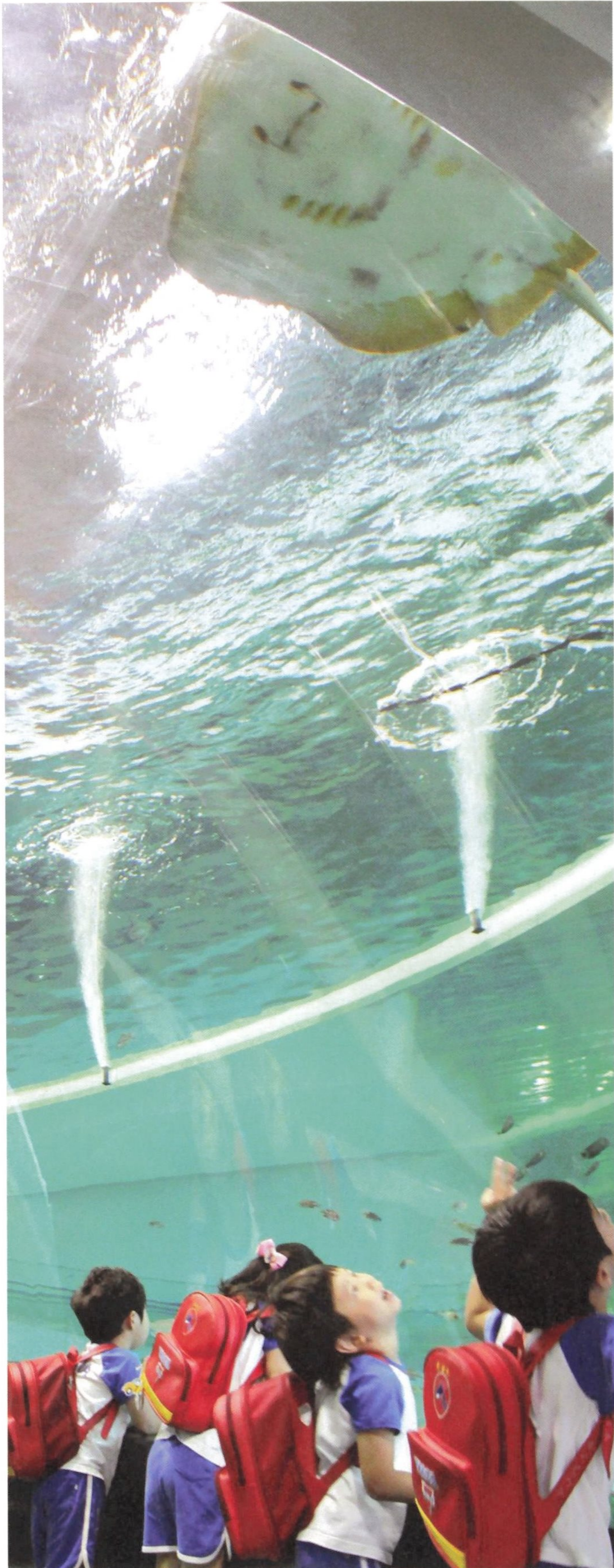
조선 말기에 판소리 명창으로 유명한 진위 출신의 모흥갑(牟興甲)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적벽가>는 당대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 모흥갑은 동편제의 시조로서 남원의 소리꾼이었던 송흥록(宋興祿)과 함께 19세기 중엽 최고의 광대였다. 특히 그는 '고동상성'이라 하여 높은 소리를 오래 잘 질러내어 후세사람들이 '설상(雪上)에 진저리치듯'이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의 더듬으로 전해지고 있는 <춘향가>의 '이별가' 중 '날 데려 가오'라는 대목은 그의 특징적인 고동상성을 잘 보여준다. 고종으로부터 동지(同知)의 벼슬을 받은 그가 평양감사 부임축하의 세레모니를 위해 초청을 받아 평양에 나타났다. 연희석에서 인파를 가득 채운 채 연광정에서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10리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더듬이 고루 담겨 있고 사설이 잘 다듬어져 있기로 일품이었다. 가슴을 후벼파는 애절한 그의 소리가 마치 들리는 듯하다. 외정(外庭) 예술의 실재를 보여주는 그 때의 장면을 그린 모흥갑 판소리도(圖)가 전해지고 있다. 오늘 독자여러분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연광정연희에 초청받은 관객이 되어 김홍도의 흥미있는 그림을 만나고 모흥갑의 연창도 들어보시기 바란다.

※ 바로잡습니다

<그림, 풍류를 만나다> 8월호에서 중국 서진(西晉)의 시인 좌사(左思)의 영사시(詠史詩) 8수 중 5수 끝구절로 소개되었던 '巫茂樹而終日 濯清泉而自潔'은 김홍도의 <관산탁족(觀山濯足)> 제화시이며, 시인 좌사의 영사시는 '被褐出閭閻 高步追許由 (갈옷 입고 여역을 나서서 높은 걸음으로 허유를 뒤쫓아), 振衣千仞岡 濯足萬里流 (천길 언덕에서 옷을 떨치고 만리 강물에서 발을 씻는다)'입니다.

● 연광정-연희도





나의 하라 우리의 미래

국내 최대의 해양문화공간 국립해양박물관

국내 첫 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이 지난달 9일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내에 문을 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 규모로 건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내외 해양유물 1만여점을 갖추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은 지난 8월 14일, 박물관에 도착하자 독특한 건물외관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다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역삼각형 모양의 아름다운 외관은 해양도시 부산을 알리는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부터 단체관람 온 유치원생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까지 박물관 입구부터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해양 문화에서부터 역사, 생물, 항해선박, 산업 등 해양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8곳의 주제별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해양도서관, 대강당, 수족관, 4D영상관을 갖추고 있다.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생물, 해양체험, 해양산업, 해양영토, 해양과학 등 8개의 주제로 꾸며진 상설전시관은 3층과 4층에 모여있다. 상설전시관에는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조선후기 지도첩인 '함경도해안실경지도첩'



‘죽도제찰’과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해도첩’ 등 희귀유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독도문제로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한 역사적 자료인 ‘죽도제찰’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죽도제찰’은 1837년 일본 니가타 해안에 세워져 있던 일본 정부의 경고판으로, ‘죽도(독도)는 조선 땅이므로 항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646년 영국의 지도제작자인 로버트 더들리가 만든 세계 최초의 해도첩은 전 세계적으로도 10여 세트밖에 없는, 아시아 유일의 소장본으로, 우리나라를 ‘코라이 왕국(Regno di Corai)’, 동해를 ‘한국해(Mare di Corai)’로 표기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대여한 ‘조선통신사선 행렬도’, 정약전이 저술한 최초의 어류학서인 ‘자산어보’, 1797년 영국 아담스가문이 만든 항해용 지구의와 천구의 세트 등도 시선을 끈다.

3층 항해선박 전시관에 자리한 ‘조선통신사선’ 역시 박물관이 자랑하는 전시물이다. 1607년부터 200여년 동안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는데 사용됐던 조선통신사선을 철저한 고증에 의해 전통 조선기법으로 복원시킨 ‘조선통신사선’은 국내 최대 크기로 복원되어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한다. 더불어 4층에는 덴마크 바이킹 박물관에서 들여온 바이킹선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7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은 2층에 자리하고 있다. 바다

를 형상화한 놀이기구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양을 주제로 한 마술공연과 ‘나만의 등대 그리기’ 등 무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오르면 직경 10m, 수심 4.8m의 원통형 유리터널 수족관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연근해에 사는 상어와 가오리 등 300여마리의 다양한 물고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은 언제나 관람객들로 북적이다. 입체영상을 통해 실감나는 해양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4D영상관 역시 어린이들에게는 인기 1순위이다.

이밖에 국립해양박물관에는 최고의 바다전망을 자랑하는 해양도서관과 307석 규모의 대강당, 전망휴게실,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박물관 1층에 자리한 해양도서관은 해양도서 2만 5천여권과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회도서관 등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필요한 자료를 원격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해양도서관 맞은편에 자리한 대강당에서는 매주 주말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국가대표 마술사들이 펼치는 ‘월드 베스트 매직 콘서트’을 비롯해 사운드와 마술, 마임이 어우러진 ‘사운드 오브 매직아트’,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Recbubble Show’, 마술과 뮤지컬이 어우러진 어린이 뮤지컬 ‘해룡과 미로의 시간탐험대’ 등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박물관을 모두 둘러봤다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보자.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오륙도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대형 컨테이너선 등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부산항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다.

주말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보고 거북선을 직접 만들어보는 ‘충무공 이순신, 달려라 거북선!’, 독도의 역사, 지리, 자연환경 등을 알아보고 독도모형을 제작해보는 ‘지키자 우리땅 독도!’, 화석의 생성원리를 알아보고 화석을 만들어보는 ‘화석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전문도예강사의 지도로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바다’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 오전 9:00 오후 6:00 ※매주 월요일 휴관
(토요일은 오후 9:00, 일요일은 오후 7:00까지)

관람료 무료(단, 유료특별전시, 공연, 4D영상관 제외)

문의 국립해양박물관(309-1900, www.nmm.go.kr)

‘합창은 즐거움 그 자체’
시니어들의 유쾌한 도전
부산아모르합창단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연산동에 위치한 대한웰니스병원 7층에서는 즐거운 합창소리가 울려 퍼진다. 폭염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심인 이들은 부산아모르합창단 단원들. 요즘은 9월 7일~8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거제전국합창대회를 앞두고 더위속에서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다. 지난해 인기를 모은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보다 앞서 결성된 부산아모르합창단은 합창의 매력에 푹 빠진 시니어들이 유쾌한 만남의 장을 펼치고 있다.





● 노래를 좋아하는 시니어들로 구성된 부산아모르합창단. 지난(至難)한 세월을 이겨낸 경륜과 지혜를 모아 '합창'에 도전장을 낸 이들은 노래하는 재미에 푹 빠져산다.

부산아모르합창단은 2011년 7월, 공연감상 동호회인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니어 회원 14명으로 출발했다. 당시 늦은 나이에 과감하게 대학원 지휘과정에 도전했던 박정희 씨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동호회 내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합창단' 창단이라는 유쾌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부산아모르합창단 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67세. 지난(至難)한 세월을 이겨낸 경륜과 지혜를 모아 '합창'에 도전장을 낸 이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으로 짧은 시간 부산아모르합창단을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시켰다.

“은퇴 후 특별한 즐거움없이 보내고 있었던 터라 합창을 시작하면서 모든 단원들이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아모르합창단 단원은 여성단원 29명, 남성단원 16명. 단원들은 중소기업인에서부터 금융인, 언론인, 대학교수, 교장, 교감, 교사출신의 교육자, 지승공예가, 사진작가, 수필가, 농업인, 주부 등 다양한 직종과 경력, 재능으로 뭉쳐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박정희 지휘자는 합창단 단원들의 노래지도에서부터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 유명 작곡가, 독일가곡 리트에 대한 이해, '누구나 파바로티 따라잡기' 등 기본 교육계획을 수립해 아모르합창단의 화음을 빛어낸다. 부산아모르합창단이 있기까지 황광주 단원의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창단 멤버로 현재 단무장을 맡고 있는 황광주 단원은 합창단의 스케줄 운영, 관리 등을 맡아하고 있다. 그는 주 1회 연습 외에도 걷기 대회, 단체공연 관람 등의 이벤트를 기획해 단원들의 결속을 다져왔다. 연습실은 황광주 단원의 제자인 대한웰리스병원장이 부모같은 아모르합창단원들의 열정에 반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합창단에는 2쌍의 부부단원도 있다. 지승공예가 김금자 씨는 즐거운 합창단 활동을 혼자만 할 수 없어 남편 이해원 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지금은 부부가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단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다른 부부 단원 김외숙, 박정식 씨도 합창단 활동을 함께 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아모르합창단에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재주꾼들이 특히 많다. 정

현모(77세) 단장이 카페지기를 맡아 운영하고, 사진작가인 정한수 단원은 연습 후 사진과 동영상을 카페에 올려 단원들의 합창 연습에 특별한 도움을 준다. 클래식 마니아인 황선영 단원은 폭 넓은 음악적 경험을 위해 카페에 음악감상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단원들은 연습이 있는 날은 자체적으로 당번을 정해 연습실 정리와 연습준비를 맡아한다. 아모르와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최고령 권용주 단원은 하단에서 연산동까지 오가며 모범을 보이고 있어 단원들을 놀라게 한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합창단 창단 후 열의에 넘쳐 한 달 만에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연습하는 동안 절제와 배려를 배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후 큰 자극을 받은 아모르합창단은 창단 10개월 만에 휘센 합창페스티벌에 도전, 영남지역 본선 우수상을 수상하고 서울 본선무대를 밟았다. 결과는 대성공, 휘센합창페스티벌 전국결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가족,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아모르합창단 활동은 노래하는 우리도 물론이지만 자녀들이 더 좋아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녀들이 우리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거제전국합창대회 후 아모르합창단은 10월에 열리는 부산합창제와 11월에 열리는 전국실버합창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고있다. 합창제 참가 외 11월 19일에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아모르 합창제를 가질 계획이다.

“합창은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아모르 활동을 하면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샘 솟는 것 같습니다. 한 곡 한 곡 새로운 레퍼토리가 완성될 때 그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시니어들. 노래하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아모르합창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2012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유럽, 그 찬란한 유산

9월 11일(화)~15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국제마루음악제 2012년 무대가 '유럽, 그 찬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9월 11일 그 화려한막을 연다. 부산마루 국제음악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부산 최초의 클래식 음악축제로, 지난 2010년(1회)과 2011년(2회) 공연은 문예진흥 기금예술평가원이 주관한 전국 국제음악제 중 우수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부산국제마루음악제 2012년 주제는 '유럽, 그 찬란한 유산'.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들이 남긴, 찬란한 유산인 그 음악을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날수 있는 음악축제이다.

올해 개막연주는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피아니스트 출신의 프랑스 지휘자 장-베르나르 포미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장식한다. '노르딕 멜로디(Nordic Melody)'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북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을 정교한 테크닉으로 사랑 받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야블론스키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대중적인 인기와 비평가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고있는 스웨덴 출신의 피아니스트 피터 야블론스키는 18세 때 데카의 전속 아티스트로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지휘로 거쉬인의 피아노협주곡을 녹음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섰다.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야블론스키는 그동안 많은 음반을 함께 작업했던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BBC 심포니, 필하모니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샤를 뒤투아 지휘의 필라델피아 심포니, 게르기예프 지휘의 키로프 오케스트

라, 정명훈 지휘의 파리 국립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야블론스키는 스웨덴에서 매년 열리는 칼스크로나 챔버 뮤직 페스티벌과 알타라 레코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피아니스트로서의 탁월한 성과를 스웨덴 국왕에게 인정받아 공로훈장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축제 둘째날인 9월 12일에는 국내 최고의 실내악단 '조이 오브 스트링스'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고문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만나는 '조이 오브 시즌(Joy of Seasons)' 무대가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1997년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교수의 깊이있는 음악적 경험과 열정으로 창단된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그동안 관객과 소통하는 클래식 음악을 컨셉으로 다양한 기획연주회를 통해 폭넓게 대중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탁월한 예술성과 투철한 음악가정신, 대가적 기교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는 강동석과 함께 시와 음악이 만나는 색다른 '사계'를 들려준다.

9월 13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탄생과 서거'라는 주제로 올해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작곡가 드뷔시의 '하프와 현을 위한 춤곡'과 루빈스타인의 죽음을 애도해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을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독일 본 국제 베토벤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베토벤의 환생'이라는 호평으로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비루투오조 앙상블 오케스트라 악장이자 동의대학교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연, 전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과 더불어 연세대학교 교수로 휴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첼리스트 조영창

● 강동석

● 조영창





●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 조이 오브 스트링

과 함께 화려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자이자 명성있는 교육자로 이름높은 하피스트 이자벨 모레티, '클라리넷 연주자 이상의 명인'이라 불리어지는 클라리네티스트 찰스 나이드이 출연한다.

같은날인 13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테너 곽성섭, 바리톤 강경원, 소프라노 김유진,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칼 오르프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전곡을 들려준다.

9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체코와 영국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와 하피스트 이자벨 모레티, 첼리스트 조영창이 관객과 만난다. 지휘자가 없는 특별한 구성의 실내악 그룹인 프라

하 챔버오케스트라는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 수석들로 창단, 1952년 프라하 봄축제 연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는 첼리스트 조영창과 함께 드보르작의 체코모음곡과 독일 출신 브루흐가 영국에서 작곡한 유대교 성가 '신의 날'을 뜻하는 '콜 니드라이'를, 하피스트 이자벨 모레티와는 드보르작의 '두 개의 왈츠', 패리쉬 알바스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축제의 마지막날인 9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음악의 트로이카'라는 주제로 고전악과 음악의 거장 바흐와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날에 이어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가 클라리네티스트 찰스 나이드이와 함께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4번으로 고전시대의 감동을 재현한다.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프린지콘서트는 메인콘서트에 앞서 9월 1일과 2일, 8일과 9일 나흘간 부산시내 야외공연장과 지하철 역사, 만남의 광장 등에서 펼쳐져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축제의 장을 알리게 된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프로, 아마추어 단체들의 연주로 꾸며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서울, 경기지역과 경남, 경북지역의 연주팀들까지 확대해 지역과 장소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사한다.

● 이자벨 모레티

● 찰스 나이드이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개막연주회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2 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

Garden of Learning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12 부산비엔날레가 9월 22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두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2012 비엔날레의 주제는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 현대미술의 새롭고 실질적인 교육 형태를 도입하여 작품 및 작가와 관람객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실현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꾸며진다.

특히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전시주제를 살리기 위해 전시에 앞서 참여와 소통을 할 부산 시민 330여명을 '배움위원회'로 모집, 운영하고 있다. 10여개의 소모임으로 운영되는 배움위원회 구성원들은 작가와 협업하거나 공간 디스플레이에 대한 논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등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2012 부산비엔날레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 외에도 특별전과 갤러리페스티벌, 시민들과의 공감을 위한 어번 스퀘어 등이 펼쳐진다. 로저 M. 뷔르겔 전시감독이 기획한 본 전시는 국내 작가 12명을 포함해 19개국 41명의 작가 작품 200여점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전시 외에도 강연과 관람객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시 정보와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디지털 투어, 장애인, 근로자, 학생 등을 초청해 전시회 관람 후 대화를 나누는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청년비엔날레의 정신을 되살리고 2012 부산비엔날레 전시주제 및 방향과 부합하는 특별전은 미래의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고 갈 젊은 기획자와 작가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아웃사이드 오브 더 가든(Outside of the Garden)'이란 주제로 9명의 신진 큐레이터가 공동기획해 광모, 김영섭 등 한국 작가 50명을 포함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등 모두 65명(팀)의 작품 130여점이 소개된다.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펼쳐지는 '갤러리페스티벌'은 부산지역 19개 갤러리가 참가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엔날레 얼반 스퀘어'에서는 패널디스커션, 아티스트 온 토크, 아시아비엔날레 포럼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일시 9월 22일-11월 24일(64일간)

장소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진역사
광안리 마일드 등

문의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조영석 필하모니 대표



‘한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송이 풀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노래했다. 나는 한가닥 아름다운 선율에서 세상의 희로애락을 이해하며, 때로는 우주의 운기를 느끼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현재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거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작게는 수백 광년에서, 많게는 수백억 광년이나 떨어진 별을 이제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가슴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며 산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에게 맑은 눈과 아름다운 가슴을 지니고 살 수 있게 도와주며 깨닫게 해 준다.

가을이 시작되고 곡식과 열매가 영그는 달, 천상의 음악으로 통하는 비발디의 음악세계로 9월의 문을 여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8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가 비발디는 수도사(신부)였지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사제로서의 의무가 면제되고 대신 자신이 봉직하고 있던 피에타 수도원 부속 기숙 학교에서 고아 여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비발디는 자신이 가르치던 기숙학교 여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악기를 위한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는데 협주곡만 450곡이 넘는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한 여행자의 기록에 의하면 “비발디가 지휘하는 기숙학교 학생들의 연주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노래소리 같았다”고 할 만큼 아름다웠다고 전해진다.

비발디는 각종 독주악기를 위한 수많은 협주곡과 기악곡, 종교음악 등을 작곡했는데, 음악의 아버지라 일컫는 바흐의 음악에서도 비발디의 선율이 곳곳에 숨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발디의 음악 중에는 협주곡집 작품번호 8(화성과 창의에의 시도) 중 1번에서 4번까지인 ‘사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협주곡집 3(화성과 조화의 영감)을 비롯해서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집, 루트, 리코드, 오르간, 하프시코드, 바순 등 다양한 독주악기를 위한 협주곡집 등이 계절에 듣기 좋은 다양한 곡들이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9월의 음악으로 바순협주곡을 좋아하는데 특히 6번 마단조 작품 137과 2번 가단조 작품 70 등을 즐겨 듣는다. 바순협주곡은 여러 연주자의 음반이 출판되어 있지만 클라우스 튜네만의 바순과 이무지치합주단이 협연한 것을 좋아하는데 1985년에 녹음한 CD보다는 1976년에 협연한 LP음반에 더 정이 가는 것 같다.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1976년에 녹음한 클라우스 튜네만과 이무지치의 연주에서 필자는 가을의 향기를 더 느끼게 되는가 보다.

VIVALDI
Concertos for bassoon
and strings

클래식의 첫 경험

신설령_음악평론가

● 여름 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공연 날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님들도 보였지만 저 많은 아이들로 인해 음악회 분위기는 어떨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금난새 지휘자가 등장하고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대극장은 재미있는 강의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 클래식은 내친구



엄숙하기만 할 것 같은 음악회에서 지휘자가 농담을 한다. 그것도 부산 억양으로. 청중은 웃으며 금방 그를 향해 마음을 연다. 한 두 시간 꿈쩍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휘자의 음악해설에 귀를 기울인다. 해설 또한 지겹지 않다. 연주할 곡의 주요 부분들을 독주 악기로, 관현악 합주로 들려주며 재미있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니 귀에 쏙쏙 들어오나 보다. 약간의 선행학습은 금방 효과를 드러내어 주페의 <경기병 서곡>을 주의 깊게 듣는다. 기악음악에 스토리텔링을 더하니 음악 감상에 상상력이 날개를 펴고 집중력은 높아진다.

두 번째 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 마림바와 함께 연주한다. 마림바를 연주한 황세미의 연주가 뛰어나다. 음악성과 함께 섬세함과 열정을 갖춘 황세미는 서두르지 않고 깊은 서정성을 노래한다. 흔히 볼 수 없는 마림바 연주에 청중은 몰입한다. 연주가 끝나고 청중 대신 지휘자가 마림바 연주자에게서 앙코르를 이끌어내고, 계속 박수를 쳐주어 청중의 커튼콜도 이끌어 낸다. 박수의 역할과 힘을 아이들은 또 배운다.

다음 연주는 서울예고에 재학 중인 조정태와 함께 하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기타 협주곡>이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침착하고 깊이 있는 음악성이 돋보인다. 지휘자는 어린 학생의 연주를 격려하고, 청중의 박수로 격려를 함께 하기를 권한다. 평소 TV를 통해 보던 드럼 연주도, 기타 연주도 멋있었겠지만 마림바 연주, 클래식 기타 연주를 보며

음악에 다양한 세계가 있음도 보게 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곡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연주를 대하니 연주시간 12분이 지겹지는 않은가 보다. 공연장을 둘러보니 제법 진지하게 듣는 모습들이 보인다. 아이들을 음악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지휘자 금난새에게 있었다. 특별한 능력이다.

필자는 이번 여름 다양한 공연을 보았다. 예술의 전당에서 서희가 출연하는 <지젤>에 감동을 받고 올 가을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를 발레작품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의 전당에서 손열음, 조재혁을 비롯한 피아니스트들의 앙상블 <그리움> 콰르텟 연주를 보고 그들의 다음 연주회를 벌써부터 기다린다. 1년 전이었는데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TIMF 연주를 보고 좋았던 기억에 다음 주에 있을 그들의 연주 티켓을 예매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한번 경험한 미적 감동이 다음 무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술작품을 대하고 첫눈에 감동을 받기는 어렵다. 예술을 이해하고 감동하기에는 예술에 대한 지식 획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수학 공부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을 제대로 배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 향유는 부모로부터 영향 받는 경우가 크다. 이른바 문화자본의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회장을 찾은 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음악회장을 찾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한 부모들에게 감동이 넘치는 최고의 클래식음악의 첫 경험을 갖게 해 주기를 소망한다.

말하는 다큐멘터리

김희진_영화감독

● 오래전 단관극장만이 있던 시절, 영화관에 가면 본영화 상영 전에 보여줬던 별개의 영화가 있었다. 소위 문화영화라고 불렸던 이 단편영화는 국민을 계몽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작하게 했던 다큐멘터리 형식을 주로 한 영화였다. 국민보건에서부터 불조심, 저축 장려, 새마을운동 등 국가시책을 주로 알리고 계도하는 기능을 했는데 관객들은 으레 본영화 전 상영되는 이 문화 영화를 별 관심 없이 지켜보기 일쑤였다.

그러나 의무 제작, 상영되었던 문화영화는 동일한 작품이 모든 극장에 일정 기간 상영되었기에 오늘날 관객동원 수치 기록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관람한 흥행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의무라는 전제로 이루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과거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의 대중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을 제외한다면 문화영화 이후에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가 극장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다. 의무적 강제가 아니라면 관객들은 문화영화의 비오락성을 떠올리는 소위 오늘날 독립영화라 불리는 장르의 영화들을 관람하길 꺼렸던 것이다. 최근 극장가에는 입소문을 타고 관객동원에 성공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들이 있다. 주로 우리사회의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화영화와는 차이를 가지는 요즘의 다큐멘터리들은 시민 중심의 사회 참여적 관심에서 만들어지고 소통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참된 문화(?)영화의 개화가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은 용산참사의 객관적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권력의 문제를 관객이 인지하고, 사회구조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 선동적이었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과 차별 요소를 가지며 극장을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말하는 건축가>는 건축이라는 문화가 우리 삶과 괴리되어 있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화두를 되새김질하게 하며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문화를 재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4대강사업을 조명한 <강,원래>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다룬 <강정> 등 프로젝트 형태로 여러 독립영화 감독들이 현안에 대한 시각을 모아 전달하는 움직임들은 다큐멘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문화영화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관객들도 좀 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을 걸어오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 영화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카메라라는 매체와 편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화면에 보이는 대상의 순수한 상태를 보여주려는 진심어린 태도만 영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국민을 입맛대로 이끌기 위해 마치 진실인양 국가사업과 정책을 주입시키려 했던 문화영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진심을 말하는 다큐멘터리들은 관객 개인을 움직이게 하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게 되는데 힘을 제공한다. 농촌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위낭소리>, <강,원래>), 타인에 대한 봉사과 좋은 어른의 삶을 일깨우고(<울지마 톤즈>, <바보야>, <성철 스님의 의자>), 이데올로기에 갇힌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송환>, <경계도시2>), 현대사의 상처를 보듬고(<오월애>, <어머니>, <강정>, <두개의 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말하는 건축가>) 등 진심이 통하는 이 시대의 다큐멘터리들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이제 좀 더 많은 대답과 질문으로 우리시대의 문화영화들에게 화답할 시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예술이 함께 했던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



1. 직지사 경내.
2. 반곡포도마을에서 열린 포도따기 체험.
3. 정기회원가족이 함께한 탐돌이.



폭염을 식혀주는 한차례 소나기처럼 지리한 일상 속 행복과 감동을 전하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77번째 테마여행이 지난 8월 10일 펼쳐졌다. 8월 테마여행은 우리의 전통 사찰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 김천의 고찰 직지사를 중심으로 직지문화공원 내에 조성된 세계도자기박물관 탐방과 김천의 특산물 포도따기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는 한국관광공사 추천상품, 경상북도 우수 야간관광 상품으로 선정된 김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이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은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와의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가족들이 많아 평소보다 두배가 많은 87명의 회원가족들이 동참했다. 게다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황두호, 김소현, 최요셉, 박재현 씨가 이번 여행에 함께하면서 산사음악회에 대한 기대로 회원가족들은 출발 전부터 여행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나이트 투어'이니 만큼 출발시간도 다른 때와 달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 연일 계속되던 폭염의 기세를 한풀 꺾기라도 하듯 잔뜩 찌푸린 날씨마저도 여행의 즐거움을 돋우는 듯 했다.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특구지역인 김천 반곡포도마을. 뛰어난 재배기술력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재배가 어려운 무농약 캠벨에서부터 씨없는 거봉, 향이 진한 청포도, 눈으로 보기에다 매혹적인 홍포도까지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포도의 주산지이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김천문화원의 송기동 사무국장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보기에다 먹음직스런 홍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회원들을 반긴다.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포도수확에 나선 회원들은 굵직굵직한 포도송이와 달콤한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포도수확 체험을 마치고 서둘러 달려간 곳은 황악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직지사. 신라 눌지왕 2년인 418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직지사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창건주인 아도화상이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 산 아래에도 절을 지을 길상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이름부쳐졌다는 설, 그리고 고려의 능여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축지하였기에 부쳐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져온다.

산문을 지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올라가자 직지사 경내가 보인다. 직지사는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출가하여 득도한 절로 유명한데 현재 경내에는 대웅전(1735년 중건)을 비롯해 천불이 모셔져 있는 비로전(1661년 창건), 약사전,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사명각(泗溟閣) 등이 남아 있다. 중요 문화재로는 국보인 금동6각사리함과 보물인 석조약사불좌상, 대웅전앞 3층석탑 2기, 비로전앞 3층석탑, 대웅전 삼존불탱화 3폭, 청풍료앞 삼층석탑 등이 있다.



직지사에 도착한 회원가족들은 저녁 공양시간에 맞추어 식당으로 향했다. 각종 산채를 소박하게 담아낸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은 후 직접 공양그릇을 씻어 뒷정리까지 맡끔하게 마친 회원들은 다음일정인 꼬마연등을 만들기 위해 만세루로 자리를 옮겼다. 미리 준비해둔 색색깔 아름다운 색지를 붙여 연꽃모양의 연등을 만든 회원들은 스님을 따라 비로전 앞 삼층석탑을 돌며 탑돌이 시간도 가졌다. 엄마 뒤를 따라 탑돌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진지함이 묻어난다. 탑돌이 후에는 본격적으로 직지사 탐방에 나섰다.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에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다.

이어지는 시간은 회원들이 기다리던 산사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황두호(대금), 김소현(해금), 최요셉(피리), 박재현(타악) 씨가 빛어내는 국악양상블이 점차 어스럼해지는 직지사 경내를 고요히 흐른다.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고즈넉한 풍경에 직지사 밤이 깊어간다.

다음 일정은 직지사 입구에 조성된 직지문화공원 탐방.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성된 김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중앙의 음악조형분수를 중심으로 광장, 대형폭포,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내외 17개국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50점, 20개의 시비(詩碑),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김천 출신의 시조시인인 백수(白水) 정완영 선생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수문학관과 재일교포 2세인 복전영자(福田英子)가 기증한 유럽과 일본, 중국의 도자기 1,019점이 전시되고 있는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이 공원내에 자리하고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주최측이 준비한 보물찾기 놀이에 나섰다. 보물쪽지를 찾은 회원들은 고구마, 오이, 양파 등 김천의 농산물을 부상으로 받았다. 보물찾기 후에는 김천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과 포도즙을 넣어 찐 송편을 시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직지 나이트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화려한 조명속에 펼쳐지는 '춤추는 음악분수'.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급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되어 아쉬움을 더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예술이 함께 했던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 다양했던 볼거리, 체험만큼이나 정기회원 가족들의 여름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4. 만세루에서 진행된 꼬마 연등만들기. 연등에 소원을 적어 탑돌이를 했다.
5. 유럽과 일본, 중국의 도자기 1,019점을 전시하고 있는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6. 만세루에서 올려퍼진 부산시립국악단의 산사음악회.

10월에는 **의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 감 9월 15일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9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신규가입자
김남희(금정구 장전2동)	김광렬(부산진구 양정1동)
김미영(서구 토성동)	김민선(남구 용호1동)
김보령(중구 보수동3가)	김양균(해운대구 우동)
김정화(서구 초장동)	김진표(사상구 학장동)
나춘선(사하구 하단1동)	손서영(연제구 거제3동)
류부재(중구 대청로)	안진수(남구 대연3동)
배은희(사하구 당리동)	이인호(부산진구 초읍동)
이황경(해운대구 우2동)	이정민(부산진구 범천동)
최지현(양산시 물금읍)	지원정(사하구 당리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홍정국(사하구 하단동)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40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48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58	NEW MUSIC
59	NEW BOOK
60	SPECIAL MOVI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2012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8월 31일-9월 2일 **중극장**, 대·중전시실
 입장료 | 대·중전시실 1만원, 중·소극장 무료
 문 의 |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2012년 행사.

올해는 '생활 속의 차 문화'를 주제로 '동양유물전', '대만차' '일본차(만복사, 대

덕사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차살꾸미기', 선고차인에 대한 조명, 채원화의 효당 최범술 선생의 생활 차살림에 대한 강연, 박근형 전남대 교수의 '차의 성분 그리고 차의 종류와 효능', '차시백일장, 차시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BN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1일 토요일 오후 3:30,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문 의 | KNN(1577-7600)



오충근

클라라 주미 강

유려한 음악적 카리스마로 각광받고 있는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얼짱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클라라 주미 강은 2010년 9월,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로 불리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일본 센다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009년 제5회 서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우승해 저력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 파가니니/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 6
- 스트라우스/교향시 돈주앙 작품 20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제5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협주곡의 밤

9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음악협회(634-1295)

피아노 음악의 화려함과 기교를 만날 수 있는 부산음악협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올해는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의 협연으로 만나는 신예연주자들의 '협주곡의 밤'과 부산의 피아니스트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주하는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이 열린다.

U.K.O는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이래 부산, 경남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0번 라단조 작품 466
- 쇼팽/피아노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 11
-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 73 '황제'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협연/이주연, 김선영, 한정민, 정소영

신라윈드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9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신라윈드오케스트라(010-4090-3982)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관, 타악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동하고 있는 신라윈드오케스트라의 제5회 정기연주회. 2008년 3월 창단된 신라윈드오케스트라는 2008년 9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 불라/March Creole
- 에드 흑케비/Ascentium



코렐로/Twinkling Flutes, Opera Favourites
 리데만/Tanzfestival 등 수곡

장정윤의 현대무용 2012

9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장정윤(200-7819)



1984년 이후 부산에서 창작 활동을 해온 장정윤 동아대학교 교수가 펼치는 2012 장정윤의 현대무용.

기존의 장정윤 순수현대무용 창작공연들과 차별성을 둔 이번 무대는 순수무용의 양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무용

창작 세편을 무대에 올린다. '승무 2012'는 특히 한국무용 '승무'의 새로운 해석을 현대무용의 몸짓언어로 재창조한 야심작으로 절제된 움직임의 미학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작품Ⅰ. 머시즘 6
- 작품Ⅱ. 승무 2012
- 작품Ⅲ. 솔로 하이라이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월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I '카르멘' Highlight

9월 7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이동신 유철우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에 이어 세 번째 무대로 비제가 남긴 4막의 오페라 '카르멘(Carmen)'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펼쳐지는 '카르멘'은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아름답고 매혹적인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돈 호세 하사와의 사랑을 그린 비극이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하이라이트-전주곡, 언제 당신을 사랑할까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등 수곡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명신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메조소프라노/성미진(카르멘) · 테너/김화정(돈 호세)
- 바리톤/박대용(에스카밀로)
- 소프라노/김유진(미카엘라)

인제의대 관현악단 제31회 정기연주회

9월 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제의대관현악단(010-2939-966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학교들로 구성된 인제의대 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1981년 인제의대 실내합주단으로 출발한 인제의대 관현악단은 힘든 학업 중에도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 환우들을 위한 마음을 담은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 로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 시벨리우스/카렐리아 모음곡
- 멘델스존/교향곡 제4번 가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 지휘/김영규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9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티켓 미소지자 입장가능)
 문 의 |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010-4842-6688)



1998년 '부산리틀스트링스 오케스트라'로 출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있는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동아대학교 김용문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영입,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 베버/무도회의 권유
-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 베토벤/교향곡 제2번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 협연/오한별(첼로, 진해동진여중 2학년), 정재원(바이올린, 부산예술고 1학년)

김수희 제2회 개인공연 '세상을 춤추다'

9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김수희(010-8545-8065)



신라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Rebecca Kelly Ballet, Von Ussar Dance Works Diversity of Dance 정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수희의 두 번째 개인공연 '세상을 춤추다'.

넛츠댄스컴퍼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희는 제14회 부산무용제에서 '여자 섬을 꿈꾸다'(안무 및 출연)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푸른춤 작가전, 땡브르발레 연구회 정기공연, 김정순 발레 50주년, 신라 무용인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작품
- Chapter 1 - '나의 이야기 그리고 춤...'
- Chapter 2 - 'A+B+B+B+B+B...'
- Chapter 3 - '인생이라는 줄을 타는 나는야 광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및 201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을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 2010년 첫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세 번째 축제 '유럽, 그 찬란한 유산'.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장-베르나르 포미에의 지휘, 재능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비평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아블론스키의 협연으로 '노르딕 멜로디(Nordic Melody)'라는 주제로 화려한 개막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
- 지휘/장-베르나르 포미에
- 협연/피터 아블론스키(피아니스트)

보는 춤 추는 춤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진홍전통춤연구회(010-8912-4881)



부산에서 유일하게 홀춤으로 지정받은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과 동래한량춤을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는 춤 추는 춤'.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며 동래한량춤의 예술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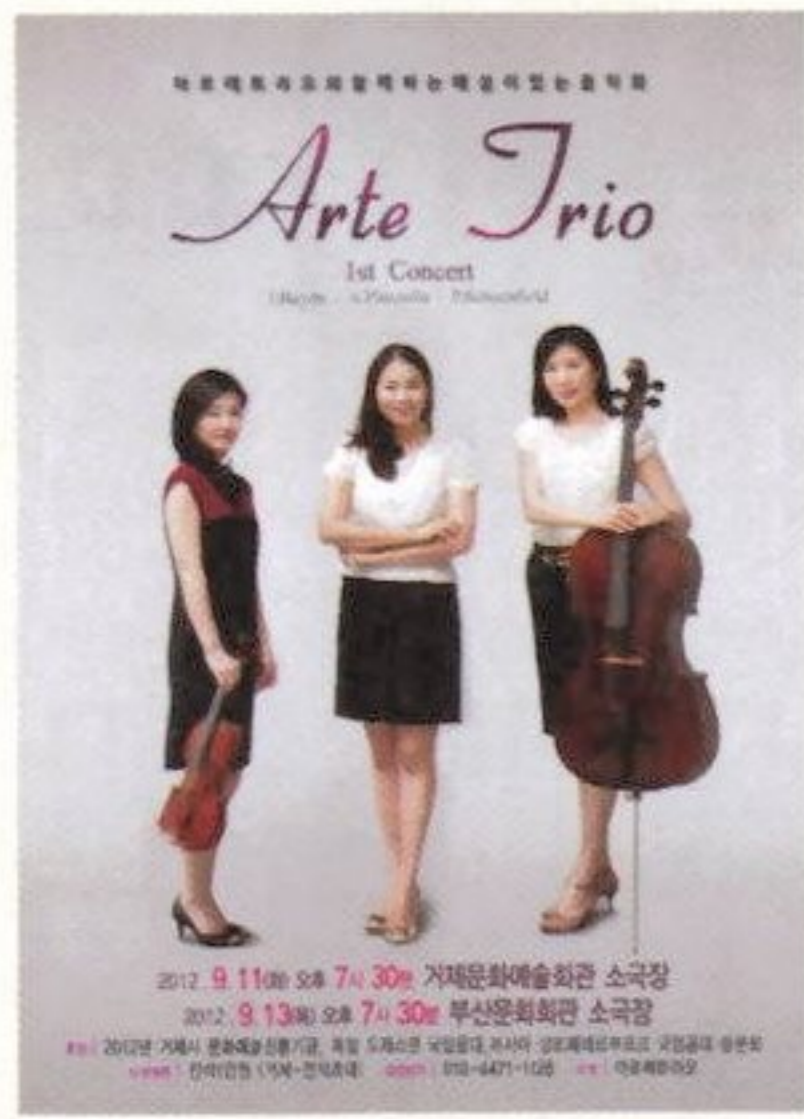
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이번 무대는 원형보전에 입각한 공연은 물론 또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한 동래한량춤 무대, 박연제 교수의 미술작품 전시, 주경업, 김온경, 김해성, 박재연의 대담이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

호접몽(군무), 지전춤(군무), 살풀이춤, 승무(춤/김진홍)
동래한량춤(남성군무), 동래한량춤(여성군무)
태평무(홍진희-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진주교방거리춤(원미자-한양대 무용공연예술 주임교수) 등
· 대담/주경업(부산민학회 회장), 김온경(부산민속보존협회 이사장), 김해성(부산여자대학 아동스포츠학과장), 박재연(조선대학교 교수)
· 사회/주경업, 김해성 · 특별출연/홍진희, 원미자

아르떼 트리오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르떼 트리오(010-4471-112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커 연수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신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주연과 St.Petersburg Conservatory Orchestra 단원을 역임한 첼리스트 전명화, 불가리아 Albena 국제 콩쿠르 등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전경화가 활동하고 있는 아르떼 트리오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트리오 제45번 내림마장조 Hob.XV.29
피아졸라/망각
신편드/카페 뮤직
· 해설/박주희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트리오 제45번 내림마장조 Hob.XV.29
피아졸라/망각
신편드/카페 뮤직
· 해설/박주희

2012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유럽, 그 찬란한 유산 체코와 영국의 추억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이자벨 모레티

조영창

체코와 영국의 위대한 작곡가들이 남긴 찬란한 유산을 만나는 '체코와 영국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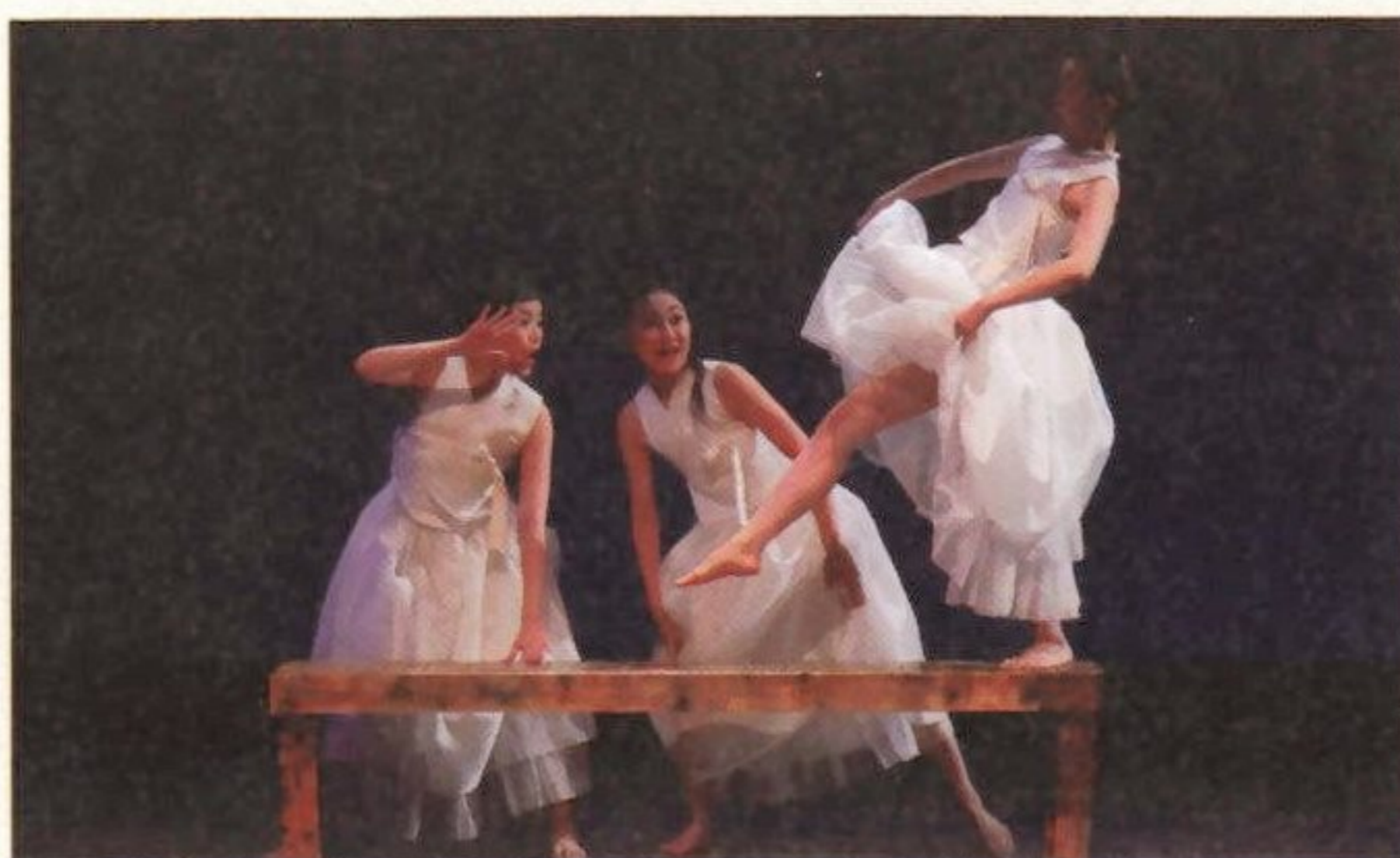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 수석들로 창단된 이래 체코의 프라하 스프링, 프라하 오토, 라인가우 페스티벌,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축제 등 유명 축제에 참여하며, 이제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를 아우르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조영창, 런던의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의 초청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영국 출신의 하피스트이자벨 모레티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체코모음곡, 두 개의 왈츠
브루흐/콜 니드라이
패리쉬 알바스/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 협연/이자벨 모레티(하프), 조영창(첼로)

윤은하 세비가무용단 두 번째 춤 이야기 '나다'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윤은하(010-3598-1368)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은하가 이끄는 윤은하무용단 '세비가(세상을 비상하는 아름다움)'의 두 번째 춤 이야기.

'나다'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나'의 모습을 개성넘치는 춤으로 표현한 창작 무대이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유익종의 음악여행

9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낭만을 노래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음유시인 유익종과 함께 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유익종의 음악여행'.

1974년 듀엣 그린빈스로 데뷔 후 '파랑새' '유리벽' 등

의 팀을 거친 유익종은 1983년 이주호와 '해바라기'를 결성해 1집 타이틀곡 '모두가 사랑이에요', 3집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통해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해바라기 시절 히트곡인 '모두가 사랑이에요'를 비롯해 '사랑의 눈동자' '상처' '어서 말을 해' 등 다양한 레퍼토리들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2012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유럽, 그 찬란한 유산

폐막연주 '음악의 트로이카'

9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지휘자 없이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로 58년간 꾸준히 활동해온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와 미국 출신의 거장 클라리네티스트 찰스 나이딕이 들려주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

고전악파 음악의 3명의 거장 바흐와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고전시대의 감동을 재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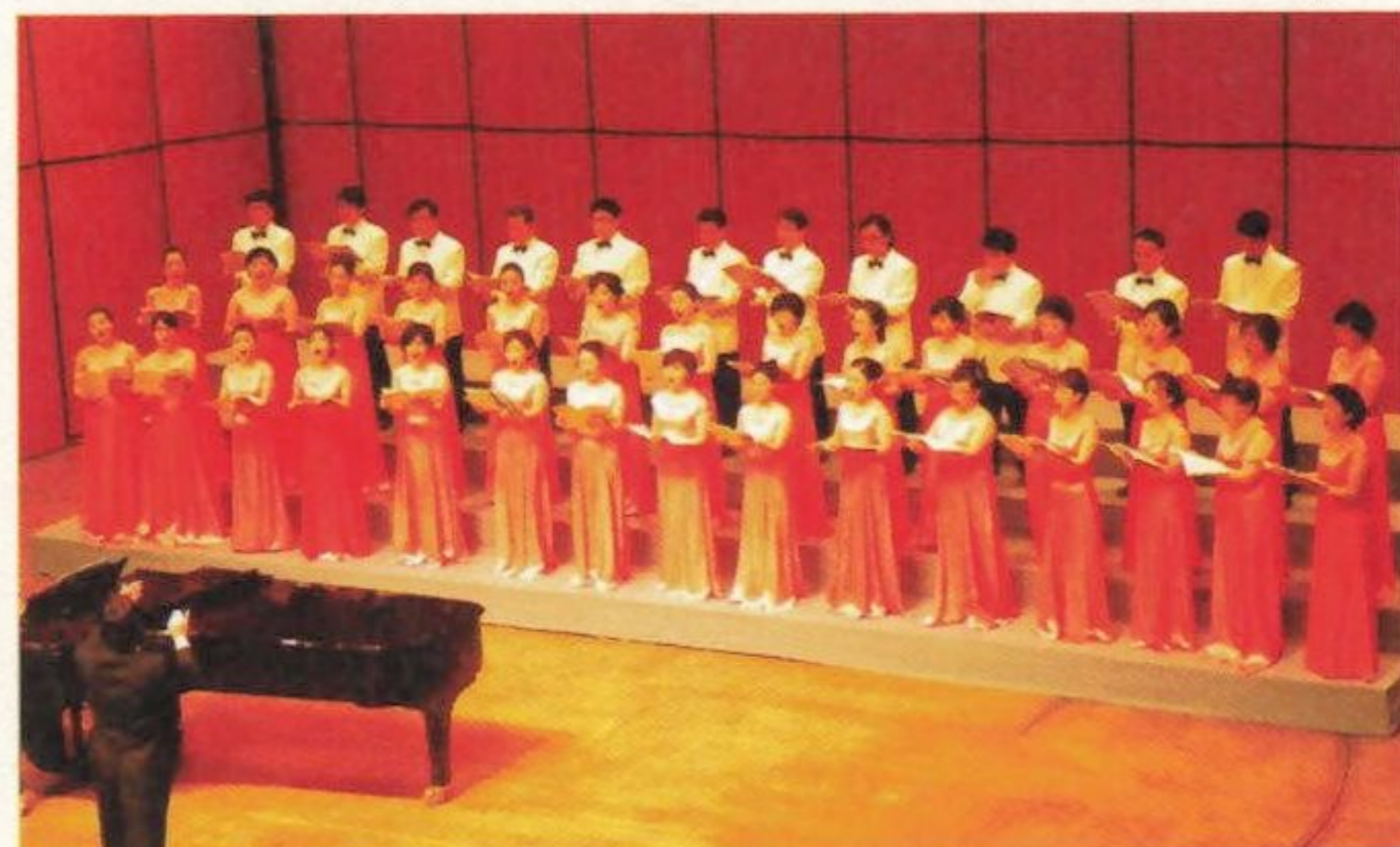
며 유럽, 그 찬란한 유산의 대미를 장식한다. 미국의 뉴욕커 잡지로부터 '클라리넷 연주자 이상의 명인'이라 불리어지는 찰스 나이딕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 베토벤/교향곡 제4번 교향곡 등
- 협연/찰스 나이딕(클라리네티스트)

부산코러스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코러스합창단(070-7713-2008)



1999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전문 음악인들과 합창 애호가들로 창단,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부산코러스합창단(단장 정현모)의 제9회 정기연주회.

순수 민간 혼성합창단으로 수년째 나고야오페라합창단과 교류해온 부산코러스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나고야 오페라합창단을 특별게스트로 초청, 문화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 하이든/테데움
- 합창(가곡)/가지산(이수인 곡),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조혜영 곡), 가을엔 코스모스가 되어(정덕기 곡)
- 합창(흑인영가)/Every Time I Feel The Spirit
- 합창(가요편곡)/사랑하기 때문에, J에게 등
- 지휘/장은익 · 반주/최지선

국립 터키 보드룸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9월 16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 의 | 코리아 무지카(02-2272-6516)



2007년 9월, 터키 이즈미르 국립 오케스트라(Izmir State Symphony Orchestra)의 단원이자 감독 겸 연출가 Numan Pekdemir에 의해 창단된 터키 보드룸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이즈미르 국립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보드룸 챔버 오케스트라는 터키의 유명도시인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라 지역,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 비발디/사계 작품
- 하이든/첼로 협주곡 등 수곡
- 지휘/Betin Günes
- 협연/김현경(제주도립교향악단 수석), 안성은

제5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9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음악협회의 독창적인 기획 전통을 이어온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여덟 개의 손을 위한 앙상블 무대. 4대의 피아노로 웅장한 감동을 선사할 이번 무대는 장근미, 서숙지, 이미라, 이정아, 이정현, 이민숙, 한은아, 김은실의 연주를 시작으로 52명의 피아니스트들이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프로그램

-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드뷔시/스코틀랜드 행진곡
- 로시니/윌리엄 텔 서곡
-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왈츠
-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송어' 작품 114
- 생상스/죽음의 무도 작품 40 등 수곡

- 연주/장근미, 서숙지, 이미라, 이정아, 이정현, 이민숙, 한은아, 김은실, 신현희, 고태욱, 강혜덕, 이희령, 정은아, 최진아, 박민경, 윤선혜, 정소연, 김진희, 정희경, 김일주, 박재영, 장효진, 허혜정, 표세구, 배수정, 강지영, 원혜진, 손정화, 김소형 외

고정화 피아노 독주회

9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정화(500-7260)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피아노학회 부회장,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고문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피아니스트 고정화의 피아노 독주회.

그동안 17회의 독주회와 다수의 협연무대를 통해 음악 애호가들과 만나온 고정화 교수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 최우수예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바르톡/3개의 론도
- 김국진/소나타 작품 58
- 쇼팽/녹턴 작품 27 제2번, 뱃노래 작품 60
- 리스트/에스테 장의 분수

불가리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자르지크 초청 내한공연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월드퍼포먼스(462-7071)

1969년 창단된 불가리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자르지크 내한연주회. 화려하고 웅장한 심포닉을 자랑하는 유럽의 유명악단으로 동유럽 음악의 진수를 들려주는 불가리아 국립심포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노태철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장조 '운명' 등 수곡
· 지휘/노태철

니 오케스트라 파자르지크는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활동해 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1번
다장조

제43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독일에서 공부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정기연주회 무대로 피아니스트 정예림, 엄덕희, 이혜승, 김정강, 임호진, 객윤희, 박영신, 박윤정, 원영아, 이문숙이 다양한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뷔시/이미지, 작은 모음곡(4 Hand)

웨버/Aufforderung zum Tanz für 8 Hände 등 수곡

· 연주/정예림, 엄덕희, 이혜승, 김정강, 임호진, 객윤희, 박영신, 박윤정, 원영아, 이문숙

2012 정신혜무용단 New wave serise V

젊은 몸짓 '박미향의 춤'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미향(010-7737-1031)



부산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초청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은 정신

혜무용단이 선보이는 젊은 몸짓 '박미향의 춤'.

신라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신혜 무용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박미향은 KBS부산무용콩쿠르 한국창작 부문 금상, 한국전통무문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part 1.

전통굿거리(춤/박미향), 장검무(춤/박성아, 서지은), 장고춤(춤/황경혜, 이경아, 류은미, 박미향)

part 2.

발칙한 상상想像(안무/박미향)

2012 평화통일 콘서트

9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



오충근



김철웅

세계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정치와 이념을 초월, 화합의 선율을 들려주는 2012년 평화통일 콘서트.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박은주를 비롯해 부드러운 감성과 세련된 음악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소리의 테너 전병호, 프란체스코칠레아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리톤 박대용,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입상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웅장한 무대를 열어준다.

평양음악무용대학,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평양 국립교향악단 수석피아니스트를 역임한 김철웅은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캐나다 토론토한인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김철웅(편곡)/아리랑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소프라노 박은주(부산대학교 교수),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피아니스트 김철웅

2012 칸타빌레남성앙상블

창단 15주년 기념 음악회

9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칸타빌레남성앙상블(010-2400-5271)



1997년 12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국립대학에서 유학한 남성 성악가들로 결성된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의 창단 15주년 기념 음악회.

고전적 레퍼토리의 답습을 피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온 칸타빌레남성앙상블은 남성앙상블이 가지는 넉넉함과 편안함, 드라마틱한 강렬함과 화려함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글린카/오페라 '이반 수사닌' 중 '수사닌의 아리아'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Cortiglianni' 등 수곡

출연

김길수(부산교육대 교수), 이홍득(동서대 교수), 이은민(부산교육대 외래교수), 안상철(고려대 오페라단장), 박기범(부산교육대 외래교수), 김화정(인제대 외래교수), 양승엽(부산교육대 외래교수), 김정대(동의대 외래교수)

· 피아노/김인재, 이윤정

· 음악감독, 해설/양종모(부산교육대 교수)

모스크바 시티 발레단 '백조의호수' 내한공연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 · B석 3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988년 예술감독 빅토르 스미르노프-골로바노프에 의해 설립된 이래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모스크바 시티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1989년 서울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진 모스크바 시티발레단은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한국,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등 전 세계를 돌며 러시아 전통의 클래식 발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음악/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 예술감독/나탈리아 리첸코 & 빅토르 스미르노프-골로바노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가을에 듣는 국악실내악 - 바다로 간 연어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대규모의 악기편성에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와 탄탄한 앙상블을 선보여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가을에 듣는 국악실내악-바다로 간 연어'.

이번 무대는 각 연주자들의 음악적 감성과 개성이 섬세하게 표현되고 악기 하나하나의 고유한 음색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해오름', '두 줄의 나래', '연, 바다로 간 연어' 등 부산 초연곡들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김영재/가야금, 대금 중주 '황토길'

김선제/국악실내악 '해오름' (부산초연)

방병원/해금 4중주 '두 줄의 나래' (부산초연)

이경섭/국악실내악 '연, 바다로 간 연어' (부산초연)

김창환(편곡)/거문고 중주곡 '아리랑 메들리' (부산초연)

강상구/국악실내악 '젊음에 부치는 풍경' (부산초연)

· 객원출연/윤혁성(드럼), 정우진(베이스 기타), 김한내(신디사이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9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차세대 우리 음악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들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들이 이 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몬티/차르다시

드보르작/바이올린 협주곡 중 제1악장

다비트/트롬본 소협주곡 중 제1악장

모차르트/바순 협주곡 중 제1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최영지(바이올린, 부산예중 3년) 정명아(바이올린, 부산대 3년), 고은비(바이올린, 부산대 3년), 김소연(바순, 부산예고 2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안혜빈(호른, 동아대 3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박소정(트롬본, 경성대 2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김도연(마림바, 부산예중 3년), 정리라(피아노, 부산대 3년)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9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은주(010-3471-8943)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004년 귀국,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김은주는 그동안 국내외



10여회의 독주회, 부산음협 주최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협연 무대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월광소나타

부조니/카르멘 환타지

프로코피에프/소나타 7번 등 수곡

2012 마루연극페스티벌 '뽕하고 해뜰 날'

9월 21일-2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5천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2010년까지 부산예술제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던 연극 공연에서 독립, 부산의 새로운 연극축제로 탄생된 마루연극페스티벌 두 번째 축제.

'돈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영화감독, 고시 준비생, 가수 지망생, 작가 지망생의 우울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눈물이 나는 풍경이 한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 작/김우찬

· 연출/김지용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6회 정기연주회 '가을은 선율을 타고'

9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 우선 입장)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독일 할레에서 열린 '제33회 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 아시아 팀으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며 유럽 무대에서 큰 박수를 받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136회 정기연주회 '가을은 선율을 타고'.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가을과 어울리는 동요와 클래식 명곡, 한국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주인공 작곡가 박주희의 창작합창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주희/노을이 지면, 악보적기, 왜 넘바

메들리 가을은 선율을 타고(안현순 편곡)/비발디 '사계'

중 가을 1악장, 가을밤, 산들바람

합창으로 듣는 세계 명곡/울게 하소서, 호두까기인형, 로

망스, 라데츠키행진곡 등 수곡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전상철 하윤지 박주희

- 지휘/전상철 · 반주/이영옥
- 안무지도/노금선 · 합창지도/김양자
- 특별출연/메조소프라노 하윤지
- 특별출연/해운대소리합창단(지휘/김진영)

부산가톨릭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34회 정기연주회

찰스 구노 - 세실리아를 위한 미사

9월 23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가톨릭합창단(070-8532-1117)



1982년 창단한 이후 정기연주회, 부산합창제, 각종 음악제에 참가하며 입지를 넓혀온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제34회 정기연주회.

부산가톨릭합창단은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무반주 종교음악' 부문 은메달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프로그램

- 라틴 성가/Ave Verum(E. Elgar), Ave Verum(A. Guilmant)
- 추억의 노래/벧노래, 최진사 덕 셋째 딸
- 구노/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등
- 지휘/이성훈
- 솔리스트/강혜정(소프라노), 김성진(테너), 이창룡(바리톤)
- 피아노/박유미 · 오르간/이민아
- 반주/SO.UL Philharmonie(음악감독/박진)

2012년 부산예술제 무용예술제 '로드'

9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무용협회(632-5116)

2012 부산예술제를 축하하는 부산무용협회의 특별무대로 '로드(길)'란 주제로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자매도시 교류공연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 시민대동춤(여니춤), 한국무용전통 '산조춤'(김은경)
- 현대무용 '소문의 벽'(장정윤 무용단)
- 현대무용 자매도시교류(김태훈-창원대학교)
- 한국무용창작 '춤 길'(배김새)
- 발레 '마이웨이'(신정희발레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낭만의 두 거장'

9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이동신

블라단 코치

수석지휘자 이동신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낭만의 두 거장'. 낭만주의의 거장 브람스와 체코의 위대한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곡,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체코 태생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블라단 코치가 동서고금을 망라한 첼로협주곡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를 협연한다.

프로그램

- 브람스/교향곡 제3번 바장조 작품 90
-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블라단 코치(첼로, 프라하 국립음악원 교수)

제50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해외자매도시 예술교류음악회'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예술인들이 펼치는 가을 문화예술축제 부산예술제 2012년 무대.

올해는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지역 성악가들과 일본의 소프라노 쿠니카 나가푸치가 함께 교류음악회를 갖는다.

프로그램

- 정원상/금정산의 아침(김상훈 작사)
- 신동수/산아
-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나, 파파게노'
- 윤용하/보리밭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 라라/그라나다(Granada) 등 수곡
- 출연
- 소프라노 박미경, 소프라노 김경희, 소프라노 조윤정, 소프라노 쿠니카 나가푸치, 메조소프라노 전연숙, 테너 이흥득, 테너 전병호, 바리톤 허종영, 베이스 권영준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이동신)

소프라노 박유나 귀국 독창회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박유나(011-886-4477)



부산예고,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뉴욕 메네스 음대(Mannes college of Music), 뉴욕시립대(CUNY, Queens college), 뉴저지 주립대 (Rutgers University) 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박유나 독창회.

프로그램

- 모차르트/아름다운 봄은 벌써 미소짓고
- 멘델스존/첫 제비꽃, 솔라이카, 노래의 날개위에
- 로시니/오페라 '도둑까치' 중 '모두 미소 짓고'
- 뵘/연가곡 중 '낭만적인 노래' '전원의 노래' '엄숙한 노래' '경쾌한 노래' 등 수곡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22일 공연은 중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9월 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수제천(집박/채수만 · 대금/엄익준, 강은주, 강영진 · 소금/조은경 · 피리/박춘석, 강영현, 권미정 · 해금/김민정, 정수경, 최유리 · 아쟁/권혜정, 박일 · 장구/이장우, 박재현)

피리산조 '서용석 류' (피리/최요섭 · 장구/송강수)

김용실/거문고 중주 '출강' (거문고/전혜정, 한정임, 이우진, 전현진)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오상훈 · 장구/송강수)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 북/김명진)

· 지휘/김철호 · 해설/전현진

9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 금관5중주

현악4중주 String Quartet

(ViolinI, 김효빈 ViolinII, 박예지 Viola, 정희경 Cello, 최지예)

금관5중주 Brass Quintet

(TrumpetI, 최수용 TrumpetII, 황은정 Horn, 김영민 Trombone, 최민재 Tuba, 차병구 SetDrum, 조용운)

프로그램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제1악장
 가르델/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간발의 차)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넬라 판타지아)

거슈윈/리듬을 타며

맥린/차르다시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중 '시간을 거슬러'

플락/댓츠 어 플렌티

월터스/인스턴트 콘서트

로저스/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중 '강강'

캔디/뉴욕, 뉴욕

미국 민요/성자의 행진 등 수곡

9월 15일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김규환/남촌

윤용하/보리밭

이수인/고향의 노래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김희조편곡/신고산타령, 한오백년, 강강수월래

김희조/춤추는 춘향이

가요합창/아름다운 강산, 푸르른 날, 풀잎사랑, 상하이 트위스트

· 지휘/오세종(수석지휘자)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소프라노/김나영, 전귀만, 이정란, 홍승현, 이정희, 엄남이, 권순유, 김경미,

· 엘토/정은영, 김성미, 안소영, 장은경, 김윤희, 이정윤

· 테너/강종철, 박성환, 조성기, 김웅태, 강은태, 김정하

· 베이스/김태우, 최기호, 문동환, 김창돈, 장용균

9월 22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처용무(출연/이정식, 박상용, 강모세, 최의옥, 장영진)

장고춤(출연/박창희, 김주연, 김경미)

살풀이춤(출연/오숙례)

성주허튼춤(출연/서정연, 김동숙, 이현숙)

태평무(출연/왕-류권홍, 왕비-이현정)

동래학춤(출연/황동하)

흥타령(출연/권봉정, 오수연, 안주희, 이상민, 김도은, 김시현, 박미나)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Music

제9회 부산오카리나클럽 정기연주회

9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오카리나클럽(010-3121-8245)

2002년 4월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봉사활동,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카리나 사랑을 펼쳐온 부산오카리나클럽 정기연주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사랑의 음악회

9월 3일(월), 10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점근(010-3590-7172)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소프라노 박순옥, 최경순, 테너 공영호, 김진현, 바리톤 김점근, 김영만이 국내외 가곡과 뫼파르크 가곡 전곡,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등을 들려준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콘서트

9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의 | 부산문화(1600-1803)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콘서트. 1996년 뉴욕 영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인 14세의 나이로 우승해 세계무대에 두각을 나타낸 오주영은 현재 뉴욕필 하모닉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라벨/치간느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라장조 작품 94

거쉬인/포기와 베스

번스타인/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 등

· 피아노/칼로스 아빌라

정아름 귀국 피아노 독주회

9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정아름(010-9817-2898)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과와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효성피아노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피아니스트 정아름 독주회.

부산가야금연주단과 효원국악관현악단의 국악콘서트

9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가야금연주단과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국악 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한 효원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마련하는 국악콘서트.

· 지휘/홍희철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4일 2012 해금연구회 연주회

1992년 해금음악의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결성된 해금연구회 초청으로 마련되는 제100회 화요공감무대.

▶11일 이윤혜의 춤 '共鳴공명 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로,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를 역임한 이윤혜의 춤.

▶18일 장혜숙 가야금 연주회

부산시무형문화재 제83-가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전수조교이자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으로 활동중인 장혜숙 가야금 연주회.

▶25일 박환영 대금연주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 제례악, 제45호 대금산조,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이자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박환영 대금연주회. 박환영은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단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 경기도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5일 피아니스트 박소미와 함께하는 독일어 가곡의 밤



동아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이너 음악원,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반주연구회 회원,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소미와 테너 조윤환, 베이스 바리톤 조규희가 함께하는 독일어 가곡의 밤.

▶12일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정기연주회

2008년 서양의 현대음악과 한국창작음악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연주자들이 작곡가 이규봉과 함께 결성한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정기연주회.

▶19일 콰르텟 클레다 제2회 정기연주회

부산예고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탁서연, 비올리스트 성정인, 첼리스트 박준현으로 결성된 콰르텟 클레다 정기연주회.

▶26일 임준서 콘트라베이스 리사이틀

독일 쾰른국립음대 디플롬, 스위스 바젤국립음대를 수료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진주챔버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있는 임준서 콘트라베이스 리사이틀.

- 첼로/정준수 · 바이올린/강선혜
- 피아노/이용희 · 해설/김윤선

영호남 교류 음악회

9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양승엽(010-7767-4390)



김길수 이홍득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등 매년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갖는 부산 성악아카데미의 영호남 교류음악회. 올해 22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구성악아카데미,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 전주성악아카데미, 부산성악아카데미가 출연,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6일 정문정 피아노 리사이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루즈벨트대학교(석사), 드폴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문정 독주회.

▶13일 옥준 오카리나 콘서트

현재 아인양상블 대표로 있는 오카리나 연주자 옥준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부산진구청 평생교육원 지도강사로 오카리나 전수에 앞장서고 있다.

▶20일 이승재 바이올린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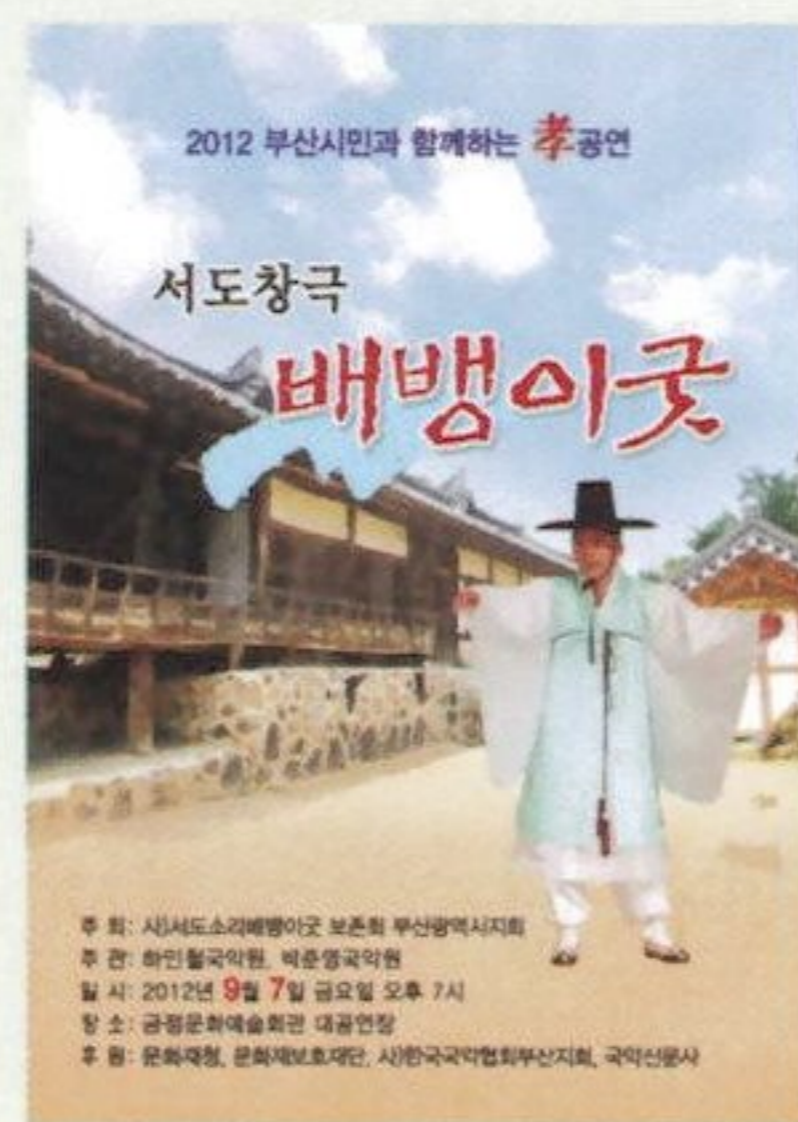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드림챔버오케스트라 리더, 교문청소년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재 독주회.

▶27일 기타리스트 신준기 귀국독주회

브레멘국립음대에서 클래식기타를 전공한 클래식기타리스트 신준기 귀국독주회.

2012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孝** 공연
 서도창극 배뱅이굿

9월 7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하인철 우리소리국악원(010-3550-4189)



(사)서도소리배뱅이굿보존회 부산광역시지회 하인철 지회장이 마련하는 서도창극 '배뱅이굿'.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배뱅이굿 준인간문화재 박준영 선생을 사시한 하인철은 제8회 구리전국민요

경창대회 명창부 대상, 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특별출연/유지숙, 박준영, 김오택, 유주희

을숙도문화회관 **금요해피콘서트**

양상블 'The Cross'와 함께 여는 **소리의 세상**

9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테너 이재원과 바리톤 김창돈, 남구오륙도합창단 트레이너인 소프라노 김민지로 구성된 양상블 'The Cross'와 사하맘스오카리나, 신촌오카양상블이 함께하는 금요해피콘서트.

프로그램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꿈이었던 시절' '오페라의 유령' 중 '나를 생각해줘요', 넬라 판타지아 등 수곡

부산교사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9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교사합창단(010-3431-5636)



1995년 합창을 사랑하는 초중등 교사들로 결성된 부산교사합창단의 정기연주회로, 선생님과 제자인 학생이 합창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무대도 마련된다.

· 지휘/김강규 · 반주/박정호

· 특별출연/박기훈(부산예고 3학년)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토요해피콘서트

9월 8일(토), 22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되는 토요해피콘서트. 8일에는 가온트리오의 실내악무대가, 22일에는 더블베이스 주자 윤민우의 재즈공연이 펼쳐진다.

조운범의 시네마콘서트 시리즈 III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780-6000)



'영화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칭송받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주요 곡을 콰르텟 엑스와 오보이스트 박지현의 연주로 들려주는 조운범의 '시네마콘서트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양옥진 첼로 리사이틀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제대학교 양옥진 교수의 첼로 리사이틀.
· 피아노/정성흡
· 더블베이스/박희철

메조소프라노 하윤지 귀국 독창회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우리아트(010-5555-3825)



신동수/산아 등 수곡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피바디음대(석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온 메조소프라노 하윤지 귀국 독창회

프로그램

도나우디/마음 속에 느끼네
볼프/한밤중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제8회 정기연주회 '민간풍류'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그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이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속음악인 대풍류, 이말랑 줄풍류, 취타풍류, 굿풍류 전곡을 들려준다.

2012 제3회 부산국제마루음악제 유럽, 그 찬란한 유산 '탄생과 서거'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070-7687-8291~2, www.bmimf.co.kr)

탄생 150주년을 맞은 드뷔시 곡 '하프와 현을 위한 춤곡'과 차이코프스키가 루빈스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작곡한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을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앙상블로 만날 수 있는 2012 부산국제마루음악제 '탄생과 서거(Birth & Death)'.

· 연주/유영욱(피아노), 강동석, 백재진(바이올린), 김가영(비올라), 조영창(첼로), 찰스 나이딕(클라리넷), 이자벨 모레티(하프)

부산여교사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여교사합창단(011-861-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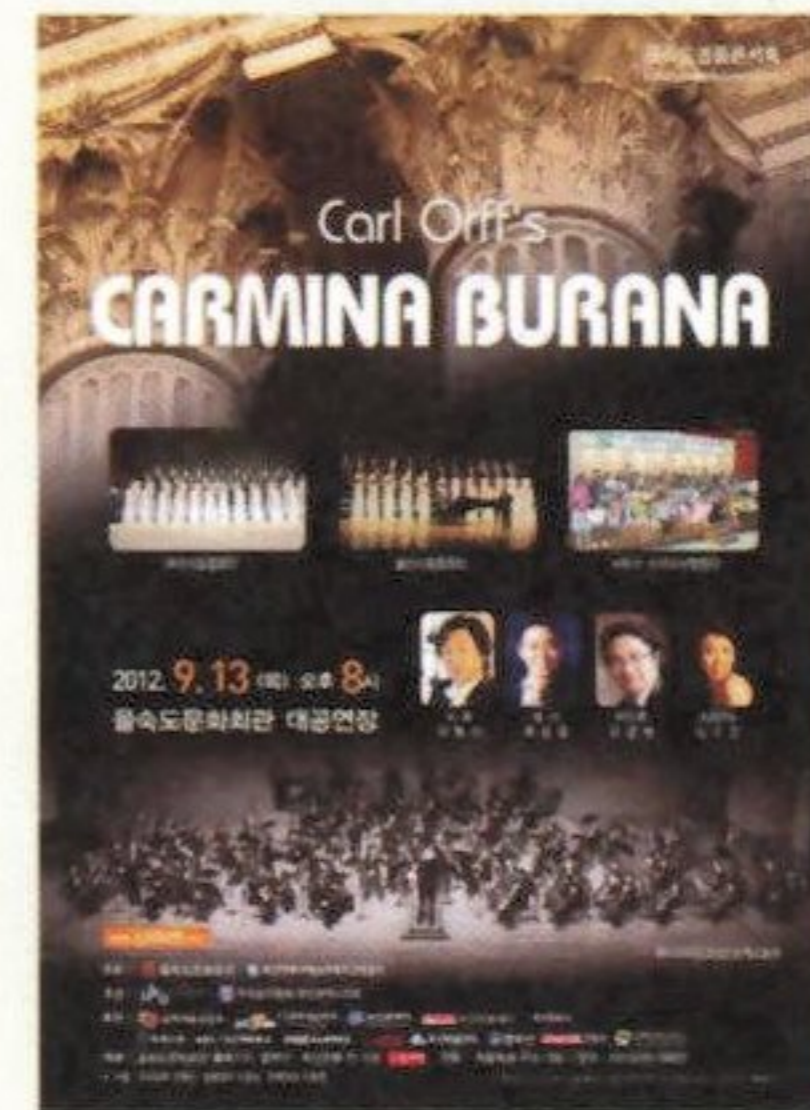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 경남지역 여교사들로 결성된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여교사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제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 지휘/양종모(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을숙도 명품콘서트

2012 제3회 부산국제마루음악제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9월 13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테너 광성섭, 바리톤 강경원, 소프라노 김유진,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칼 오르프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전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칼오르프/카르미나 부라나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소프라노 김혜원 귀국 독창회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이태리 로마 아르츠 아카데미아에서 음악공부를 마친 소프라노 김혜원 귀국 독창회,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전은주

서혜원 피아노 독주회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혜원(010-2545-2513)



부산대학교와 독일 아헨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A),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UM))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활동하다 귀국, 다양한 음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원 독주회.

이자람 판소리 '브레히트의 사천가'

9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브레히트의 서사극 '사천의 선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21세기 한국적 상황에 맞춰 판소리 무대로 새롭게 재구성한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의 사천가'.

'사천가'는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어려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프랑수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작, 작창, 소리/이자람
- 연출/남인우
- 악사/이향하, 신승태, 장혁조
- 배우/이윤재, 오대석, 오유진

곰뻐의 토크 콘서트

9월 16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김현일(010-9328-9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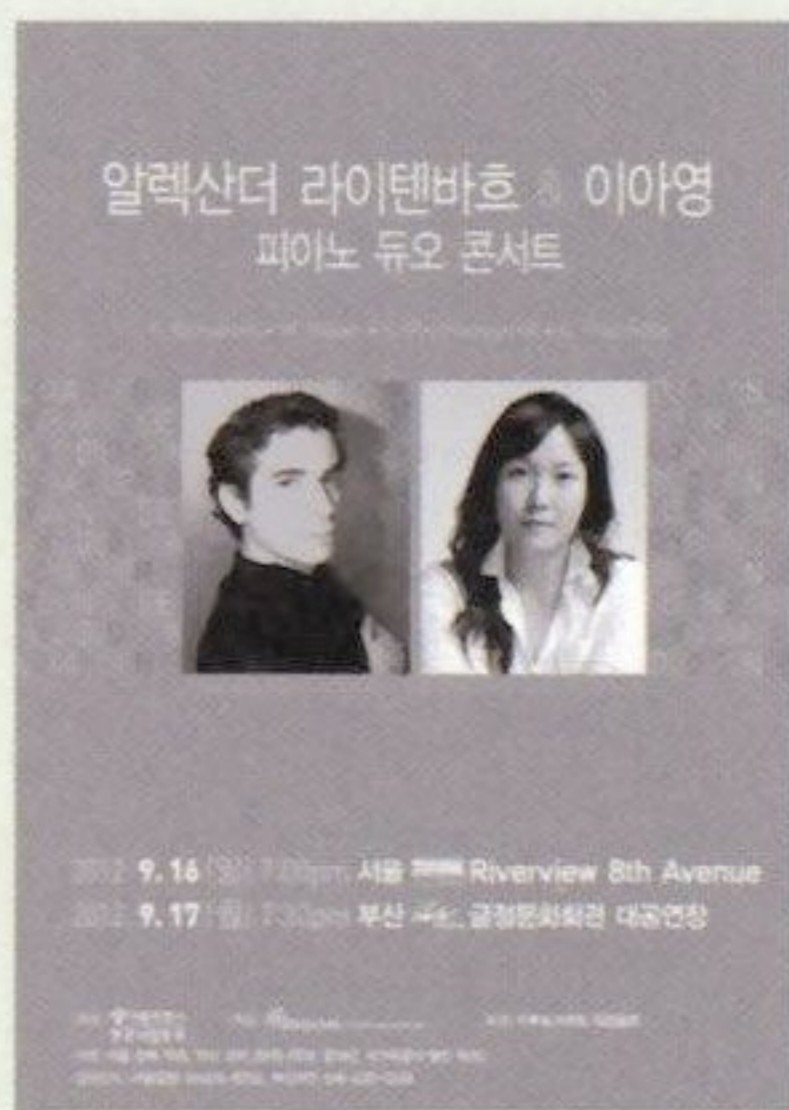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이수자이자 국악연주단 우리소리 우리가락 청 대표로 있는 김현일이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지역의 전통예술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곰뻐의 토크 콘서트.

이아영&알렉산더 라이텐바흐

피아노듀오 공연

9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문 의 | 이아영(010-6657-9178)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아영과 알렉산더 라이텐바흐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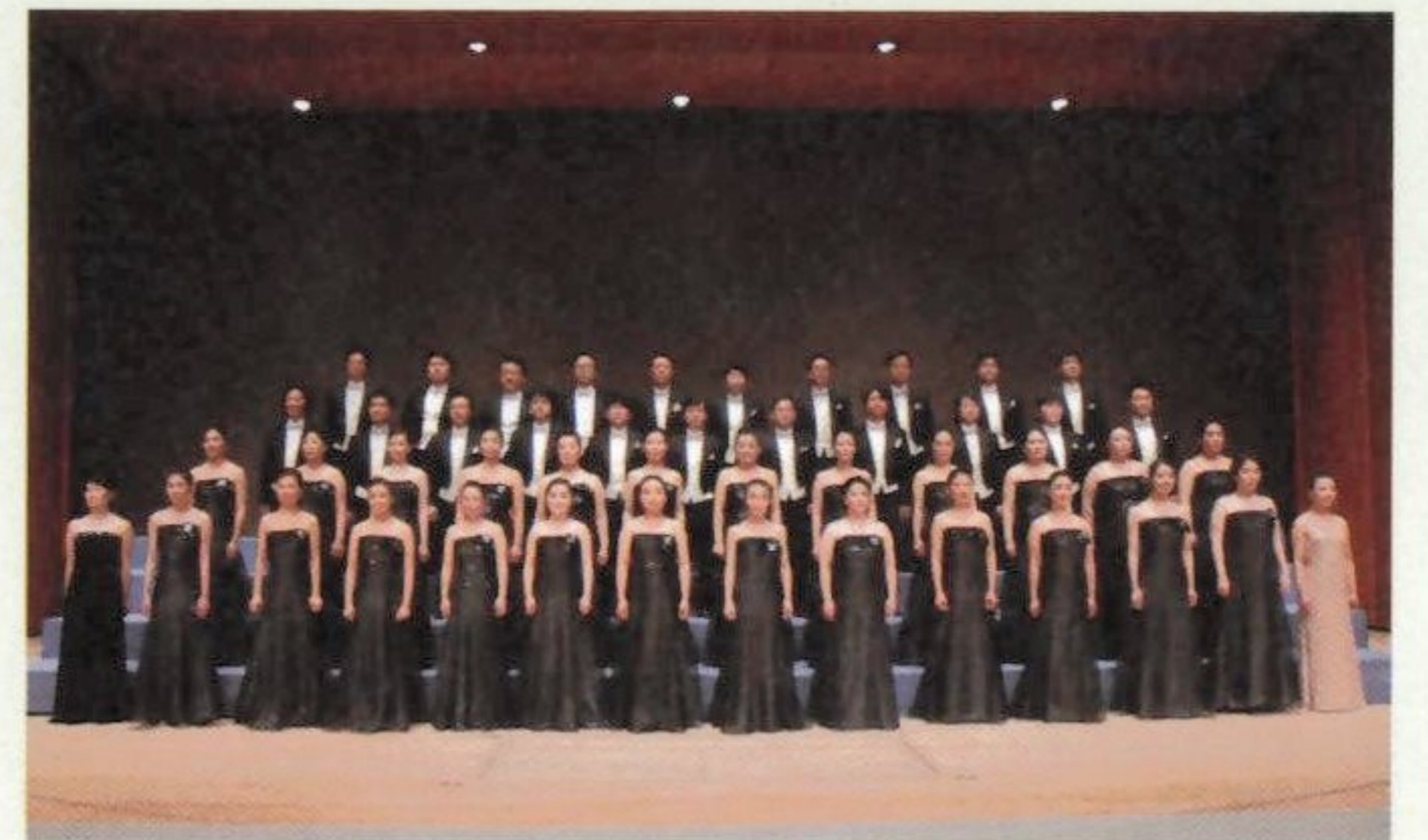
이아영은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독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주최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뷔르템부르크

주립박물관 초청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알렉산더 라이텐바흐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순회연주회

'가을, 한가위와 한국가곡'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5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27일 목요일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대강당
입장료 | 무료(선착순 입장권 배부)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을, 한가위와 한국가곡'이라는 주제로 우리가곡과 민요를 들려준다.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바리톤 고영호 독창회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 의 | 고영호(010-2585-0206)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로렌조 빠로지 국립음악원, 이태리 A.I.D.M 성악과, A.I.A.R.T.S 아카데미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남구여성합창단, 김해YMCA여

제14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2 10.3(수)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빌아트홀

부 문 | 피아노/작곡/성악/중창/현악/관악/국악/실내악/실용음악

대 상 |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 수 | 2012년 9월 28일 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접수처 | 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과제곡 | 전 부문 자유곡 1곡(단 피아노 및 성악 중고등부는 각각 2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시 상 | 부산대학교총장상,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각 부문별 각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전체대상
학원상 : 단체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주 최 | 글로벌아트홀,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

글로벌아트홀 3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트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T.051)505-5995 F.051)505-5935 E. glovil@hanmail.net <http://www.glovil.org>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성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바리톤 고영호 독창회.
이태리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고영호는 이번 무대에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반주/윤혜연

제7회 부산작곡마당 정기연주회

9월 18일 화요일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백현주(010-4585-2052)

2006년 창단 후 창작곡의 저변확대에 힘쓴 부산작곡마당의 7번째 정기연주회.
작곡가 신동일, 오세일, 백현주, 정보형, 송기영, 장하라, 홍수정, 박찬흠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연주/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강규, 반주/윤지영) 외

비르투오조 앙상블 초청연주회

9월 18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일본 사가현 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역량을 넓혀오고 있는 비르투오조 앙상블 초청연주회.
· 연주/백재진, 김도경, 서은아, 이현지(바이올린), 김은진, 신요한, 손주연(비올라), 정준수, 서성은, 손리사(첼로)

제71회 한낮의 유U:콘서트 '꿈의 아리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제신문사(500-5222)

소프라노 권미현, 한인숙, 테너 양승엽, 클래식기타리스트 정달숙, 고종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가 들려주는 초가을의 서정 '꿈의 아리아'.
· 지휘/박성완
· 연주/바다오케스트라

강지은 네 번째 해금 이야기 바람은 고개를 넘고-영남소리기행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강지은(010-4658-5268)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이수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강지은 해금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전승이 끊긴 풍류음악의 복원, 산조의 창조적 계승, 잊혀져 가는 민요, 굿음악의 새로운 해석이 담긴 시나위음악 등을 들려준다.
· 연주/이태원(음악감독), 안이호(노래, 장구, 징), 김솔미(양금, 철현금), 최재근(별신굿 장구), 송정아(가야금)

S.Modern 타악기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9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S.Modern 타악기앙상블(010-8408-8192)



2010년 리더인 송희철을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타악기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S.Modern 타악기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학교 초청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홍유리 피아노 리사이틀

9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미국 맨하튼음대(학사), 미시간대학(석사), 위스콘신대학(박사)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홍유리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30번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2번
쇼팽/벧노래 작품 60 등

2012 철학과 예술의 만남 '청소년 렉처콘서트'

9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베토벤 교향곡 제7번과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작곡가 박민진의 창작곡 'The Formation of Star'를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 연주/(사)T.I.F 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2012 제3회 부산국제마루음악제 Joy of Seasons

9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0)



1997년 창단 후 깊이있는 음악적 경험과 열정으로 수준 높은 앙상블을 선보여온 조이 오브 스트링(Joy of Strings)과 탁월한 예술성과 대가적 기교로 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홀스트/사도 바울 모음곡
비발디/ '사계' 중 여름, 겨울 등

**드뷔시 탄생 150주년
Debussy Project in Busan**

9월 24일(월), 27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작곡가 드뷔시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색채의 미술사' 드뷔시의 실내악곡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기획무대.

24일 출연

강선혜, 김희정(바이올린), 이성호(비올라), 정준수(첼로), 이화영(플루트), 김영립

(하프), 김미현, 오윤복, 탁영아(피아노)

27일 출연

이은옥, 서은아(바이올린), 양욱진, 서성은(첼로), 김선희(오보에), 강철주(클라리넷), 조운환(테너), 한현미(메조소프라노), 성민주, 정성흡, 이은정, 하승경(피아노)
· 해설/곽근수

부산반주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

9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박미은(010-5583-4141)

클래식음악의 활성화와 반주전문 피아니스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창단된 부산반주연구회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로, 올해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작곡가 드뷔시의 음악세계를 조명하고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갈라무대를 선보인다.

· 연주/정수연, 박소미, 김선희, 김은경, 서보연, 임효진, 김성희, 윤민화, 이소영
· 성악/이철성, 김정아, 김경희, 고영호, 박지현
· 플루트/최낙수

오페라 '카르멘' 갈라콘서트

9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학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한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비제의 걸작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아리아를 성악가 안병길의 해설로 들려주는 갈라콘서트.
· 출연/나희영, 정중순, 권지훈, 김수현

테너 양승엽 독창회

9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양승엽(010-7767-439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L.PEROSI' 국립음악원, 'ARAM'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U.GIORDANO, Citta di Angro, M.Batistini, Citta di Nettuno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테너 양승엽 독창회.

친숙한 이태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향사회 제47회 정기연주회

9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 향사회(010-3139-1719)

1974년 창립된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협회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곡가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향사회 정기연주회.

초청작곡가를 비롯해 회원 8명의 오케스트라 및 실내악 창작곡을 들려준다.

· 작곡/정승원, 진소영, 김도희, 조은옥, 임록, 김성덕, 강영화 외

목요국악콘서트 '가을을 여는 소리'

9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치는 동래문화회관의 목요국악콘서트.

**부산시민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제57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9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www.wendl-lung.co.kr

The early years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작전! 임이랑지우기'

5월 12일(토)-9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2027년을 배경으로, 자신의 운명을 지우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 과정을 그린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호러연극 '두여자'

6월 5일(화)-9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존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6월 26일(화)-9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연극 '그남자 그여자'

2012년 7월 20일(금)-201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주)가을엔터테인먼트(1577-5878)

두근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달콤한 사랑, 그리고 쓰러진 이별과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대학로 최고의 커플 연극 '그남자 그여자'.

코미디극 '코미디 넘버원'

8월 10일(금)-9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훈남인 강력계 열혈 형사 기남과 그의 전 부인 이지, 아름답고 매력적인 기남의 첫사랑 도희 등 개성있는 캐릭터가 등장해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디극.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8월 29일(수)-9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비비안 리, 말론 브란도 주연의 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대 고전으로 욕망과 불안, 폭력성, 현실도피, 우울증 등 인간이 지닌 어둠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작/테네시 윌리엄스 · 번역/이채경

· 연출/채윤일

· 출연/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김아라나 외

(사)한국연극배우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정기공연 연극 '날 보러와요'

9월 1일(토)-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

미리내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2만원

문의 | 미리내소극장(504-2544)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이시대 사람들의 무감각함에 경종을 울리는 연극 '날 보러와요'.

· 작/김광림 · 연출/호민

· 출연/주용욱, 김은미, 권철

구민주, 김우진 외

연극 '내이름은 김삼순'

9월 7일(금)-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2005년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을 새롭게 무대화한 작품으로, 일에 대한 열정으로 혼기도, 나이도 짝 차버린 서른 세살 김삼순의 이야기를 통해 미혼 여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

· 원작/지수현 · 연출/정세혁

· 출연/박세영, 금빛서림, 유정호, 김주일, 김지안 외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보이지 않는 사람들'

9월 12일(수)-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9/30일,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1992년 7월 창단공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무대에 올렸던 극단 사계가 창단 2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기념공연 첫 번째 무대. 극단 사계와 함께 연극인생 50년을 맞는 연출가 허영길 이 연출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국 출신의 극작가 노엘 카워드의 '유쾌한 유령'을 원작으로, 죽은 아내의 유령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그린 코믹풍자극이다.
· 원작/노엘 카워드 · 연출/허영길
· 출연/백대현, 임선미, 강민지, 김지희, 박준성 외

마술사와 비밀의 방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2012 여수세계엑스포 국가대표 마술사인 마술사 김영진 과 이수현, 박병진이 샌드애니메이션, 해산물 미술, 공중 부양, 카드마술 등 다양한 마술세계를 펼친다.

**2012 마루연극페스티벌
극단 에저또 '검정고무신'**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마루연극페스티벌 첫번째 무대 극단 에저또의 '검정고무신'. 이 작품은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부모없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낸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 연출/최재민

초특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1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MBC롯데아트홀(1688-8998)



EBS교육방송 시청률 1위에 빛나는 3D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최신무대기술을 도입해 제작한 어린이 뮤지컬. 특수제작된 살아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무대 위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연극 '모라동 행복화원'

9월 14일(금)-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 · 공휴일 오후 3:00
(9/29일~10/1일 추석연휴, 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시나위 공연기획단(010-6807-6066)



과거의 상처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꺼리는 수현의 화원을 배경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관계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연극 '모라동 행복화원'.
· 작/정재영
· 연출/조기왕

· 출연/이성원, 정영인, 김근아, 이수정, 신동일, 박재현

아유크레이지

9월 14일(금)-1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정신병원에 위장입원한 천재박사 김희진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절복통 헤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크레이지'.

**2012 마루연극페스티벌
극단 누리에 '개짚는 날'**

9월 18일-20일 화-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정년퇴임 후 개농장을 운영하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오직 자식걱정뿐인 엄마, 작가를 꿈꾸는 자기밖에 모르는 딸, 백수로 살아가는 철부지 이혼남 아들 등 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극단 누리에 '개 짚는 날'.

· 작/이경진 · 연출/강성우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을숙도연극열전 더블스테이지 '폭소왕'

9월 19일-21일 수-금요일 오후 8:00,
22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 꿈인 주인공인 '왕'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최고의 코미디언인 '주디장'을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코미디극 '폭소왕'.

어린이 뮤지컬 '모해? 모해!'

9월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중고생 7천원 · 초등학생 5천원
문의 | 끼리프로젝트(759-7112)

핸드폰게임에 빠져있는 푸름이가 전화기도 컴퓨터도 없는 모해마을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이 추억 속 전통놀이와 함께 펼쳐지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 '모해? 모해!'.

2012 마루연극페스티벌 극단 맥 '개똥할매'

9월 25일-26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 작, 연출/이정남

우리의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전통춤과 소리, 장단을 통한 한국적 연극을 표현한 극단 맥 '개똥할매'.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쳐온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우리네 보편적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011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국내초청작 극단 드림 '경로당 폰팅사건'

9월 25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경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경로당 폰팅사건'.

· 작, 연출/이충무(건양대학교 교수)

극단 누리에 '장군슈퍼'

9월 27일(목)-10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5:00(10/1일,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극단 누리에(621-3573)



장군슈퍼의 외아들이자 청년 실업자인 장군과 대형마트에 밀릴까 노심초사하며 장군슈퍼를 운영하는 장군 엄마 등 한 가족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장군슈퍼'.

· 작/김한길 · 연출/강성우
· 출연/진선미, 배진만, 오영섭, 최성희, 이지혜 외

Dance

박순희 다스림 춤판

9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박순희(010-3582-6535)

전통춤의 대가인故 강남기 선생의 문하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해 동아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꾸준히 전통춤을 익혀온 춤꾼 박순희가 마련하는 개인춤판. 한영숙류, 강선영류, 이매방류 등 다양한 유파의 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정원의 춤 '因緣'

9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김정원(017-567-8071)

춤소리예술단 대표, 한얼정악창무극단 예술감독, 춤패 배김새 지도위원,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학춤 전수장학



생으로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김정원의 춤.

프로그램

지전춤, 살풀이춤, 한량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영남교방무, 태평무, 승무 등

· 예술감독/김진홍

· 연출/김정원

· 특별출연/김진홍, 최창덕, 유금선, 김태형

2012 윤여숙의 부산 춤, 혼을 품다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윤여숙(010-3865-6873, 555-0092)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10호 동래고무 이수자로 우리 춤 전승에 앞장서온 윤여숙의 '부산 춤, 혼을 품다'.

올해 직접 이수받아 첫 선을 보이는 이매방류 살풀이춤을 비롯해 원무만으로 4고무를 구성해 무대에 올리는

동래고무, 불구의 몸짓을 오히려 해학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문동탈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예술감독/김온경 · 기획/윤여숙
· 출연/김온경, 윤여숙, 박순희, 전정숙, 문임선, 강성희, 김정애, 김순애, 김무희, 박선홍, 조보경, 강미선, 하연화, 강정아, 김윤희, 서은숙, 김민경, 장윤정
· 특별출연/이도근, 이성훈

Concert

재즈 와인에 빠지다 41st Concert

9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 5천원 · 2층 2만 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재즈에서부터 라틴, 락, 블루스 등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온 실력파 재즈밴드 '초이밴드(CHOI BAND)'의 무대로 마련된다.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콘서트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1:00 부산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국제신문사(500-5222)



김장훈 안치환

환경에너지산업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환경콘서트. 가수 김장훈, 안치환, 추가열이 출연해 그들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 사회/김정아(TBN교통방송 아나운서)

호세 펠리치아노 내한공연 부산

9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문 의 | 부산CBS(636-0050)

선천적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정상의 팝 아티스트 반열에 오른 호세 펠리치아노가 전하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무대.

오영실의 트로트보다 쉬운 재즈

9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CF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들어온 주옥같은 재즈명곡들을 방송인 오영실의 유쾌한 진행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재즈 입문 콘서트.

· 출연/오영실(진행), 이정식(색소폰), 박윤우(기타), 이길중(드럼) 등

Event

제115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9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박강우, 김시월, 이은주, 김재근, 정혜경(소설 낭독), 이해영(시낭송가)

**제50회 부산예술제
 새로운 예술, 50년을 넘어서**

9월 14일(금)-28일(금)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국도예술관
 문 의 | 부산예총(631-1377, www.artpusan.or.kr)

부산예술인들의 큰 잔치 제50회 부산예술제.

제6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김옥균(010-6367-0149)

· 초대시인/최경화, 유판수, 이기철 외
 · 초대음악가/테너 김명재, 가수 ANNA, 김대한

Gallery

**실낙원 Paradise Lost
 고향의 실종과 군소도시의 탄생**

7월 28(토)-9월 1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참여작가/고정남, 구성수, 김지연, 김윤호, 안수영, 양재광, 이민규, 최광호

비틀즈 50년_한국의 비틀즈 마니아

8월 8일(수)-9월 4일(화)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의 | 롯데백화점 광복점(678-2610~2)

미술관 옆 동물원展

8월 17일(금)-9월 12일(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권혁 초대전

9월 3일(월)-9월 22일(토)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박정수 개인전

9월 3일(월)-9월 9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장리라 개인전

9월 6일(목)-10월 7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나를 구성하는 공간-박정근 개인전

9월 7일(금)-10월 22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 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제4회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 선정작가
 사진 미래色-강재구, 권진우, 김태동**

9월 8일(토)-11월 2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24)

부산 누드드로잉협회 정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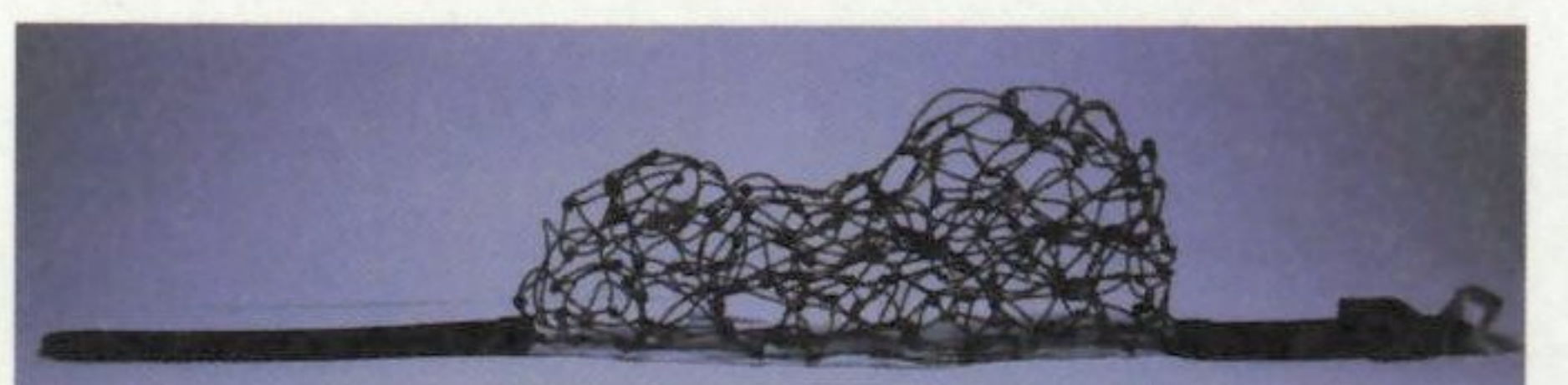
9월 12일(수)-9월 21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전통, 현대와 만나다’

9월 14(금)~10월 9일(화)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조각동아리 ‘아배’ 20주년 기념 ‘동네한바퀴’

9월 24일(월)-9월 28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석중호 작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롤라 모베스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4, 5번

롤라 보베스코(바이올린), 누오벨 RTBF 심포니 오케스트라 & 외젠느 이자이 다르세 앙상블, 에드가르드 도네외(지휘)



전설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가 Talent 레이블에서 발매했던 진귀한 음원이 수준 높은 리마스터링을 통해 CD로 재발매 되었다. 이전 오리지널 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명한 사운드를 통해 보베스코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1921년 8월 9일 루마니아의 Craiova에서 태어나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한 바이올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는 어린 시절 바이올린에 재능을 보여 6살에 첫 리사이틀 개최하였고, 1934년 파리 음악원에 입학, 1937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아자이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1958년 Orchestre de Chambre de Wallonie와 협연하고 브뤼셀 음악원의 교수로 임명되어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롤라 보베스코는 1971년과 1993년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베토벤, 포레, 브람스, 프랑크, 드뷔시를 비롯한 바로크 레퍼토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브뤼셀 음악원 재학시 유진아자이 스트링 앙상블을 결성하여 리더로서 활동하였으며, 피아니스트 Jacques Genty와 함께 프랑스 음악 페스티벌, 북유럽 등지의 순회 리사이틀을 개최하였다. 특히 북유럽과 동구 유럽쪽에서 이다 헨델과 함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계의 거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201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르네 플레밍(소프라노),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빈 필하모니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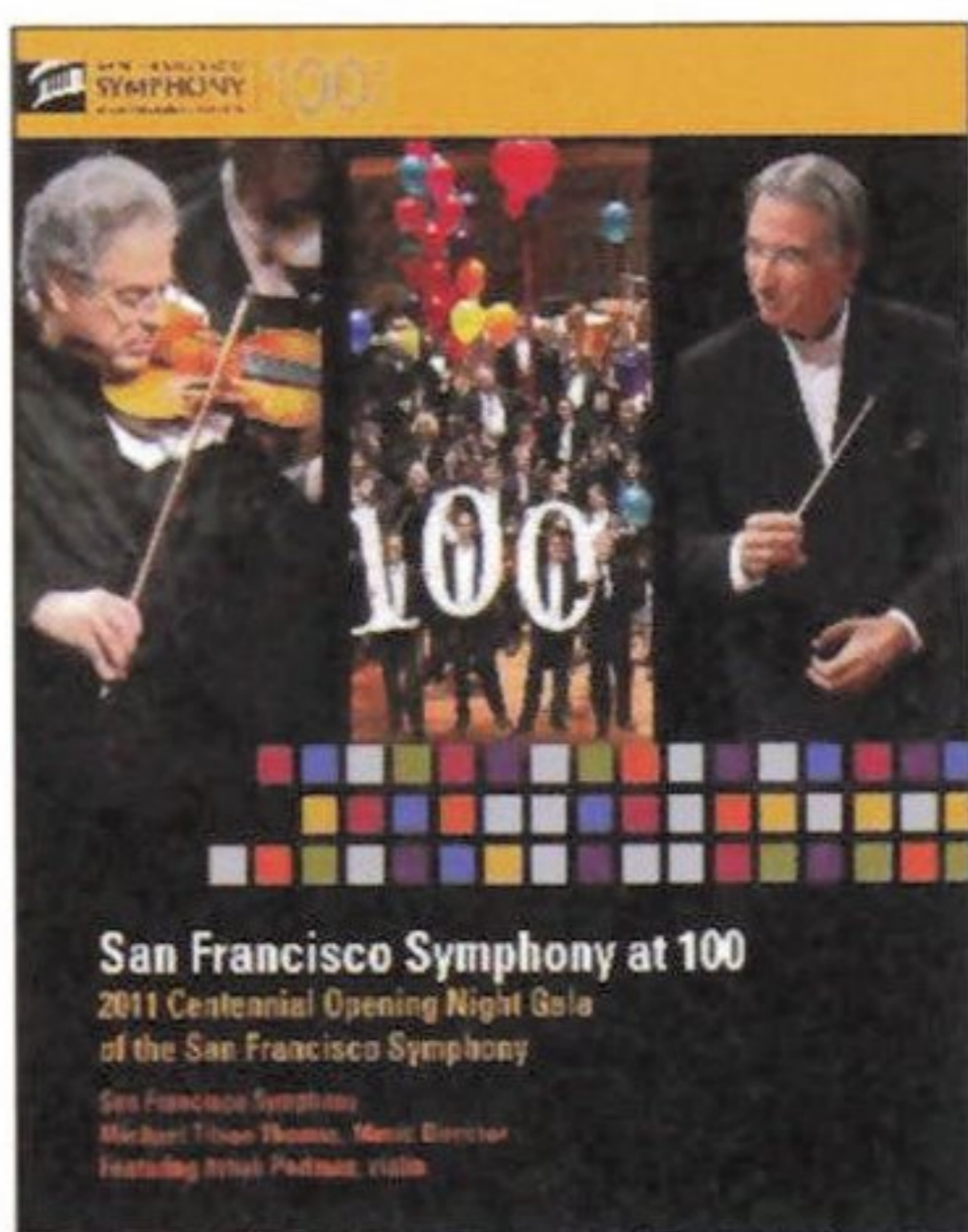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R.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들의 특별한 만남!!

2011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은 R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아끼는 애호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작곡가의 관현악 걸작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스케일과 변화무쌍한 악곡전개를 자랑하는 '알프스 교향곡'을 틸레만의 당당한 지휘와 빈 필하모니커의 빼어난 앙상블로 만나는 즐거움이 각별하며, OpusArte가 자랑하는 최고의 화면과 사운드가 그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르네 플레밍의 크림과도 같은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만나는 가곡들 또한 대단히 매력적이다. 오리지널 관현악 반주 가곡인 '아폴로 무녀의 노래' 외에도, 그의 대표 가곡들인 '황혼의 꿈', '해방' (Befreit), '겨울사랑'을 작곡가 자신 또는 로베르트 헤거에 의한 관현악버전으로 연주하였다.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섬세한 서정성을 자랑하는 작품인 '아라벨라' 중의 유명한 모놀로그 '나의 엘리마!' 까지 함께 수록, 작곡가의 관현악, 가곡, 오페라 모두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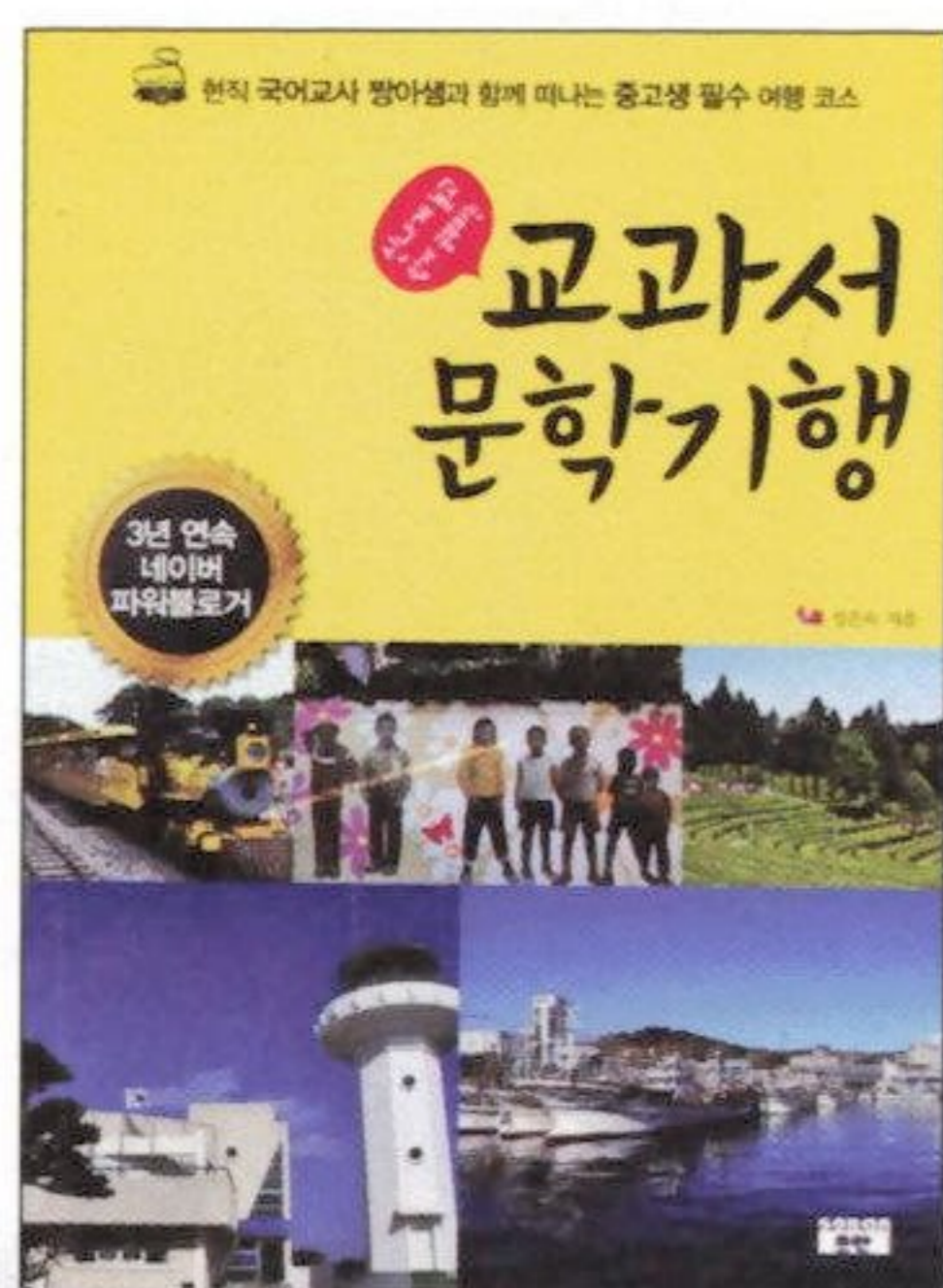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100주년 기념 갈라 공연

이차크 펄만(바이올린), 마이클 틸슨 토머스(지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2011년 9월 7일에 열렸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10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실황 공연! '조이력 클럽'으로 유명한 작가 에이미 탄이 사회를 본 이날 공연에서 MTT와 오케스트라는 코플랜드의 '빌리 더 키드' 모음곡, 브리튼의 '젊은이를 위한 관현악 입문', 이차크 펄만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으며, 앵콜로는 객석에 앉아있던 존 애덤스의 '질주 속에서의 짧은 탑승'으로 눈부신 오케스트라의 비르투오시티를 과시했다. 와이드스크린의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에 오케스트라의 긴 역사를 보여주는 충실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보너스로 들어 있어 더욱 반갑다.





신나게 놀고 쉽게 공부하는 교과서 문학기행

장은숙 지음 / 소란 / 293p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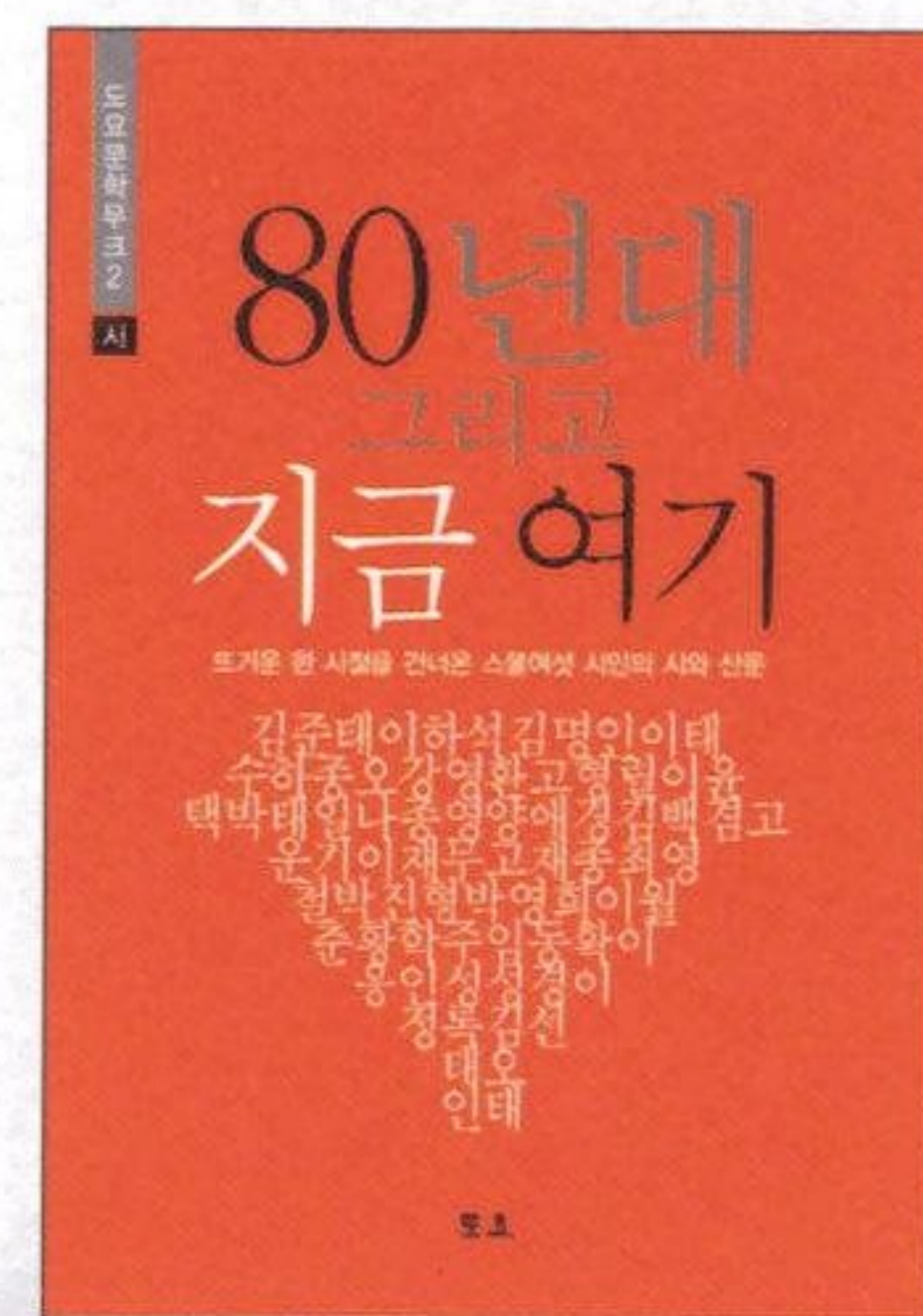
여행전문 파워블로거이자 부산사대부고 국어교사 장은숙 씨가 특별한 여행책을 펴냈다. 첫 번째 펴낸 책 <우리 아이 창의력 키우는 놀토>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말에 의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로 가득한 책이었다면, 이번에 낸 책 <교과서 문학기행>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성인 독자들까지 문학과 여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현직 교사로서 아이들이 교과서 속의 문학작품을 어려워하는 사실을 안타까워 한 저자는, 직접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나섰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학작품 속 배경이 된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교실 수업만으로는 다 배울 수 없는 생생한 문학체험이 담긴 이 책이 탄생했다.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문학작품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한국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문학기행 형식으로 소개하고, 맛집과 숙소정보까지 안내한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바닷가를 소설무대로 하는 오영수의 단편 <갯마을>에서, 이청준의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인 소록도, 박경리의 대하장편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 악양 평사리 등 문학의 감동과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이다.



아티스트의 스케치북

줄리아 로스먼 지음, 이지선 옮김 / 아트북스 192p / 1만7천원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패턴디자이너인 줄리아 로스먼이 아티스트 44인의 아이디어 보물창고인 스케치북을 펼쳐보여준다.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44인의 스케치북에는 그들의 작품의 최초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줄리아 로스먼은 아름다운 예술 서적들을 소개하는 인기 블로그 '북 바이 잇츠 커버(Book by Its Cover)'를 운영했다. 이 블로그에서 방문자들의 최고 인기를 얻은 코너는 아티스트들의 첫 아이디어가 생생히 살아 있는 스케치북을 소개하는 코너였다. 블로그의 특성상 새로운 스케치북이 소개될 때마다 과거의 것은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저자는 아름다운 스케치북 작업들이 잊히지 않도록 단행본으로 묶어냈다. 블로그에서는 작가들의 스케치북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이 책에서는 작가들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스케치북이 각 작가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케치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스케치북을 채우는지도 함께 소개했다. 아티스트들은 스케치북을 "일이자 재미"라고 말했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저장해두는 "백업용 하드드라이브"라고 말하기도 하며, "누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는 장소"라고 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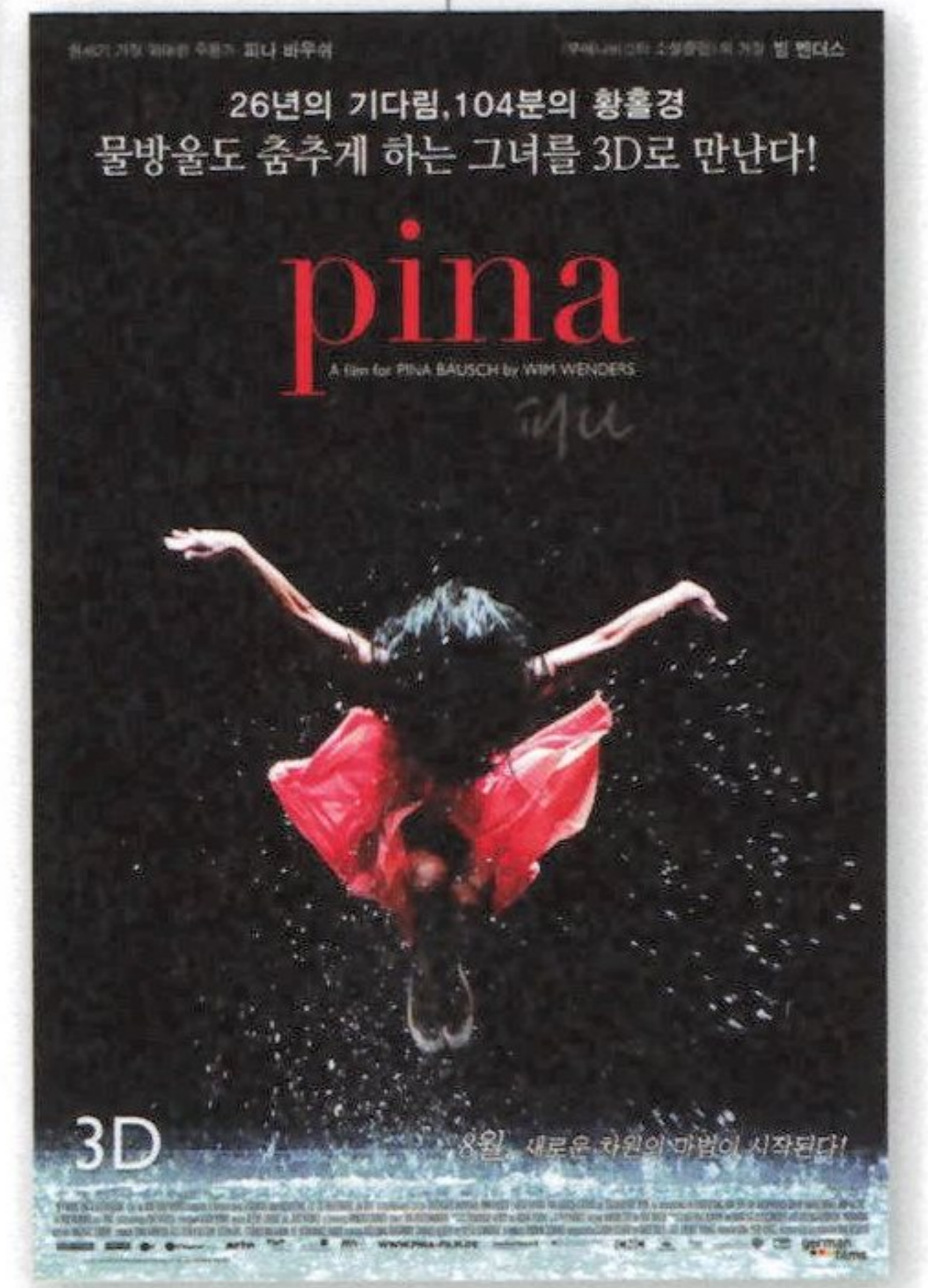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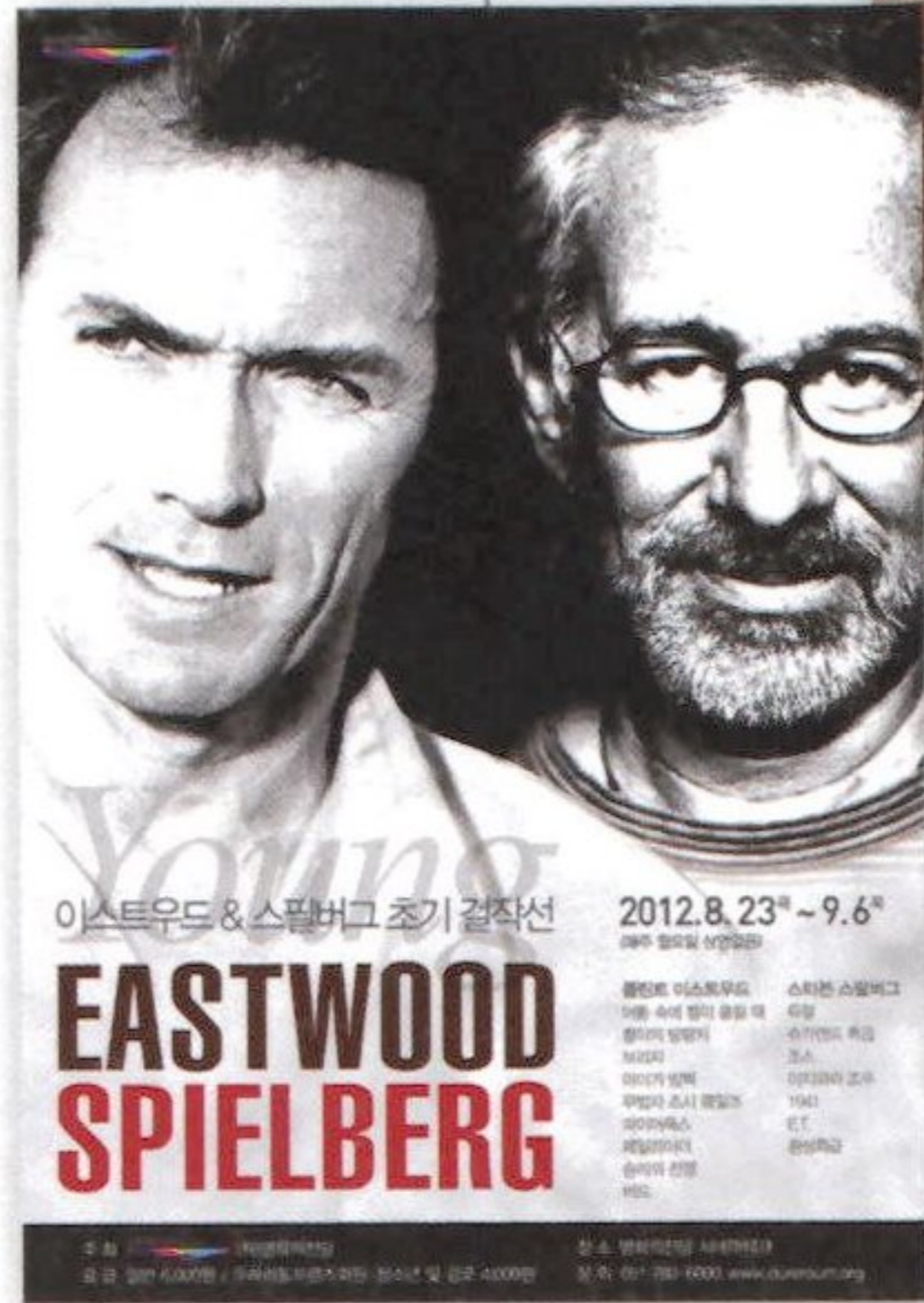
80년대 그리고 지금 여기

이윤택 외 지음 / 도요 / 271p / 1만5천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창작의 실체는 여전히 80년대적이다. 80년대적이다? 문학이 삶과 살 섞어야 한다는 것." 극작연출가이자 시인인 이윤택은 2012년 현재 되돌아본 30년 세월을 이렇게 표현한다. 출판사 도요에서 '도요문학무크' 두 번째 권 <80년대 그리고 지금 여기>는 1980년대를 담은 시를 썼고, 30년 세월을 뜨거운 열정으로 건너온 스물여섯 시인의 시와 산문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발문에서 "80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지난 30여 년을 걱정과 혼돈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민주화의 열망이 뜨겁게 이어졌던 80년대 초중반은 비통하고 불우했으나 대의와 공동체의 열망 앞에 아낌없이 몸 던진 시기였다. 그리고 중심논리가 해체된 개방과 자율의 20여 년은 기대와 혼돈, 밀도 끝도 없는 물적 욕망이 교차한 시기였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로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록한 김준태 시인, 화려한 산업사회의 황폐한 이면을 시로 기록한 이하석 시인 등의 시와 산문들이 보인다. 1980년대에 한국 시인들의 시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당연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시인들의 작품과 현재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SPECIAL MOVIE



이스트우드 & 스피버그 초기걸작선

8월 23일(목)~9월 6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오늘의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두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스티븐 스피버그의 초기작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영회가 펼쳐진다. 바로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8월 23일부터 두주간 펼쳐지는 '이스트우드 & 스피버그 초기걸작선'. 현대 미국영화의 기적이라 불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971년 감독 데뷔작인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를 시작으로 이후 80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감독과 배우를 겸하며 수많은 걸작들을 발표함으로써, 현대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추앙되기에 이르렀다. 어릴 적부터 영화 천재로 불린 스티븐 스피버그 역시 1971년 탁월한 영화광적 감수성이 빛나는 데뷔작 '듀얼'로 인정받은 뒤, 시네필의 지지를 받는 소품과 폭넓은 대중성을 지닌 대작을 넘나들며 할리우드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데뷔작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를 비롯해 이스트우드 특유의 사색적 서부극 '황야의 방랑자', '무법자 조시 웨일즈', 흥미로운 첩보 액션 스릴러 '아이거 빙벽' 등 그의 초기 걸작 9편과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데뷔작 '듀얼'과 스릴과 서스펜스를 탁월하게 융화시킨 '슈가랜드 특급', 할리우드의 기록적인 흥행작 '조스', 'E.T.' 등 초기 걸작 7편이 함께 상영된다.

인디애니 씨앗터 IN 국도

9월 15일(토) 오전 10:00 부산국도예술관

부산국도예술관이 그동안 상영해오던 수요애니상영회를 토요일로 옮기면서 새롭게 단장한 '인디애니 씨앗터 IN 국도'는 평소 접하기 힘든 독립 애니메이션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다. 지난 8월부터 매달 3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펼쳐진 부산국도예술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6~8편의 단편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에는 총 8편의 단편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는 '투란도트'(감독/유정아, 상영시간 14분)를 비롯해 저예산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아기 펭귄의 우울증 치료기를 그린 '아기 펭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감독/최봉수, 상영시간 9분 56초), 부모의 내리사랑을 그린 '짜사랑'(감독/윤진아, 상영시간 4분 15초),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사람과 물고기에 비유한 '피쉬'(감독/박신애, 상영시간 3분 30초), 닭살 돋는 복고풍 연인들의 이별이 황당하고 코믹하게 전개되는 '지우개 연인'(감독/박지연, 상영시간 4분 40초), 영화 '미저리'에 코믹한 반전을 더한 '미저리'(감독/김대범, 상영시간 6분 11초), 저승사자와 추격전을 벌이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지옥행'(감독/구본형, 상영시간 5분 40초), 한집에 사는 고양이 아리와 동동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모색해보는 '봄이니까'(감독/박생기, 상영시간 13분 40초) 등이 관객과 만난다.

다큐멘터리 '피나'

9월 상영, CGV 서면

물방울도 춤추게 하는 천재 무용가 피나 바우쉬. 현존하는 최고의 시네아스트 빔 벤더스 감독이 그녀의 영혼이 투영된 경이로운 작품세계를 3D로 부활시킨다. 촬영 직전, 피나 바우쉬가 암 진단 5일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작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지만 그녀의 오랜 예술적 동지였던 빔 벤더스는 생전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피나'를 완성한다. 봄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폭력적인 군무를 통해 보여주는 '봄의 제전', 인간의 갈망과 외로움을 미니멀하게 담아낸 '카페 뮐러',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호기심과 욕망, 그리고 잔인함을 다룬 '콘택트호프', 비바람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내면세계와 싸우며 사랑을 갈구하는 거친 춤 '보름달' 등 피나 바우쉬의 대표작 4편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감정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피나'에 출연한 세계 최정상급의 부퍼탈 무용수들은 격렬한 독무, 우아한 듀엣, 역동적인 군무를 이용해 그러한 감정들을 환희의 몸짓으로 감동적으로 펼쳐내며 피나 바우쉬의 영혼을 부활시킨다. 근육의 미세한 떨림과 땀방울은 물론 무용수들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잡아낸 '피나'의 실사 100%의 리얼 3D는 이제까지 어떠한 영화나 공연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감각적이고 경이로운 시각적 여행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NEWS

찾아가는 예술단 9월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9월에도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9월에는 사상도서관에서 꿈나무 소망심기공연과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내사랑 부산공연, 강서실내체육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이 펼쳐진다.

9월 5일(수) 15:00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내사랑 부산공연 '신평동 주민과 함께' (출연/국악관현악단)

9월 8일(토) 11:00 사상도서관 꿈나무 소망심기공연 '사상도서관에서' (출연/국악관현악단)

9월 27일(목) 11:00 강서실내체육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출연/무용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7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37회 청소년 협연의 밤' 공연 협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연일시 및 장소** : 2012. 10. 18(목) 19: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 모집개요

- 가. 대 상 : 전국 중·고·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모집부문 : 전체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笙황, 비파, 양금) 등}
- 다. 응시곡목 : 협주곡(자유곡) 1곡
- 라. 모집인원 : 6명 이내

2. 원서교부 및 전형일정

- 가. 접수기간 : 9. 3(월)~9. 6(목) 17:00까지(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우편접수는 2012. 9. 6(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접 수 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051-607-3121~4)
▶우편접수 : 우)608-024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
- 다. 전형일자 : 2012. 9. 10(월) 10:00(09:00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 라. 전형장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3.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3×4cm) 1매
- 나. 학교장(학과장) 추천서 1부, 본인 프로필 1부
- 다. 응시곡목 : 협연곡(자유곡) 악보 7부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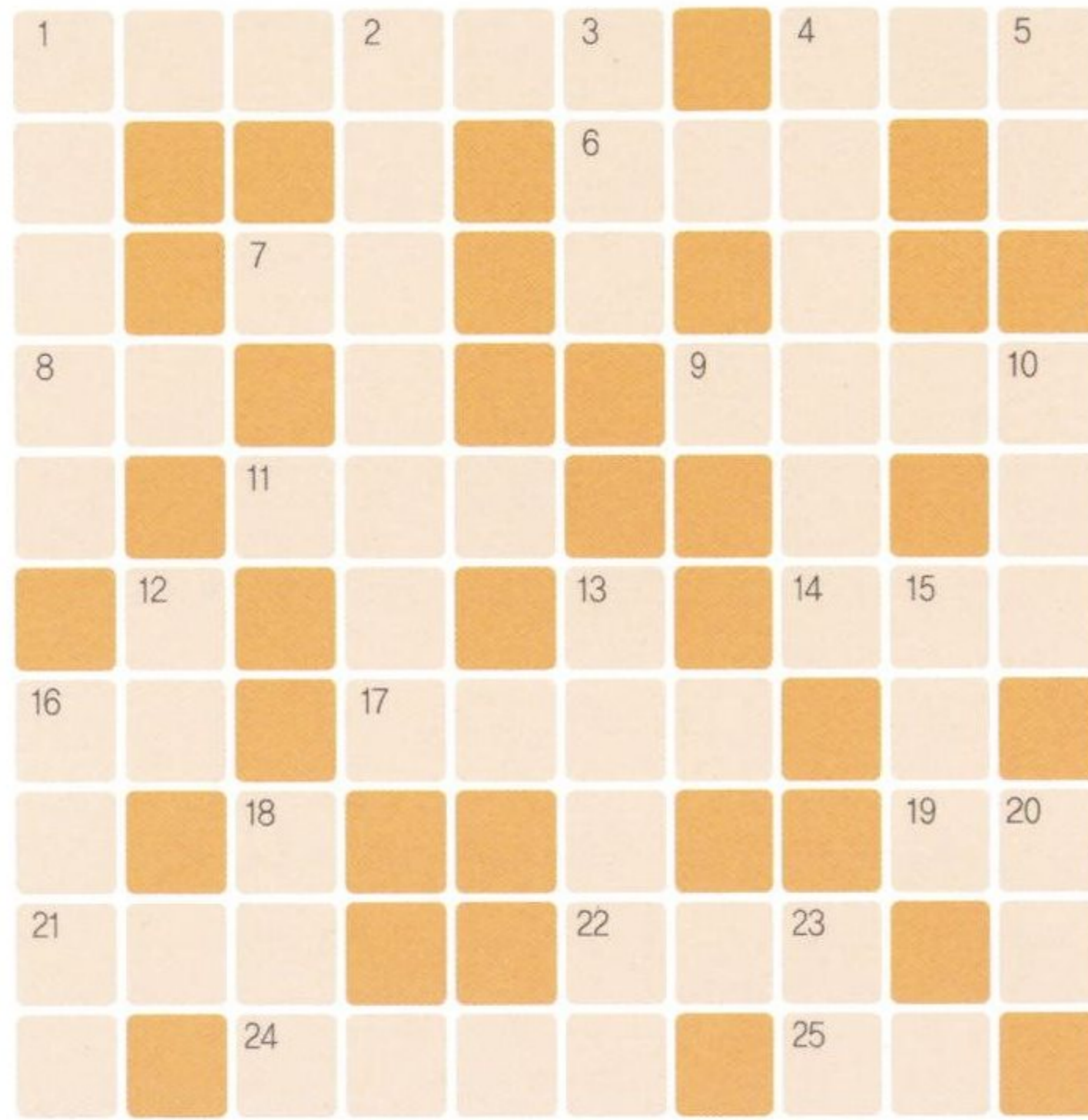
- 가. 합격자발표 : 2012. 9. 12(수) 14: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나.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051-607-3121~4)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가로열쇠]

- ① 1981년 발족되어 제7회까지 치뤄진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그 뒤를 이은 바다미술제,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통합한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 6회를 맞는 올해는 '배움의 정원'이라는 부제로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 펼쳐진다.
- ④ 지리산의 최고봉. 해발고도 1,915m로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 다음으로 높다.
- ⑥ 1985년 당시 20대이던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국악과 양악의 접목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에 앞장서온 국악실내악팀. 대표곡인 '산도개비', '소금장수' 등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 ⑦ 낮 12시.
- ⑧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
- ⑨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 ⑩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에 등장하는 독창 혹은 이중창.
- ⑭ 1998년 여성 아이돌그룹 '핑클'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가수 뿐만 아니라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최근에는 유기견 보호 활동을 펼치며 소셜테이너로

도 활동하고 있다.

- ⑬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이자 온달의 아내.
- ⑰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헌군주국. 수도는 암스테르담.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아 전통적으로 간척사업과 농지개발사업이 활발하고, 국토의 70%가 농목지로서 낙농과 원예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 ⑲ 일정한 음정의 순서로 음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 동양음악은 5음, 서양음악은 7음을 기초로 한다.
- ㉑ 소설가, 아동문학가. 호는 향파(尙破). 구상, 송지영 등과 '갈숲' 동인으로, 김정환, 박지홍 등과 '운좌(輪座)' 동인으로 활동하며 부산아동문학회를 창립하였다. 풍자와 해학을 주축으로, 이른바 잃혀지는 재미성을 주장한 아동문학가를 대표한다.
- ㉒ '에밀 싱클레어의 청년시절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출간되어 문학계에도 일대 파장을 일으켰던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
- ㉔ 계모의 구박을 받던 주인공이 요정의 도움으로 궁중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잃어버린 구두가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의 프랑스 작가 페로의 동화.
- ㉕ 1925년 일본 서커스단에서 활동하던 동춘 박동수 선생이 30명의 조선 사람을 모아 창단한 이래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커스단.

[세로열쇠]

- ①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모든 예술을 총망라한 부산예술인들의 큰 잔치. 올해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민회관과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 ②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등의 '스파게티 웨스턴'과 '미션' '시네마 천국' 등의 음악이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5000만장의 앨범이 팔렸다.
- ③ 두 사람의 경기자가 매트 위에서 맨손으로 맞붙어 상대방의 두 어깨를 1초 동안 바닥에 닿게 함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격투기.
- ④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벼거리거나 날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라틴아메리카 음악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보통 두 개가 한 조로 쓰이는데, 크기가 서로 다른 작은북의 한 면에 가죽을 씌우고 허리에 걸어서, 넓적다리 사이에 끼고 양 손가락으로 친다.
- ⑥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위는 대개 여섯 모가 지고 아래는 둥글며,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다.

- ⑫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 태백산맥에서 시작하여 황해로 흘러든다. 우리말에서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반도 중앙부 평야지대를 차지하는 이 강의 하류부는 신석기시대부터 문화발달의 터전이 되어왔다.
- ⑬ 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로 시, 평론과 희곡, 단편, 장편 등 어느 장르에서나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다.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 등이 있다.
- ⑮ 영화, 연극 등에서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 소리.
- ⑯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
- ⑰ 신이면 끝없이 춤을 춰야 하는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구두'에서 모티브를 따온 김용균 감독, 김혜수 주연의 공포영화.
- ⑲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 가까운 것을 이르는 말.
- ㉓ 경상북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리며 전통적인 양반문화에서 해학적인 민속문화까지 옛 문화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

지 / 난 / 호 / 정 / 답

아	크	로	스	후	쿠	오	카	노
라	댕	지			루	브	르	
비	창	풍	산	개	소		웨	
안		금	그	루			이	
나	그	네	베			훈	천	의
이	팔	리	아	치	불		숲	
트	릭		트	징	홀			
		모	나	리	자	아	리	아
잡	꼬	체	개	데				
가	루	지	기	터	미	네	이	터

8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감은영(남구 문현동)
초대권 문미은(부산진구 양정동)
박정은(동래구 온천동)
송경희(연제구 연산동)
황선영(북구 만덕동)

나랏소 남미혜(해운대구 좌동)
식사권 박선재(사상구 주례2동)
손화영(김해시 부원동)
정영희(금정구 서동)
황정수(사하구 하단동)

조은극장 김미영(남구 대연동)
초대권 박은정(연제구 연산5동)
전미숙(금정구 장전동)
정소영(양산시 북정동)
최수영(부산진구 양정1동)

큰집 김정숙(사하구 괴정2동)
식사권 박미숙(남구 용당동)
손미영(동구 초량동)
전익경(사상구 학장동)
한정은(사하구 당리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2012년 9월 공연일정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2012
September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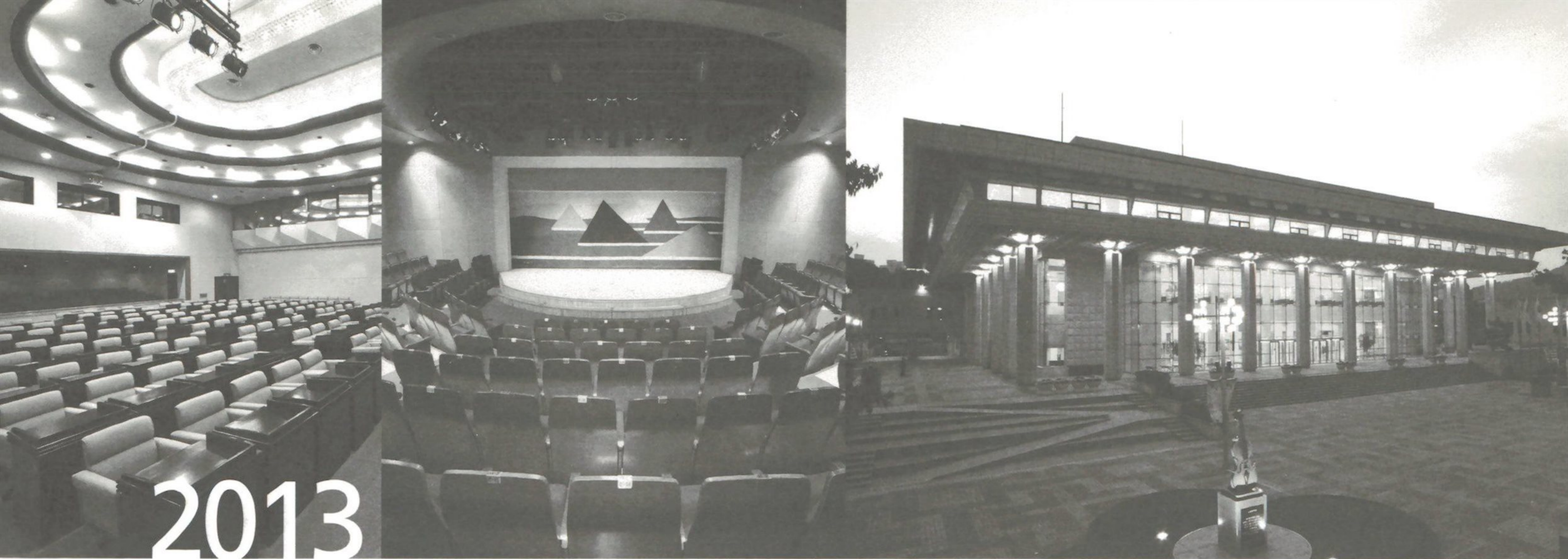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전시일정</p> <p>제 7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대, 중전시실 8월 31일(금)-9월 2일(일)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2012 부산비엔날레-대, 중전시실 9월 22일(토)-11월 24일(일) 부산비엔날레(503-6111)</p>						<p>01</p> <p>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15:30,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주)KNN(1577-7600)</p> <p>제7회 부산국제차어올림 문화제 11: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02</p> <p>제5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협주곡의 밤' 17:00 2만원 · 1만원 무료(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4-1295)</p> <p>제7회 부산국제 차어올림 문화제 11: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03	<p>04</p> <p>신라윈드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신라윈드오케스트라(010-4030-3962)</p>	<p>05</p> <p>장정윤의 현대무용 2012 19:30 균일 1만원/동아대학교(200-7819)</p>	<p>06</p> <p>2인 음악회 19:30 무료/인제대학교(010-9338-5889)</p>	<p>07</p> <p>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웰빙콘서트 무대 위의 결정체 오페라3 '카르멘'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08</p> <p>인제대관현악단 제3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인제대 관현악단(010-2939-9661)</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 금관5중주'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09</p> <p>인코리아인류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인코리아인류오케스트라(627-8088)</p> <p>김수희 제2회 개인공연 '세상을 춤추다' 17:00 2만원 · 1만원/김수희(010-8545-8065)</p>	10	<p>11</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및 201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보는 춤 추는 춤 19:30 초대/김진홍진통춤연구회(010-8912-4881)</p>	12	<p>13</p> <p>아르페 트리오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아르페트리오(010-4471-1128)</p>	<p>14</p> <p>2012 부산마루국제음악제-체코와 영국의 추억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070-7687-8291~2)</p> <p>윤은하 세비기무용단 두번째 춤이여 '나다' 19:30 초대/윤은하무용단(010-3598-1368)</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유익종의 음악여행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15</p> <p>201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음악의 트로이카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070-7687-8291~2)</p> <p>부산코러스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부산코러스합창단(070-7713-2008)</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6</p> <p>국립 타카 보드롬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9:0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코리아무지카(02-2272-6516)</p>	<p>17</p> <p>제5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4-1295)</p> <p>고정화 피아노독주회 19:30 초대/고정화(500-7260)</p>	<p>18</p> <p>불가리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자라지크 초청 내한공연 19:30 균일 2만원/월드퍼포먼스(442-7071)</p> <p>독우회 제4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012 정신헤무용단 New wave serie V 젊은 몸짓 '박미향의 춤' 19:30 초대/박미향(010-7737-1031)</p>	<p>19</p> <p>2012 평화통일 콘서트 19:30 초대/민주평화통일지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p> <p>2012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창단 15주년 기념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칸타빌레남성앙상블(010-2400-5271)</p>	<p>20</p> <p>모스크바 시티발레단 '백조의 호수' 내한공연 19:30 8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기울에 듣는 국악실내악-바다로 간 언어'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21</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6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은주(010-3471-8343)</p> <p>2012 부산예술제 마루연극페스티벌 '평하고 해들날' 19:30 1만 5천원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5-3759)</p>	<p>22</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6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2012 부산예술제 마루연극페스티벌 '평하고 해들날' 17:00 1만 5천원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5-3759)</p>
<p>23/30</p> <p>부산가톨릭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회 '찰스 구노-세실리아를 위한 미사' 19:30 초대/부산가톨릭합창단(010-8515-2872)</p> <p>2012 부산예술제 마루연극페스티벌 '평하고 해들날' 17:00 1만 5천원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5-3759)</p>	24	<p>25</p> <p>제30회 KBS 부산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620-7327)</p> <p>Camelia.. 그 세번째 이야기 19:00 무료/김셋별(010-2582-3367)</p>	<p>26</p> <p>2012 부산예술제 무용예술제 '로드' 19:30 균일 1만원/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2-5116)</p> <p>제30회 KBS 부산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620-7327)</p>	<p>27</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낭만의 두 가장'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012 동아대학교 합창 정기연주회 19:30 무료/동아대학교 음악학과(240-2827)</p>	<p>28</p> <p>2012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해외저메도시 예술교류음악회' 19:30 초대/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4-1295)</p> <p>소프라노 박유나 귀국 독창회 19:30 2만원 · 1만원/박유나(011-886-4477)</p>	29

September 2012 Program Guide

2012
September 9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Exhibition Hall</p> <p>The 7th Busan International Tea & Craft Fair Main & Middle Exhibition Hall 8.31(Fri)-9.2(Sun) Busan Tea Cultural Promotion study Communication(809-1551)</p> <p>2012 Busan Biennale Main & Middle Exhibition Hall 9.22(Sat)-11.24(Sun) Busanbiennale(503-6111)</p>						<p>01</p> <p>Ⓜ The 5th Corporations-love Concert 15:30, 19:30 100,000/70,000/50,000/ KNN(1577-7600)</p> <p>Ⓜ The 7th Busan International Tea & Craft Fair 11:00 Free/Busan Tea Cultural Promotion study Communication(809-1551)</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02</p> <p>Ⓜ The 5th Piano Grand Festival 'Night of Concerto' 17:00 20,000/10,000 /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Busan Branch(634-1295)</p> <p>Ⓜ The 7th Busan International Tea & Craft Fair 11:00 Free/Busan Tea Cultural Promotion study Communication(809-1551)</p>	<p>03</p>	<p>04</p> <p>Ⓜ The 5th Regular Concert of Silla Wind Orchestra 19:30 5,000/Silla Wind Orchestra(010-4090-3982)</p>	<p>05</p> <p>Ⓜ Chungyoon Chang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2012 19:30 10,000/ Dong-A University(200-7822)</p>	<p>06</p> <p>Ⓜ The Duo Concert 19:30 Free/Inje University(010-9338-5889)</p>	<p>07</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2 Well-being Concert Opera 'Carmen' 11:30 10,000/ B.P.O(607-3111-3)</p>	<p>08</p> <p>Ⓜ The 31st Regular Concert of Inje Medical University Symphony Orchestra 19:30 Invitation/ I.M.U.S.O(010-2939-9661)</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09</p> <p>Ⓜ The 11st Regular Concert of Incorean Youth Orchestra 18:00 Free/ I.Y.O(627-8088)</p> <p>Ⓜ The 2nd Dance Performance of Kim Suhee 17:00 20,000/10,000 Kim Suhee(010-8545-8065)</p>	<p>10</p>	<p>11</p> <p>Ⓜ The 482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2012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Opening Concert 19:30 10,000/7,000/5,000/ B.P.O(607-3111-3)</p> <p>Ⓜ Seeing Dance, Doing Dance 19:30 Invitation/Kim Jinhung Traditional Dance Study Communication(010-8912-4881)</p>	<p>12</p>	<p>13</p> <p>Ⓜ The Lecture Concert of Arte Trio 19:30 10,000/Arte Trio(010-4471-1128)</p>	<p>14</p> <p>Ⓜ 2012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zech and English Delights 19:30 50,000/30,000/20,000/ BMIMF(070-7687-8291-2)</p> <p>Ⓜ Yun Eunha's Dance Story Part 2 Invitation Yun Eunha Dance Company(010-3598-1368)</p> <p>Ⓜ The Concert, Under the Sky. part2 - Yu Iljong Concert 20:00 30,000/Busan Cultural Cental (607-6057)</p>	<p>15</p> <p>Ⓜ 2012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losing Concert- Musical Troika 19:30 50,000/30,000/20,000/ BMIMF(070-7687-8291-2)</p> <p>Ⓜ The Regular Concert of Busan Chorus Choir 17:00 Invitation/ Busan Chorus Choir(070-773-2008)</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Chorus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16</p> <p>Ⓜ The Concert of Turkey Bodrum Chamber Orchestra in Korea 19:00 70,000/50,000/30,000/20,000 Korea Musica (02-2272-6516)</p>	<p>17</p> <p>Ⓜ The 5th Piano Grand Festival 'Grand Piano Festival' 19:30 10,000 /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Busan Branch(634-1295)</p> <p>Ⓜ Ko Junghwa Piano Recital Invitation/Ko Junghwa(500-7260)</p>	<p>18</p> <p>Ⓜ The Concert of Bulgari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in Korea 19:30 The World Performance(442-7071)</p> <p>Ⓜ The 43th Regular Piano Concert 'Deutschland und Freunde' Invitation/ Art Bank Korea(442-1941)</p> <p>Ⓜ 2012 'Park Mihyang' s Dance' 19:30 Invitation/ Park Mihyang(010-7737-1031)</p>	<p>19</p> <p>Ⓜ 2012 Peace & Unification Concert 19:30 Invitation/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866-6363)</p> <p>Ⓜ The 15th Founding Anniversary Concert of Cantabile Male Ensemble 10,000 Cantabile Male Ensemble (010-2400-5271)</p>	<p>20</p> <p>Ⓜ Moscow City Ballet 'Swan Lake' 19:30 80,000/60,000/40,000/30,000 Artsbank Korea(442-1941)</p> <p>Ⓜ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Special Concert- The Night of Chamber Music 19:30 5,000/ B.M.T.O(607-3121-2)</p>	<p>21</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68th Concerto for Young Soloists' 19:30 2,000(unreserved seat)/ B.P.O(607-3111-3)</p> <p>Ⓜ Kim Eunju's Piano Recital 19:30 10,000/ Kim Eunju(010-3471-8943)</p> <p>Ⓜ 2012 Busan Art Festival Maru Theatre Festival-The Day of Success 19:30 15,000/ 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22</p> <p>Ⓜ The 142nd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17:00 Invitation/ B.M.J.C(607-3161-2)</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 2012 Busan Art Festival Maru Theatre Festival The Day of Success 19:30 15,000/ 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23/30</p> <p>Ⓜ The 34th Regular Concert of Busan Catholic Choir 19:30 Invitation/Busan Catholic Choir(070-8532-1117)</p> <p>Ⓜ 2012 Busan Art Festival Maru Theatre Festival-The Day of Success 19:30 15,000/ 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24</p>	<p>25</p> <p>Ⓜ The 30th KBS Busan Dance Concours - Preliminary 10:00 KBS(620-7327)</p> <p>Ⓜ Camelia,, The 3rd Story 19:00 Free/Kim Satbyul(010-2582-3367)</p>	<p>26</p> <p>Ⓜ 2012 Busan Art Festival - Dance Festival 'Rode' 19:30 10,000/Dance Association of Korea Busan Branch(632-5116)</p> <p>Ⓜ The 30th KBS Busan Dance Concours - preliminary 10:00 KBS(620-7327)</p>	<p>27</p> <p>Ⓜ The 42nd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19:30 2,000/ B.P.Y.O(607-3111-3)</p> <p>Ⓜ The Regular Choir Concert of Dong-A University 19:30 Free/Dong-A University(240-2817)</p>	<p>28</p> <p>Ⓜ 2012 Busan Art Festival 'The Night of Song and Aria' 19:30 Invitation/Busan Art Organization(631-1377)</p> <p>Ⓜ Soprano Park Yuna Recital 19:30 Invitation 20,000/10,000/ Park Yuna(011-886-4477)</p>	<p>29</p>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극장(대극장, 중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대관내용

대관기간 2013. 1. 1(화) ~ 2013. 6. 30(일)

극장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 접수 상담 시 안내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 접수 상담 시 안내

접수기간 2012. 9. 10(월) ~ 9. 21(금), 2주간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정치·종교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 학원 및 초·중·고등학생(예술학교 제외)의
학예발표성 공연·경연대회, 회관에 체납이 있는 경우 등은 대관 제외 대상입니다.

대관신청 및 허가절차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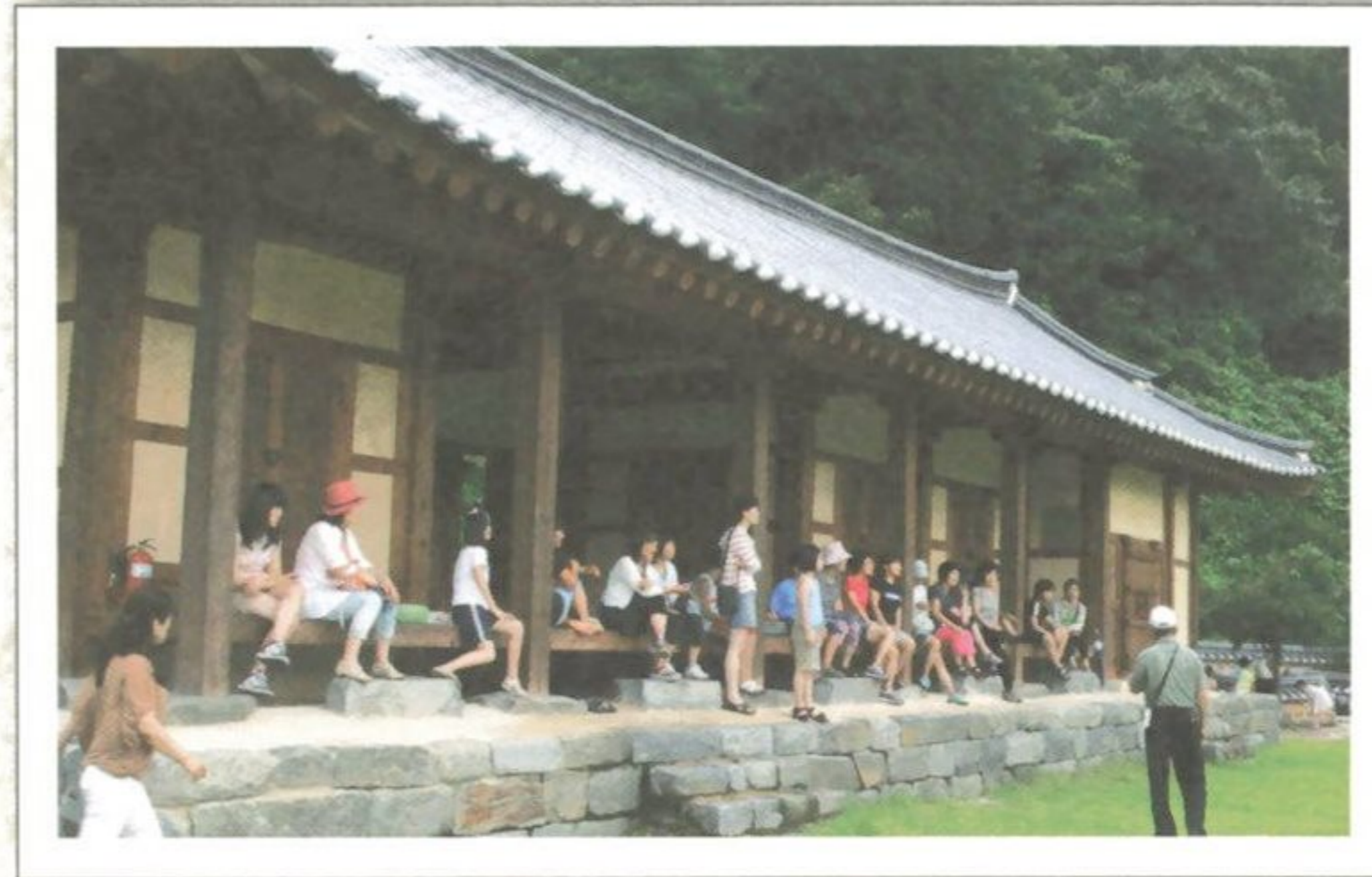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607-6051~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의령

2012년 10월 12일(금)

한가로운 농촌의 소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의령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의령의 3대 인물인 망우당 객재우 장군, 백산 안희제 선생, 호암 이병철 선생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생가, 유적지를 둘러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09:30 의령도착, 이병철 생가, 객재우 생가, 안희제 생가 탐방
- 12:30 중식
- 13: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의령한과 체험
- 16:00 총익사
- 17:00 부산으로 출발

통영

2012년 11월 9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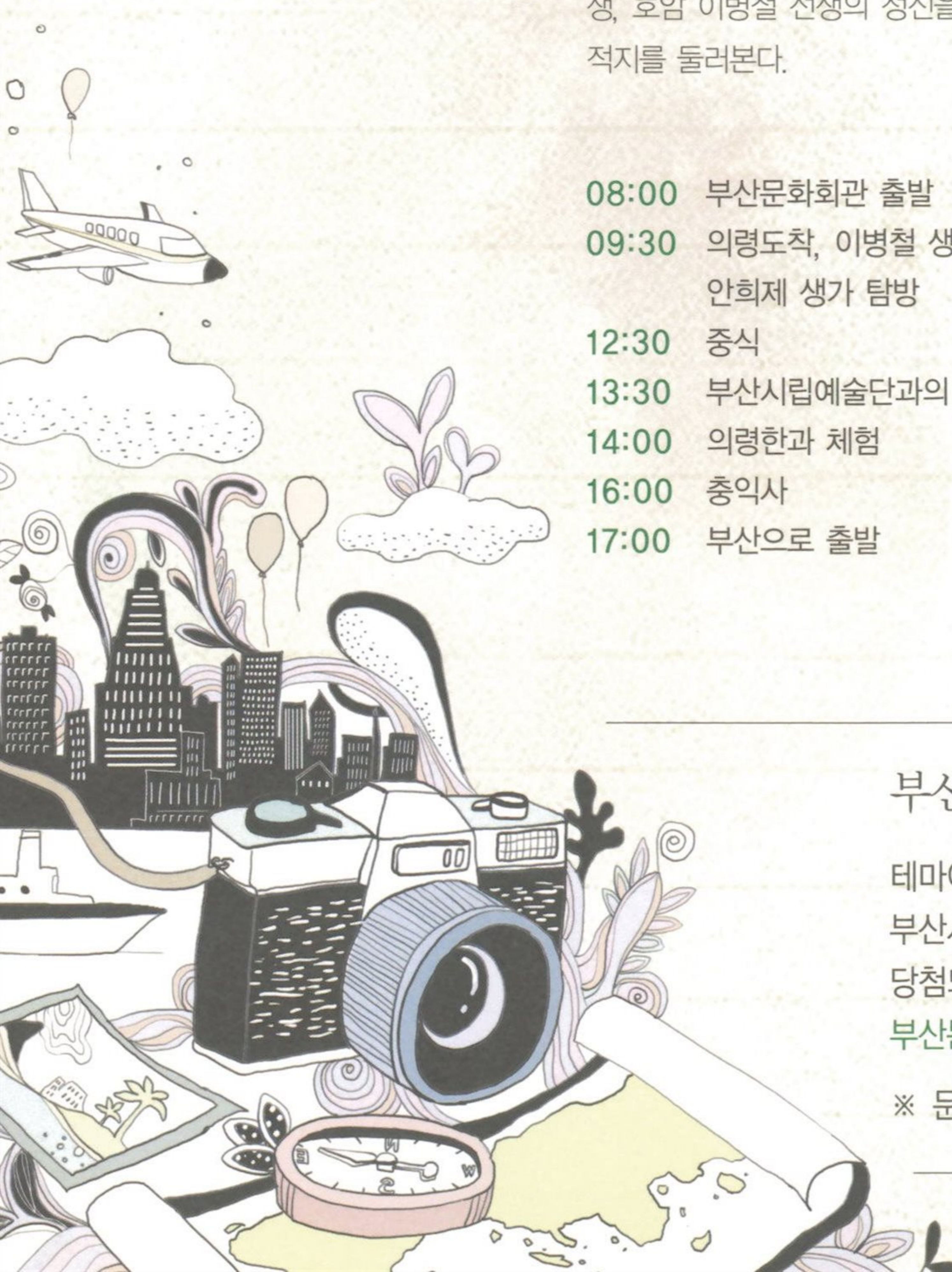
가을빛으로 물든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으로 떠나는 문화예술기행.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극작가 유치진, 소설가 박경리, 화가 전혁림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통영도착, 청마문학관, 이순신공원, 동피랑 벽화골목
- 12:30 중식
- 13: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윤이상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September Vol. 24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연락처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연락처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니동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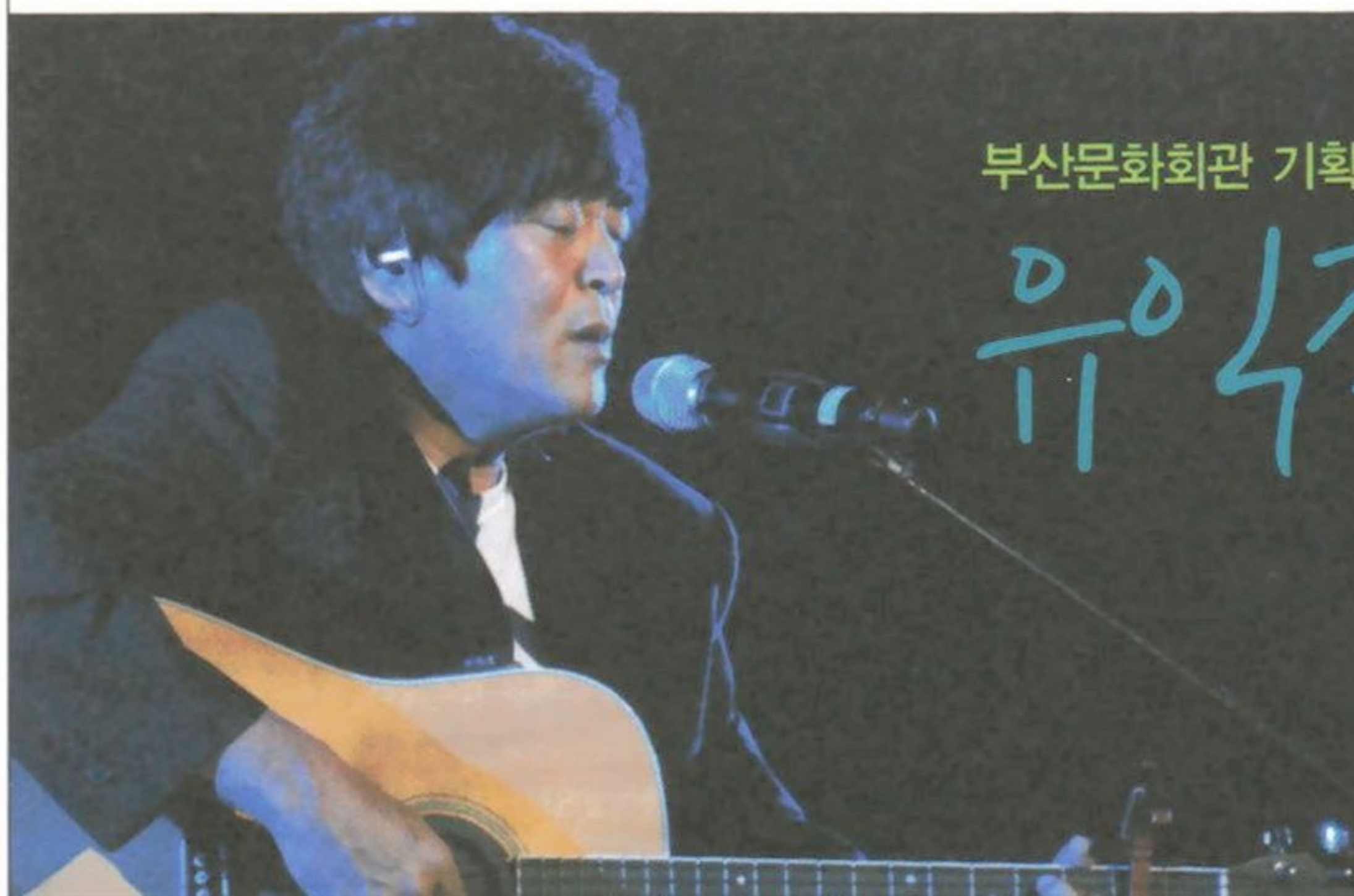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2 - Yesterday

유익종의 음주여행

2012. 9. 14(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20%
Discount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보이지 않는 사람들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

2012.9.7(금)-10.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보이지 않는 사람들'**

2012.9.12(수)-10.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9/30일,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9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 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원작 /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연출 / 김경화

각색 / 오리라 작곡 / 강원중

음악극

미친 광양이 기쁜들이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2. 10. 5(금) ~ 10. 6(토)

3회 공연 ▶ 평일 19:30 / 토요일 15:00, 19: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50th 1962-2012
ANNIVERSARY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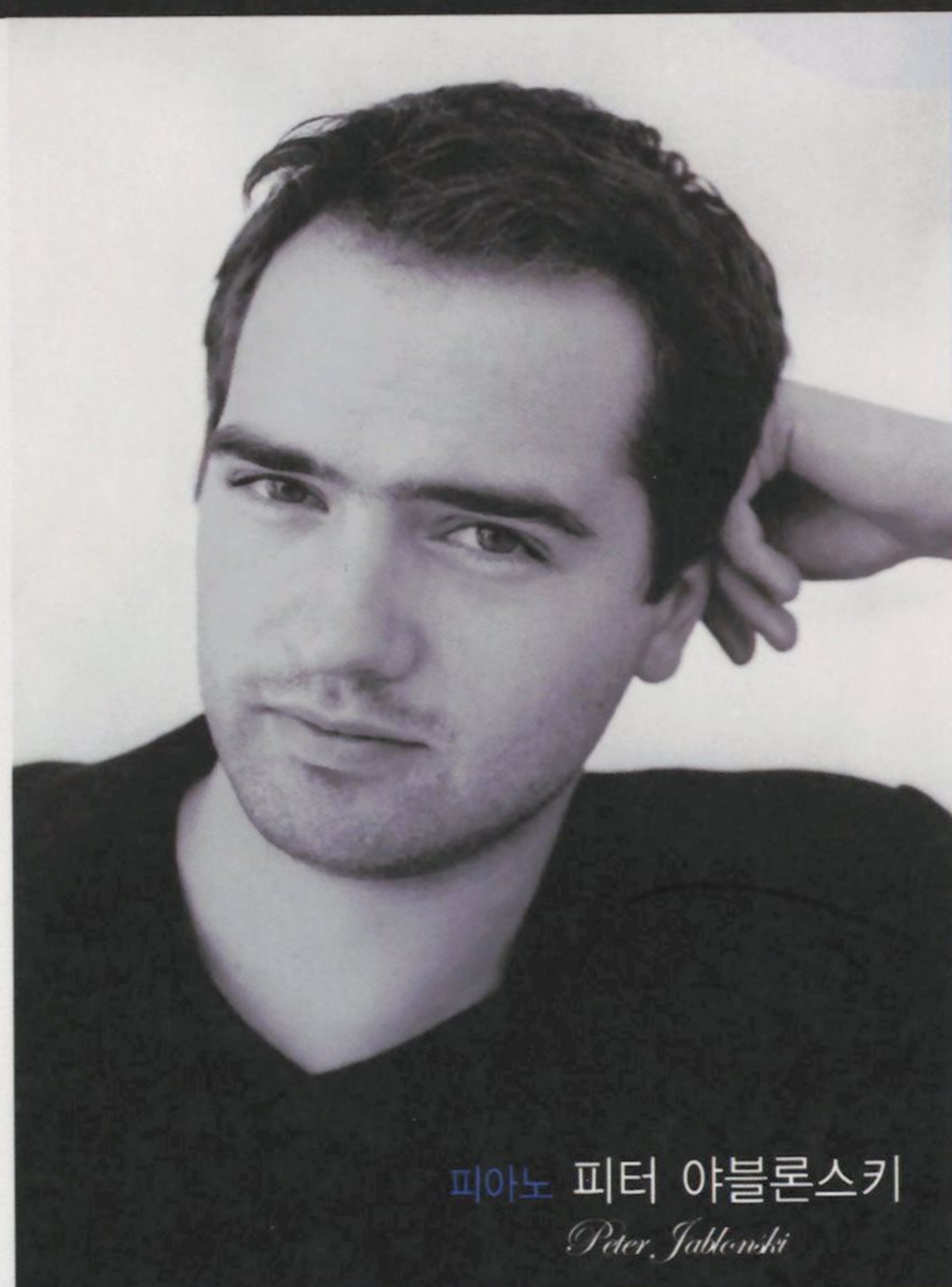
The 3r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제3회부산마루 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지휘 장-베르나르 포미에
Jean-Bernard Pommier

Program

- | | |
|-----------------|---------------------------------|
| 베토벤 | 「에그몬트」 서곡 |
| L.v.Beethoven | Overture to "Egmont" |
|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16 |
| E.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
|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36 |
| P.I.Tchaikovsky |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

2012. 9. 11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피터 야블론스키
Peter Jablonski

주최 부산광역시 공동주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자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문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